

이대영(李大榮)/동
 이명세(李明世)/동 종로1정목 44
 김우현(金禹鉉)/동 가회정 31-10
 양원주삼(梁原柱三)⁷⁰⁾/동 필운정 285
 정인과(鄭仁果)/동 서대문정 2정목 89
 정춘수(鄭春洙)/동 냉천정 31
 구자옥(具滋玉)/동 종로 2정목 9 중앙기독교청년회
 심명섭(沈明燮)/동 냉천정 31
 윤치소(尹致昭)/동 안국정 8
 윤치영(尹致暎)/동 안국정 104
 김창제(金昶濟)/동 가회정 33-38
 홍병선(洪秉璇)/동 서대문정 1정목 77-1
 원익상(元翊常)/동 신설정 271-1
 서원종린(瑞原鍾麟)⁷¹⁾/동 경운정 88 천도교 본부
 정광조(鄭廣朝)/동 동
 이돈화(李敦化)/동 상청정 52
 오세창(吳世昌)/동 돈의정 57
 권동진(權東鎭)/동 계동정
 조기간(趙基棨)/동 명륜정 2정목 124
 김기전(金起田)/동 경운정 88 천도교 본부
 차상찬(車相贊)/동 낙원정 공생약업회사
 대동석규(大東碩奎)⁷²⁾/동 견지정 시천교당
 이정욱(李正郁)/동 동
 황정헌(黃正憲)/동 동
 대산광설(大山光高)⁷³⁾/동 적선정 88
 강명순(姜炳順)/동 낙원정 149
 강영철(康永喆)/동 공평정 44
 최병석(崔秉錫)/동 다옥정 38
 심상직(沈相直)/동 인사정 35
 오촌승우(梧村升雨)⁷⁴⁾/동 수송정 46-22

70) 양주삼(梁柱三)의 창씨명.

71) 이종린(李鍾麟)의 창씨명.

72) 이석규(李碩奎)의 창씨명.

73) 서광설(徐光高)의 창씨명.

74) 이승우(李升雨)의 창씨명.

윤명용(尹明龍)/동 돈의정 76-2
 송천구영(松川求瑛)⁷⁵⁾/동 공평정 41
 금촌병태(金村秉泰)⁷⁶⁾/동 다옥정 32
 이종성(李宗聖)/동 돈의정 76-1
 덕산백순(德山白洵)⁷⁷⁾/동 관수정 7
 이동원상(伊東元上)⁷⁸⁾/동 견지정 27-19
 이용설(李容高)/동 견지정 118
 김성진(金晟鎭)/동 서린정 133
 백기호(白基昊)/동 서린정 백내과
 백인제(白麟濟)/동 영락정 2정목 85
 임명재(任明宰)/동 안국정 163
 박창훈(朴昌薰)/동 낙원정 135
 박종선(朴鍾璿)/동 견지정 49
 정석태(鄭錫泰)/동 다옥정 75
 김동익(金東益)/동 종로 2정목 58
 유흥중(劉洪鍾)/동 경운정 75
 이정백(李楨伯)/동
 신필호(申弼浩)/동 인사정 39
 고영순(高永珣)/동 공평정 1
 이정섭(李晶燮)/동 명륜정 4정목 127-2
 노창성(盧昌成)/동 계동정 140
 이한복(李漢福)/동 궁정정 40
 이서구(李瑞求)/동 현저정 46-739
 안중화(安鍾和)/동 옥인정 9-9
 김은호(金殷鎬)/동 와룡정 38-1
 현제명(玄濟明)/동 신촌정 연희전문학교 내
 안석주(安碩柱)/동 태평통 조선연예협회
 청산철(靑山哲)⁷⁹⁾/동 동
 김규택(金奎澤)/동 태평통 조광사
 도상봉(都相鳳)/동 경신학교

75) 정구영(鄭求瑛)의 창씨명.

76) 김병태(金秉泰)의 창씨명.

77) 최백순(崔白洵)의 창씨명.

78) 윤원상(尹元上)의 창씨명.

79) 이철(李哲)의 창씨명.

김억(金億)/동 정동정 조선방송국
 김영환(金永煥)/동 죽첨정 3정목 3
 계정식(桂貞植)/동 이화여자전문학교
 송진우(宋鎭禹)/동 원서정 74
 김준연(金俊淵)/동 성북정 41
 여운형(呂運亨)/동 계동정 140
 정노식(鄭魯湜)/동 성북정 91
 허헌(許憲)/동 중학정 41-1
 김약수(金若水)/동 청진정 일선여관
 유진희(俞鎭熙)/동 성북정 동소문의원
 서정희(徐廷禧)/동 상왕십리 706-7
 홍증식(洪增植)/동
 김항규(金恒圭)/동 소격정 28
 차재정(車載貞)/동 낙원정 24
 여운홍(呂運弘)/동 종로 2정목 9 중앙기독교청년회
 손정규(孫貞圭)/동 운현궁
 모운숙(毛允淑)/동 안암정 86-115
 최정희(崔貞熙)/동 삼천리사
 홍승원(洪承嫻)/동
 박은혜(朴恩惠)/동 제기정 149-4
 성원경(成元慶)/동 혜화정 20
 이각중(李覺鍾)/동 중학정 1 대동민우회
 이상철(李相喆)/동 필운정 146
 김광수(金光洙)/동 명륜정 1정목 38-5
 윤우식(尹宇植)/동 사직정 214
 신태악(辛泰嶽)/동 무교정 98
 백낙준(白樂濬)/동 신림정 산-9
 조병옥(趙炳玉)/동 인의정 119-1
 이승복(李昇馥)/동 계동정 43
 구창조(具昌祖)/동 내자정 186
 이훈구(李勳求)/동 죽첨정 2정목 65
 야촌홍원(野村弘遠)⁸⁰⁾/동 삼각정 105
 이춘호(李春昊)/동 신림정 131-2

80) 손홍원(孫弘遠)의 창씨명.

양원모(梁源模)/동 공평정 9
 임정엽(林正燁)/동 창신정 641
 장회근(張晦根)/동 명륜정 1정목 36
 김동성(金東成)/동 죽첩정 1정목
 조병렬(趙炳烈)/동 돈의정 40
 이관구(李寬求)/동 당주정 20
 이여성(李如星)/동 옥인정 56
 희다의(喜多毅)⁸¹⁾/동 신교정 정학회
 최원섭(崔元燮)/동 인사정 신라옥 주식회사
 김택용(金澤勇)/동 의주통 1정목 163
 김병로(金炳魯)/동 청진정 175
 이인(李仁)/동 청진정 175
 김용무(金用茂)/동 광화문통 98
 소완규(蘇完奎)/동 수은정 162-1
 최진(崔鎭)/동 인사정 154
 강본오랑(岡本五郎)/동 돈의정 64
 이달용(李達鎔)/동 가회정 30
 이병길(李丙吉)/동 옥인정 19
 이해승(李海昇)/동 홍제외리 201
 이규원(李圭元)/동 중립정 155
 이홍묵(李鴻默)/동
 이중환(李重桓)/동
 한상억(韓相億)/동 가회정 10
 이가진호(李家軫鎬)⁸²⁾/동 황금정 3정목 217
 서천상훈(徐川相勛)⁸³⁾/동 서대문정 1정목 174
 장간현식(張間憲植)⁸⁴⁾/동 누상정 166-132
 청도금차랑(淸道金次郎)⁸⁵⁾/동 필운정 174-1
 평림린사랑(平林麟四郎)⁸⁶⁾/동 원서정 135
 김영진(金英鎭)/동 명륜정 2정목 96

81) 박준영(朴駿榮)의 창씨명.
 82) 이진호(李軫鎬)의 창씨명.
 83) 서상훈(徐相勛)의 창씨명.
 84) 장현식(張憲植)의 창씨명.
 85) 김윤정(金潤晶)의 창씨명.
 86) 신석린(申錫麟)의 창씨명.

복전겸치(福田謙治)⁸⁷⁾/동 계동정 2-45
 정원규복(井垣圭復)⁸⁸⁾/동 운니정 97
 박산용구(朴山容九)⁸⁹⁾/동 공덕정 398-8
 어담(魚潭)/동 하왕십리정 569
 평소수웅(平沼秀雄)⁹⁰⁾/동 명륜정 1정목 69
 금강부신(金光副臣)⁹¹⁾/동 도화정 59
 금전명(金田明)⁹²⁾/동 명륜정 1정목 36-17
 옥천진순(玉川鎭淳)⁹³⁾/동 가회정 1-73
 목하두영(木下斗榮)⁹⁴⁾/동 혜화정 5-10
 본성수통(本城秀通)⁹⁵⁾/동 필운정 90
 오천교원(烏川僑源)⁹⁶⁾/동 송인정 72-17
 덕산선언(德山善彦)⁹⁷⁾/동 혜화정 80-1
 유만겸(俞萬兼)/동 제동정 107
 이경식(李敬植)/동 가회정 177-4
 대지용장(大池龍藏)⁹⁸⁾/동 명륜정 1정목 95
 광안중철(廣安鍾哲)⁹⁹⁾/동 북아현정 1-123
 풍원이상(豊原以尙)¹⁰⁰⁾/동 다옥정 10
 금해화준(金海化俊)¹⁰¹⁾/동 안암정 182-7
 신산영호(神山永皓)¹⁰²⁾/동 종로 5정목 75
 조야청의(朝野晴義)¹⁰³⁾/동 관철정 247-1
 양윤식(楊潤植)/동 서린정 120

-
- 87) 이겸제(李謙濟)의 창씨명.
 88) 한규복(韓圭復)의 창씨명.
 89) 박용구(朴容九)의 창씨명.
 90) 윤갑병(尹甲炳)의 창씨명.
 91) 김관현(金寬鉉)의 창씨명.
 92) 김명준(金明濬)의 창씨명.
 93) 유진순(劉鎭淳)의 창씨명.
 94) 박두영(朴斗榮)의 창씨명.
 95) 주영환(朱榮煥)의 창씨명.
 96) 정교원(鄭僑源)의 창씨명.
 97) 홍종국(洪鍾國)의 창씨명.
 98) 장석원(張錫元)의 창씨명.
 99) 안중철(安鍾哲)의 창씨명.
 100) 김상회(金尙會)의 창씨명.
 101) 김화준(金化俊)의 창씨명.
 102) 강영호(姜永皓)의 창씨명.
 103) 박승성(朴勝成)의 창씨명.

금산응순(金山應純)¹⁰⁴/동 원정 3정목 45
 신본원신(新本元信)¹⁰⁵/동 한남정 73
 금정태집(金井泰濩)¹⁰⁶/동 영등포정 570
 이정봉(李庚鳳)/동 태평통 2정목 282
 중본홍중(中本弘鍾)¹⁰⁷/동 도염정 107-2
 삼정주명(三井疇明)¹⁰⁸/동 효제정 109
 광산종향(廣山種香)¹⁰⁹/동 청량리정 산10
 초내흥수(草內興洙)¹¹⁰/동 필운정 110
 신강창희(神岡昌熙)¹¹¹/동 의주통정 2정목 8
 송본두용(松本斗用)¹¹²/동 도림정 90
 강촌상호(江村相鎬)¹¹³/동 아현정 210-3
 강본용표(康本容杓)¹¹⁴/동 상수일정 21
 대산상은(大山相殷)¹¹⁵/동 청엽정 2정목 90
 김광민(金光敏)¹¹⁶/동 영등포정 34-21
 양천재창(梁川在昶)¹¹⁷/동 삼청정 15
 서원굉(西原宏)¹¹⁸/동 신당정 251
 김종량(金宗亮)/동 중학정 10
 곽행서(郭行瑞)/종로 2정목 예수빌딩 내 신세기사
 주정순(朱貞順)/동 황금정 6정목 자동차부
 주윤(朱潤)/동 명륜정 4정목 208
 김동혁(金東赫)/동 충신정 187-28
 이창용(李創用)/동 장곡천정 조선영화문화연구소

104) 김응순(金應純)의 창씨명.
 105) 박원신(朴元信)의 창씨명.
 106) 김태집(金泰濩)의 창씨명.
 107) 이홍중(李弘鍾)의 창씨명.
 108) 박주명(朴疇明)의 창씨명.
 109) 이창업(李昌業)의 창씨명.
 110) 예흥수(芮興洙)의 창씨명.
 111) 강창희(姜昌熙)의 창씨명.
 112) 이두용(李斗用)의 창씨명.
 113) 차상호(車相鎬)의 창씨명.
 114) 강용표(康容杓)의 창씨명.
 115) 이상은(李相殷)의 창씨명.
 116) 김민식(金敏植)의 창씨명.
 117) 양재창(梁在昶)의 창씨명.
 118) 한상철(韓相喆)의 창씨명.

김재훈(金載勳)/동 정동정 25 경성음악전문학원
 김두기(金斗基)/동 가명학교
 김계림(金桂林)/동 종로 2정목 대륙산금합자회사
 안국상덕(安國商惠)¹¹⁹⁾/동 경운정 88
 박춘금(朴春琴)/동 이화정 25
 이성환(李晟煥)/동 삼청정 35-91
 신일용(辛日鎔)/동 혜화정 22-77
 김용암(金龍巖)/동 장학정 41-1
 한신교(韓慎敎)/동 장수정 181-2
 안전정치(安田正治)/동 내수정 70-77
 이창환(李昌煥)/동 봉익정 36-1
 박충식(朴忠植)/동 화신상회 내
 원세훈(元世勳)/동 암근정 168-21
 이종은(李鍾殷)/동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산가백(中山家伯)¹²⁰⁾/동 화동정 87-1
 대림준모(大林俊模)¹²¹⁾/동 양평정 420-85
 평천군오(平川君五)¹²²⁾/동 화동정 85
 대산근섭(大山根燮)¹²³⁾/동 경운정 88
 천본석홍(天本錫洪)¹²⁴⁾/동 경운정 88
 금강병제(金岡秉濟)¹²⁵⁾/동 삼청정 48
 천안등명(天安藤明)/동 가회정 1-88
 학천완(鶴川浣)¹²⁶⁾/동 경운정 88
 천전우영(天田宇英)¹²⁷⁾/동 명륜정 3정목 113-8
 궁전장(宮田藏)¹²⁸⁾/동 성북정 184-96
 송본명행(松本明幸)/동 소격정 29
 평강동수(平岡東洙)¹²⁹⁾/동 삼청정 35-142

119) 안상덕(安商惠)의 창씨명.
 120) 이인숙(李仁淑)의 창씨명.
 121) 최준모(崔俊模)의 창씨명.
 122) 이군오(李君五)의 창씨명.
 123) 이근섭(李根燮)의 창씨명.
 124) 박석홍(朴錫洪)의 창씨명.
 125) 김병제(金秉濟)의 창씨명.
 126) 박완(朴浣)의 창씨명.
 127) 이우영(李宇英)의 창씨명.
 128) 이종식(李宗植)의 창씨명.

임문호(林文虎)/동 신설정 71
 하본상태(河本相台)¹³⁰/동 사직정 96
 구미명선(龜尾明宜)/동 명륜정 2정목 67

◎ 경기도(無順)

금영태훈(金永泰勳)¹³¹/인천부
 송본청(松本淸)¹³²/동
 박봉진(朴鳳鎭)/개성부
 공성학(孔聖學)/동
 손홍준(孫洪駿)/동
 임헌장(林憲章)/동
 김기형(金基炯)/동
 국평봉구(國平鳳九)¹³³/여주읍
 박필병(朴弼秉)/안성읍
 목천옥상(睦川瑱相)¹³⁴/동
 함풍민훤(咸豐敏烜)¹³⁵/평택읍
 진전흥일(津田興一)¹³⁶/김포읍
 김주한(金胄漢)/포천읍
 평산정부(平山正夫)¹³⁷/가평읍
 유인목(俞仁穆)/광주읍
 무곡일홍(茂谷一弘)¹³⁸/고양군 지도면 토당리
 대천광일(大川光一)¹³⁹/장단읍
 차전준담(車田濬潭)¹⁴⁰/수원읍
 이등경섭(伊藤敬燮)¹⁴¹/시흥읍

129) 김동수(金東洙)의 창씨명.
 130) 하상태(河相台)의 창씨명.
 131) 김태훈(金泰勳)의 창씨명.
 132) 김윤복(金允福)의 창씨명.
 133) 이봉구(李鳳九)의 창씨명.
 134) 목옥상(睦瑱相)의 창씨명.
 135) 이민훤(李敏烜)의 창씨명.
 136) 이의중(李懿鍾)의 창씨명.
 137) 송성진(宋星鎭)의 창씨명.
 138) 이응호(李應鎬)의 창씨명.
 139) 서병식(徐丙軾)의 창씨명.
 140) 차준담(車濬潭)의 창씨명.
 141) 윤경섭(尹敬燮)의 창씨명.

유원완식(俞原琬植)¹⁴²/이천읍
 금우근호(金于根鎬)¹⁴³/강화읍
 원촌상일(元村常一)¹⁴⁴/부천읍
 성낙영(成樂永)/과주읍
 덕천용(德泉 溶)¹⁴⁵/양평읍
 강대곤(姜大崑)/연천읍
 평산충일(平山忠一)¹⁴⁶/용인읍
 우봉중구(牛峯重久)¹⁴⁷/양주읍

◎ 강원도(無順)

정등은섭(丁藤殷燮)/춘천읍
 강원기양(江原基陽)¹⁴⁸/철원군 읍내
 이한복(李漢復)/춘천읍 매일신보 지사
 국본정좌(國本政佐)¹⁴⁹/인제군 읍내
 금자원섭(金子元燮)¹⁵⁰/회양군 읍내
 궁본민광(宮本敏光)/통천군 읍내
 장원정기(張元正己)¹⁵¹/고성군 읍내
 고산재동(高山裁東)¹⁵²/양양군 읍내
 송강세종(松岡世宗)¹⁵³/강릉군 읍내
 환산용준(丸山隆準)¹⁵⁴/강릉군 읍내
 나정용마(蘿井龍馬)¹⁵⁵/삼척군 읍내
 김동석(金東錫)/삼척군 읍내
 산본찬(山本瓚)/평창군 읍내

142) 유원식(俞琬植)의 창씨명.
 143) 김근호(金根鎬)의 창씨명.
 144) 원인상(元仁常)의 창씨명.
 145) 이필상(李弼商)의 창씨명.
 146) 신충식(申忠湜)의 창씨명.
 147) 이중구(李重久)의 창씨명.
 148) 박보양(朴普陽)의 창씨명.
 149) 이진국(李鎭國)의 창씨명.
 150) 김원섭(金元燮)의 창씨명.
 151) 장명준(張明俊)의 창씨명.
 152) 고재동(高裁東)의 창씨명.
 153) 박기돈(朴基敦)의 창씨명.
 154) 최준집(崔準集)의 창씨명.
 155) 박준용(朴準龍)의 창씨명.

평소창호(平沼昶鎬)¹⁵⁶/횡성군 읍내
 신영순(申永淳)/횡성군 읍내
 홍원의명(洪原義明)/화천군 읍내
 금산광일(金山光一)¹⁵⁷/금화군 읍내
 대산현홍(大山顯洪)¹⁵⁸/철원군 읍내
 금강인관(金岡仁寬)/이천군 읍내
 최준용(崔駿鏞)/양구군 읍내
 한종열(韓鍾烈)/통천군 읍내
 전진한(錢鎭漢)/고성군 장전읍
 최양호(崔養浩)/춘천군 읍내
 대산세창(大山世倉)/춘천군 읍내
 부전하작(富田夏作)¹⁵⁹/통천군 읍내
 황본운부(黃本雲夫)¹⁶⁰/고성군 읍내
 김병환(金炳煥)/양양군 정손리
 조선영상(朝田永常)¹⁶¹/철원군 읍내
 평천덕일(平川德一)¹⁶²/동
 장영준영(張永俊英)¹⁶³/영월군 읍내
 장성수계(長城守界)/울진군 읍내
 금광덕충(金光德忠)/정선군 읍내
 평송의방(平松義邦)/영월군 읍내
 신정청우(新井淸友)¹⁶⁴/원주군 읍내
 부산선홍(富山善弘)¹⁶⁵/홍천군 읍내
 동천하룡(東川河龍)¹⁶⁶/평강군 읍내
 이돈의(李燉儀)/강릉군 경포면 선교리
 최명규(崔命圭)/강릉군 읍내

156) 윤창호(尹昶鎬)의 창씨명.
 157) 김만봉(金萬鳳)의 창씨명.
 158) 박현홍(朴顯洪)의 창씨명.
 159) 전하부(田夏富)의 창씨명.
 160) 황운부(黃雲夫)의 창씨명.
 161) 박찬규(朴贊珪)의 창씨명.
 162) 이덕일(李德一)의 창씨명.
 163) 장준영(張俊英)의 창씨명.
 164) 박충모(朴忠謨)의 창씨명.
 165) 박한표(朴漢杓)의 창씨명.
 166) 박하룡(朴河龍)의 창씨명.

배상효(裴相孝)/고성군 장전읍
최찬익(崔燦翊)/강릉군 주문진
최광식(崔光植)/평강군 서면 화암리

◎ 황해도(無順)

송야행성(松野行成)¹⁶⁷/해주부 북옥정
금강부원(金岡富源)¹⁶⁸/동 남옥정
평산익균(平山益均)¹⁶⁹/동 광석정
금택청(金澤淸)¹⁷⁰/동 남본정
금전기수(金田基秀)¹⁷¹/동
김상혁(金相赫)/동
김상은(金相殷)/동
김상돈(金相敦)/동 동영정
유훈영(劉薰榮)/동 북행정
최형직(崔馨稷)/동 북옥정
오세호(吳世皐)/동 남본정
오원동(吳元東)/동 동영정
길천성진(吉泉成辰)/연안읍
금강진성(金江鎭聲)¹⁷²/금천읍
삼도승일(三島承一)¹⁷³/금천군 좌면
평산현덕(平山鉉德)¹⁷⁴/평산읍
신원희(申元熙)/평산군
송원승찬(松原承燦)/신계읍
대산돈정(大山敦正)¹⁷⁵/곡산읍
김병준(金炳駿)/곡산군
중촌창효(重村昌孝)¹⁷⁶/수안읍

167) 손진언(孫鎭彦)의 창씨명.
168) 김경수(金景壽)의 창씨명.
169) 신익균(申益均)의 창씨명.
170) 김형익(金衡翼)의 창씨명.
171) 김기수(金基秀)의 창씨명.
172) 김진성(金鎭聲)의 창씨명.
173) 이승구(李承九)의 창씨명.
174) 신현덕(申鉉德)의 창씨명.
175) 신흥엽(李興燁)의 창씨명.
176) 정창선(鄭昌善)의 창씨명.

국강청덕(國岡淸德)/황주읍
 이동희(李東熙)/황주군
 윤경혁(尹景赫)/동
 김성려(金成麗)/동
 조정록(趙鼎錄)/동
 화천종준(和泉鍾駿)¹⁷⁷/사리원읍
 금촌낙범(金村洛範)/동
 송산봉성(松山鳳聖)/봉산군 산수면
 강창오(康昌梧)/봉산군 사리원
 김형철(金亨喆)/동
 양희철(梁熙哲)/동 서중면
 금포덕유(金浦德裕)¹⁷⁸/재령읍
 금포건유(金浦健裕)¹⁷⁹/재령군
 발산병덕(鉢山丙德)¹⁸⁰/동
 양원백규(良元伯圭)/동 신원면
 금포찬유(金浦讚裕)¹⁸¹/동
 청산정호(靑山正浩)/동
 향산청웅(香山淸雄)/동
 김홍량(金鴻亮)/안악읍
 원효섭(元孝燮)/동
 삼정청정(三井淸正)¹⁸²/신천읍
 이계천(李繼天)/신천군
 김종식(金鍾奭)/동
 민규식(閔奎植)/동
 매천수길(梅田秀吉)¹⁸³/송화군 풍해면
 송산원석(松山元錫)¹⁸⁴/송화읍
 대도구창(大島久昌)¹⁸⁵/웅진읍

177) 이종준(李鍾駿)의 창씨명.
 178) 정덕유(鄭德裕)의 창씨명.
 179) 정건유(鄭健裕)의 창씨명.
 180) 민병덕(閔丙德)의 창씨명.
 181) 정찬유(鄭讚裕)의 창씨명.
 182) 홍신권(洪信權)의 창씨명.
 183) 여구현(呂求鉉)의 창씨명.
 184) 오원석(吳元錫)의 창씨명.
 185) 장춘하(張春河)의 창씨명.

조규삼(曹圭三)/옹진군
 송산수웅(松山秀雄)¹⁸⁶/은율군 장연면
 홍광의(洪光義)/동
 안전정조(安田政助)/동
 덕천선길(德川宣吉)/서흥군 도면
 장대익(張大翼)/동
 이광익(李光翼)/동
 허원(許沔)/동
 홍순의(洪順義)/은율군 북부면 가악리
 나인협(羅仁協)/경의선 사리원역전 동리
 김인홍(金仁興)/안악군 은흥면 보광리
 삼경장원(三敬長元)/곡산군 읍내 천도교구
 김형국(金衡國)/황주군 읍내 성남리 천도교구
 김창현(金昌玄)/곡산군 읍내 천도교구

◎ 충청북도(無順)

김원근(金元根)/청주읍
 민영은(閔泳殷)/동
 이중갑(李重甲)/동
 이희준(李熙俊)/동
 이명구(李明求)/동
 이춘웅(李春雄)/충주군
 박호열(朴鎬烈)/동
 정석희(鄭奭熙)/동
 장준(張俊)/괴산군
 유증수(柳曾秀)/동
 이석래(李錫來)/보은군
 정수홍(鄭壽弘)/동
 최충근(崔翀根)/동
 손재하(孫在廈)/영동군
 유성연(柳性淵)/동
 권중혁(權重赫)/동
 이태현(李泰炫)/진천군

186) 전석열(全錫洌)의 창씨명.

이장범(李長範)/동
 이호신(李鎬臣)/동
 조동환(趙東煥)/음성군
 남헌(南憲)/동
 안택수(安宅洙)/동
 정대용(鄭大庸)/옥천군
 정인채(鄭仁彩)/동
 정구평(鄭求平)/동
 조성구(趙星九)/단양군
 안한익(安漢益)/제천군
 이규하(李圭夏)/단양군
 강문회(姜文會)/옥천군 이원역
 원정희(元貞喜)/동 청산면
 남상익(南相翊)/진천군
 육병옥(陸炳玉)/영동군 심천면
 박인서(朴麟緒)/보은군
 홍원식(洪元植)/괴산군
 정진복(鄭鎭福)/충주군
 민경식(閔庚植)/청주읍 본정 3정목
 최동선(崔東善)/동 청수정
 박기수(朴基洙)/동 본정 3정목
 박노태(朴魯泰)/동 대성정
 곽진영(郭振泳)/동 석교정
 한정석(韓定錫)/동
 홍봉희(洪鳳喜)/동 석교정
 민중식(閔重植)/동 본정 5정목
 구연직(具然直)/동 본정 1정목
 김동환(金東煥)/음성군 맹동면 봉현리

◎ 충청남도(無順)

임창수(林昌洙)/대전부 춘일정
 금산경(金山敬)¹⁸⁷/동 대동정
 풍전번(豊田藩)¹⁸⁸/대덕군 유성

187) 김창수(金昌洙)의 창씨명.

금택교준(金澤教駿)¹⁸⁹⁾/대전부
 조강희(趙岡熙)/동 매일신보 지사
 금전영일(金田英一)/동
 서덕순(徐惠淳)/공주읍
 심재욱(沈載昱)/동
 이두녕(李斗寧)/동
 박명석(朴炳錫)/공주읍
 김용기(金容琪)/논산군
 윤길중(尹吉重)/동
 무본영일(武本榮一)¹⁹⁰⁾/동
 권동명인(權東炳仁)¹⁹¹⁾/동
 윤정(尹政)/동
 박영준(朴永俊)/서천군
 전본재성(全本在成)/동
 풍성수(豊城守)¹⁹²⁾/동
 석천창일(石川彰一)¹⁹³⁾/청양군
 이상각(李相珏)/동
 금광도수(金光道秀)¹⁹⁴⁾/보령군
 이성구(李聖九)/동
 송천고명(松川高明)¹⁹⁵⁾동
 미평청(米平淸)¹⁹⁶⁾/서산군
 윤준용(尹駿鏞)/동
 한창동(韓昌東)/동
 심상국(沈相國)천안군
 이중화(李重華)/동
 지산정(芝山禛)¹⁹⁷⁾/동

188) 강번(姜藩)의 창씨명.
 189) 김교준(金教駿)의 창씨명.
 190) 배영춘(裵永春)의 창씨명.
 191) 권병인(權炳仁)의 창씨명.
 192) 조남천(趙南天)의 창씨명.
 193) 김창동(金彰東)의 창씨명.
 194) 김도수(金道秀)의 창씨명.
 195) 이한명(李漢明)의 창씨명.
 196) 나창헌(羅昌憲)의 창씨명.
 197) 민재기(閔載祺)의 창씨명.

신안선필(新安善弼)¹⁹⁸/당진군
 임천홍식(林川洪植)/동
 천전대근(千田大根)¹⁹⁹/부여군
 민영위(閔泳胃)/동
 청목현범(靑木賢範)²⁰⁰/동
 김준규(金駿圭)/홍성군
 교목종환(喬木鍾丸)²⁰¹/동
 김억규(金億圭)/동
 이종덕(李鍾惠)/예산군
 서원장평(西原藏平)²⁰²/동
 원훈상(元勛常)/아산군
 이원범수(梨原範秀)²⁰³/동
 남정학(南廷學)/아산군
 김정권영(金井捲永)²⁰⁴/대덕군
 유택희룡(柳澤希龍)²⁰⁵/연기군 조치원
 홍순영(洪淳永)/동
 금택경차(金澤慶次)/대전부 대흥정
 금전대영(金田大英)²⁰⁶/동 본정
 윤건용(尹建鏞)/동 유천정
 송방수부(松方秀夫)²⁰⁷/동 춘일정
 중산창헌(中山昌憲)²⁰⁸/동 춘일정
 이동용섭(伊東用燮)²⁰⁹/동 대흥정
 송본국남(松本國南)/동 대흥정
 정일덕(鄭一惠)/동 춘일정
 초천천일(初川天一)/동 본정

-
- 198) 강선필(姜善弼)의 창씨명.
 199) 천대근(千大根)의 창씨명.
 200) 이현범(李賢範)의 창씨명.
 201) 이종환(李鍾丸)의 창씨명.
 202) 이종대(李鍾大)의 창씨명.
 203) 이범수(李範秀)의 창씨명.
 204) 김권영(金卷永)의 창씨명.
 205) 유평렬(柳暎烈)의 창씨명.
 206) 김대영(金大英)의 창씨명.
 207) 방두환(方斗煥)의 창씨명.
 208) 오창헌(吳昌憲)의 창씨명.
 209) 윤용섭(尹用燮)의 창씨명.

금광유현(金光裕鉉)²¹⁰/동 대흥정
금전정환(金田正煥)²¹¹/동 대흥정
손균옥(孫均玉)/동
서진(徐震)/동
송을용(宋乙用)/대덕군

◎ 경상북도(無順)

박중양(朴重陽)/대구부 침산정
정해봉(鄭海鵬)/동 하서정
장직상(張稷相)동 수정
서상일(徐相日)/동 시양정
서병원(徐丙元)동 남정
서병국(徐丙國)/동
이장우(李章雨)/동 상서정
윤상태(尹相台)/동 시양정 서상일 집
이상무(李相武)/동 서성정
김찬주(金燦珠)/동 명치정
신옥(申鈺)²¹²/동 봉산정
박노경(朴魯庚)/동 봉산정
대봉병조(大峯丙朝)²¹³/동 명치정
임상조(林尙助)/동 횡정
고산정의(高山正義)/동 수정
대성준부(大城俊夫)/동 내당동
추곡고명(秋谷高明)/동 금정
명본지용(明本智隆)²¹⁴/동 명치정
대산한봉(大山漢鳳)²¹⁵/상주군 함창면
조용연(趙龍衍)/동 읍내
수봉채우(秀峰採雨)²¹⁶/경주군 경주읍

210) 김유현(金裕鉉)의 창씨명.
211) 김정환(金正煥)의 창씨명.
212) 신현구(申鉉求)의 창씨명.
213) 서병조(徐丙朝)의 창씨명.
214) 허지(許智)의 창씨명.
215) 김한봉(金漢鳳)의 창씨명.
216) 이채우(李採雨)의 창씨명.

신목황(新木晃)/영양군 영양면
 이승노(李承魯)/동 읍내
 팔목광치(八本光治)²¹⁷/성주군 성주면
 이완석(李完錫)/동 대산동
 최윤(崔潤)/경주군 경주읍
 금자우동(金子雨東)/선산군 선산면
 영야희욱(永野喜郁)²¹⁸/안동군 안동읍
 대동희일(大東喜一)²¹⁹/동 동
 권오중(權五鍾)/동 동
 유시영(柳時泳)/동 동
 안영병규(安永炳圭)²²⁰/경산군 경산면
 청수구원(淸水久源)²²¹/동 동
 안주홍(安周洪)/동 읍내
 대원영길(大原永吉)²²²/청도군 청도면
 김호태(金昊泰)/동 읍내
 임희수(林熺秀)/동 읍내
 권중열(權重烈)/안동군 읍내
 연성목(延城穆)²²³/군위군 효령면
 서원정은(西原正殷)/동 읍내
 대산원삼(大山元三)²²⁴/문경군 호사남면
 조성직(趙誠直)/동 짐촌
 금산부하(金山富河)²²⁵/영일군 포항읍
 강본정호(江本晶鎬)²²⁶/동 흥해읍
 금전용주(金田龍周)²²⁷/동 포항읍
 송본국평(松本國平)²²⁸/봉화군 춘양면

217) 정재기(鄭在琪)의 창씨명.
 218) 권오중(權五鍾)의 창씨명.
 219) 권영훈(權寧薰)의 창씨명.
 220) 안병규(安炳圭)의 창씨명.
 221) 이상진(李相鎭)의 창씨명.
 222) 이영길(李永吉)의 창씨명.
 223) 이성목(李城穆)의 창씨명.
 224) 이규선(李圭璇)의 창씨명.
 225) 김두하(金斗河)의 창씨명.
 226) 최정호(崔晶鎬)의 창씨명.
 227) 김용주(金龍周)의 창씨명.
 228) 심동국(沈東國)의 창씨명.

강교원(姜教元)/동 읍내
 정태복(鄭泰福)/동 동
 고산하수(高山夏樹)²²⁹⁾/의성군 의성읍
 대원국영(大原國永)/동 동
 유시균(柳時均)동 읍내
 강원청장(江原淸藏)²³⁰⁾/예천군 유천면
 등원기생(藤原基生)²³¹⁾/동 예천읍
 김석희(金碩熙)/동 읍내
 강송주학(岡松周鶴)/청송군 청송면
 조근영(趙根泳)/동 읍내
 심상관(沈相寬)/동 읍내
 고덕환(高德煥)/김천군 김천읍
 배촌선규(裴村善奎)²³²⁾/동 조마면
 김옥배(金玉培)/동 읍내
 심상치(沈相致)/동 읍내
 금원태두(金原泰斗)/영주군 영주읍
 박승우(朴承祐)/동 읍내
 이덕호(李德虎)/동 읍내
 이활(李活)/영천군 읍내
 이학문(李學文)/동 읍내
 문일수(文日壽)/영덕군 읍내
 조약슬(趙若瑟)/경부선 외관역전
 정운석(鄭雲奭)/고령군 읍내

◎ 경상남도(無順)

김동준(金東準)/부산부
 광정태운(廣田泰運)/동
 우신출(禹新出)/동
 우산희상(友山羲常)/마산부
 장재식(張在軾)/동
 이현각(李鉉覺)/동

229) 오하수(吳夏洙)의 창씨명.

230) 조병욱(趙秉郁)의 창씨명.

231) 장기생(張基生)의 창씨명.

232) 배선규(裴善奎)의 창씨명.

강천충경(江川忠卿)²³³/진주군
 부산용성(富山隆盛)²³⁴/동
 서상식(徐相湜)/동
 이장희(李章喜)/동
 정상진(鄭相珍)/동
 금성억근(金城億根)²³⁵/의령군 읍내
 이우식(李佑植)/동 동
 동곡길성(東谷吉盛)²³⁶/함안군 읍내
 천곡일실(川谷一實)/동 동
 하본호룡(河本浩龍)/밀양군 읍내
 하한석(河翰錫)/동 동
 안본효식(安本孝式)²³⁷/울산군 읍내
 안전개조(安田開兆)/동 동
 김택천(金澤天)/동 동
 신원길호(新原吉浩)²³⁸/동래군 읍내
 김병규(金秉圭)/동 동
 기본춘성(杞本春盛)²³⁹/동 동
 곽종섭(郭鍾燮)/동 동
 하산중환(夏山重煥)²⁴⁰/김해군 읍내
 금자전간(金子典幹)²⁴¹/동 동
 백남일(白南日)/동 동
 궁곡방만(宮谷芳滿)/동 동
 금촌길우(金村吉祐)²⁴²/통영군 읍내
 김현국(金炫國)/동 동
 금촌강홍(金村康弘)/동 동
 죽성무웅(竹城武雄)/고성군 읍내

233) 이장희(李章喜)의 창씨명.
 234) 최지환(崔志煥)의 창씨명.
 235) 김억근(金億根)의 창씨명.
 236) 조노제(趙櫓濟)의 창씨명.
 237) 안효식(安孝式)의 창씨명.
 238) 박길호(朴吉浩)의 창씨명.
 239) 유진후(俞鎭厚)의 창씨명.
 240) 조중환(曹重煥)의 창씨명.
 241) 김경진(金慶鎭)의 창씨명.
 242) 김영수(金榮洙)의 창씨명.

박용보(朴容甫)/동 동
 최연국(崔演國)/사천군 읍내
 회산순주(檜山順柱)²⁴³/동 동
 장응상(張應相)/사천군 삼천포
 지산우지(芝山又支)²⁴⁴/남해군 읍내
 윤병호(尹丙浩)/동 동
 박진평(朴晋平)/동 동
 이은우(李恩雨)/하동군 읍내
 산본석근(山本錫根)²⁴⁵/동 동
 김석순(金錫舜)/동 동
 김정엽(金璟燁)/동 동
 광원의풍(光原義豊)²⁴⁶/산청군 읍내
 최열만(崔烈萬)/동 동
 풍천일청(豊川一淸)²⁴⁷/함양군 읍내
 정순현(鄭淳賢)/동 동
 노준영(盧俊泳)/동 동
 동본종락(桐本鍾洛)²⁴⁸/거창군 읍내
 함일로(咸一路)/동 동
 신용희(愼鏞禧)/동 동
 평전문기(平田文基)²⁴⁹/합천군 읍내
 이경상(李景祥)/동 동
 신용구(申鏞九)/진주부 사봉정 천도교구
 하기석(河麒錫)/동 창녕군 읍내
 하일우(河一字)/동 천도교구
 하준석(河駿錫)/동 창녕면
 김길창(金吉昌)/부산부 중도정
 김준원(金竣源)/동 동
 김장태(金璋泰)/동 수정정
 오재일(吳載一)/동래군 읍내

243) 황순주(黃順柱)의 창씨명.
 244) 최익수(崔翊洙)의 창씨명.
 245) 강석근(姜錫根)의 창씨명.
 246) 오명진(吳明鎭)의 창씨명.
 247) 노준영(盧俊泳)의 창씨명.
 248) 정종락(鄭鍾洛)의 창씨명.
 249) 신문기(申文基)의 창씨명.

이면재(李冕載)/부산부 초량동

이귀흥(李貴興)/동 동

◎ 전라북도(無順)

덕산승렬(德山昇烈)²⁵⁰⁾/전주부 대화정

원천일섭(原川日燮)²⁵¹⁾/동 상생정

종도주상(宗島柱祥)²⁵²⁾/동 청수정

이우식(李愚軾)/동 대정정 4정목

원촌병희(元村炳喜)²⁵³⁾/동 대정정 6정목

백천남혁(白川南赫)²⁵⁴⁾/동 청수정

임택용(林澤龍)/동 대화정

고목창환(高木昌桓)²⁵⁵⁾/동 대정정 2정목

유정직(柳井直)/동 노송정

풍천석모(楓川碩謨)²⁵⁶⁾/동 완산정

유창근(柳彰根)/동 대정정

양상경(梁相卿)/동 청수정

김용규(金容奎)/동 완산정

윤훈(尹薰)/동

강동희(姜東曦)/김제군 성덕면

길전장영(吉田長榮)²⁵⁷⁾/동 청하면

산전연주(山田演柱)²⁵⁸⁾/동 백구면

임종환(林宗桓)/동 동

조재식(趙在軾)/김제읍 신흥리

조재돈(趙在敦)/동

평문종구(平文鍾龜)²⁵⁹⁾/군산부 천대전정

강원백(江原伯)/동 동빈정 1정목

250) 최승렬(崔昇烈)의 창씨명.

251) 변일섭(邊日燮)의 창씨명.

252) 송주상(宋柱祥)의 창씨명.

253) 원병희(元炳喜)의 창씨명.

254) 백남혁(白南赫)의 창씨명.

255) 인창환(印昌桓)의 창씨명.

256) 정석모(鄭碩謨)의 창씨명.

257) 장준석(張準錫)의 창씨명.

258) 김연식(金演植)의 창씨명.

259) 문종구(文鍾龜)의 창씨명.

송산홍선(松山鴻善)²⁶⁰/동 노송정
 대평만수(大平晩秀)²⁶¹/동 장재정
 송강수길(松岡秀吉)/동
 삼택승수(三宅勝秀)²⁶²/진안군 진안면
 송전미정(松田米正)/동 동
 삼목원준(三木元雋)²⁶³/금산군 남일면
 정해준(鄭海駿)/동 동
 오궁재근(吳宮在根)²⁶⁴/무주군 무주면
 길전수웅(吉田守雄)/동
 유동언(柳東彦)/장수군 장수면
 동천광수(東川光秀)²⁶⁵/임실군 임실면
 노병춘(魯炳春)/동 동
 죽산일랑(竹山一郎)²⁶⁶/남원군 남원읍
 이두용(李斗用)/동 동
 이정근(李正根)/동 동
 박희옥(朴熺沃)/동 운봉면
 매림동기(梅林東器)²⁶⁷/동 기매면
 금전영무(金田英武)²⁶⁸/순창군 순창면
 송본해동(松本海東)²⁶⁹/동 동
 노병준(盧秉準)/동 쌍치면
 김희옥(金熙玉)/동
 박명규(朴明奎)/정읍군 정읍읍
 청산의상(靑山義上)²⁷⁰/동 동
 곽전근(郭填根)/동 신태인
 박석규(朴碩奎)/동 정주읍

260) 서홍선(徐鴻善)의 창씨명.
 261) 이만수(李晩秀)의 창씨명.
 262) 전승수(全承洙)의 창씨명.
 263) 박원준(朴元雋)의 창씨명.
 264) 오재근(吳在根)의 창씨명.
 265) 박경수(朴庚洙)의 창씨명.
 266) 박정식(朴政植)의 창씨명.
 267) 이동기(李東器)의 창씨명.
 268) 김영무(金英武)의 창씨명.
 269) 이해동(李海東)의 창씨명.
 270) 박금효(朴錦孝)의 창씨명.

정세환(鄭世煥)/고창군 대산면
 평산태수(平山泰洙)/동 고창중학교
 신수원(愼秀遠)/동 동
 홍해중철(洪海鍾轍)²⁷¹/동 부안면
 강대식(姜大湜)/동 성송면
 신□노(愼□魯)/동
 임승화(林承化)/부안군 행안면
 이영일(李永日)/동 부안면
 김태중(金泰鍾)/동
 평문충용(平文忠勇)²⁷²/옥구군 옥산면
 안동청(安東淸)²⁷³/동 서덕면
 송산청(松山淸)²⁷⁴/익산군 황등면
 유소진문(有蘇鎭文)²⁷⁵/동 팔봉면
 배헌(裴憲)/동 이리읍
 조해영(趙海英)/동 성라면
 김삼순(金三淳)/동 함열면
 윤건중(尹建重)/완주군 참례면
 강철모(姜哲模)/전주부
 연본창돈(延本昌敦)/동 노송정 천도교
 금궁원(金宮元)²⁷⁶/동 대정정
 장병선(張炳善)/동 대정정
 이승용(李昇龍)/동 완산정

◎ 전라남도(無順)

현준호(玄俊鎬)/광주부
 문재철(文在喆)/동
 송화식(宋和植)/동
 김신석(金信錫)/동
 박준규(朴準圭)/동

271) 홍중철(洪鍾轍)의 창씨명.
 272) 문원태(文袁泰)의 창씨명.
 273) 노궁식(盧兢湜)의 창씨명.
 274) 박지근(朴智根)의 창씨명.
 275) 소진문(蘇鎭文)의 창씨명.
 276) 김종근(金鍾根)의 창씨명.

국호열(鞠鎬烈)/동
 김재규(金在珪)/동
 국기현(鞠琪絃)/담양군
 정용인(鄭湧寅)/동
 김병준(金炳俊)/동
 고도재연(高島在涓)²⁷⁷/구례읍
 선태섭(宣泰燮)/동
 금전치배(金田致培)²⁷⁸/광양읍
 금곡영준(金谷英俊)²⁷⁹/여수읍
 명창순(明昌淳)/동
 김인지(金寅杵)/동
 이문헌(李文憲)/동
 송강정록(松岡廷祿)²⁸⁰/순천읍
 이영민(李榮珉)/동
 성정수(成禎洙)/동
 문택호(文宅鎬)/목포부
 김철진(金哲鎭)/동
 덕산남진(德山南鎭)²⁸¹/동
 금해선홍(金海善洪)²⁸²/고흥읍
 신오휴(申午休)/동
 신지우(申址雨)/동
 박갑수(朴甲壽)/동
 광촌제래(廣村堤來)²⁸³/보성읍
 최형호(崔瑩濤)/동
 양회인(梁會仁)/화순읍
 조철환(曹哲煥)/동
 안전광작(安田光作)/장흥읍
 안전풍태랑(安田豊太郎)/강진읍
 김안식(金安植)/동

277) 고재연(高在涓)의 창씨명.
 278) 김치배(金致培)의 창씨명.
 279) 김영준(金英俊)의 창씨명.
 280) 서정록(徐廷錄)의 창씨명.
 281) 차남진(車南鎭)의 창씨명.
 282) 김선홍(金善洪)의 창씨명.
 283) 이제래(李堤來)의 창씨명.

김충식(金忠植)/동
 천진옥(千珍玉)/동
 김종현(金宗鉉)/동
 윤정현(尹定鉉)/동
 천독근(千篤根)/무안읍
 울산영철(栗山榮哲)²⁸⁴/나주읍
 김종언(金鍾彦)/동
 삼산현린(三山鉉麟)²⁸⁵/함평읍
 이재혁(李載赫)/동
 조용남(趙龍楠)/영광읍
 정동윤(鄭東允)/영광읍
 금천상일(金川相一)²⁸⁶/장성읍
 김원천(金源千)/동
 금도광휘(金島光輝)²⁸⁷/완도
 최평산(崔平山)/동
 길전순하(吉田舜河)²⁸⁸/제주도
 최원순(崔元淳)/동
 서원성일(西原誠一)/동
 유인철(柳寅哲)/영암읍
 금성민치(金星敏治)/동
 정규태(丁奎泰)/곡성읍
 횡산준장(橫山俊藏)/진도
 허병수(許秉洙)/동
 황생주(黃生周)/장흥군 장흥면 교촌리
 이림상호(伊林相浩)/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 평안남도(無攄)

이교식(李敎植)/평양부 설암리
 박경석(朴經錫)/동 봉향리
 이기찬(李基燦)/동

284) 최영철(崔榮哲)의 창씨명.

285) 신현린(申鉉麟)의 창씨명.

286) 김상일(金相一)의 창씨명.

287) 김상근(金商瑾)의 창씨명.

288) 황순하(黃舜河)의 창씨명.

전덕용(田德龍)/동 수정
 김동원(金東元)/동 창전리
 이춘섭(李春燮)/동 창전리
 손창윤(孫昌潤)/동 계리
 박승억(朴承億)/동 기림리
 손수경(孫壽卿)/동 수옥리
 채필근(蔡弼近)/동 평양신학교
 최정묵(崔鼎默)/동 설암리
 김건영(金健永)/동 옥정
 김필응(金弼應)/동 수옥리
 최정수(崔正洙)/동 상수리
 황찬영(黃贊永)/동 경창리
 최규봉(崔奎鳳)/동 남문정
 최응두(崔應斗)/동 설암리
 이상민(李尙斌)/동 관후리
 김항복(金恒福)/동 기림리
 한근조(韓根祖)/동 서관리
 정지강(鄭志强)/동 신양리
 우호익(禹浩翊)/동 인정도서관
 김관식(金觀植)/동 장태현교회
 김연옥(金淵玉)/동 북향리
 김중섭(金仲燮)/동 북향리
 한형보(韓亨輔)/동 계리
 이병호(李炳浩)/동 반교리
 한동찬(韓東燦)/동 육로리
 오덕삼(吳德三)/동 신창리
 박상희(朴尙禧)/동 기림리
 박선철(朴善哲)/동 기림리 우체국
 정태원(鄭泰元)/동 교구정
 김영기(金寧起)동 경상리
 청목정호(靑木貞浩)²⁸⁹⁾/동 대찰리
 이응갑(李應甲)/동 신창리
 김병조(金秉兆)/동 수옥리

289) 김정호(金貞浩)의 창씨명.

최명섭(崔明燮)/동 원산고무회사
 박경묵(朴慶默)/동 광성중학교
 박승엽(朴承燁)/동 벽암리
 윤장엽(尹長燁)/동 위청리
 고봉휘(高峯暉)/동 매일신보 지사
 이병일(李炳佺)/동
 신정범수(新井範洙)²⁹⁰⁾/동 신리
 김인오(金仁梧)/안주군 읍내
 궁본화행(宮本和幸)²⁹¹⁾/동 읍내
 김진수(金晉洙)/강서군 읍내
 이종섭(李鍾燮)/진남포부
 평소현(平沼憲)²⁹²⁾/진남포부
 위기철(韋基喆)/평원군 읍내
 산본창호(山本昌鎬)²⁹³⁾/개천군 읍내
 금촌철웅(金村喆雄)²⁹⁴⁾/동 읍내
 풍원효근(豊原孝根)²⁹⁵⁾/순천군 읍내
 금천해룡(金川海龍)²⁹⁶⁾/맹산군 읍내
 대삼천일(大森千一)²⁹⁷⁾/양덕군 읍내
 김상화(金商和)/강동군 읍내
 금산수길(金山秀吉)²⁹⁸⁾/중화군 읍내
 이산고언(二山高彦)²⁹⁹⁾/용강군 읍내
 서준석(徐峻錫)/덕천군 읍내
 금전형준(金田炯俊)³⁰⁰⁾/영원군 읍내
 김준상(金浚相)/안주군 운곡면 삼화광산
 박용완(朴用玩)/맹산군 북창우구개창(北倉郵區改倉)

290) 박범수(朴範洙)의 창씨명.
 291) 이관순(李寬淳)의 창씨명.
 292) 윤기원(尹基元)의 창씨명.
 293) 최창호(崔昌鎬)의 창씨명.
 294) 김채설(金采說)의 창씨명.
 295) 오효근(吳孝根)의 창씨명.
 296) 김해룡(金海龍)의 창씨명.
 297) 박천일(朴千一)의 창씨명.
 298) 김룡(金龍)의 창씨명.
 299) 김병률(金秉律)의 창씨명.
 300) 김형준(金炯俊)의 창씨명.

목촌영성(木村榮成)/영원군 읍내
 향촌광남(香村光男)/진남포부 비석리 천도교구
 이달흥(李達興)/강동군 읍내 천도교구
 천림명도(川林明道)/평양부 설암리
 길산호남(吉山虎男)/맹산군 읍내
 김광호(金光浩)/안주군 읍내
 주간흠(朱幹欽)/평양부 이문리

◎ 평안북도(無順)

최창조(崔昌朝)/신의주부 영정
 고병철(高秉哲)/동 미근동
 고유일(高有日)/동 제일산업조합
 김익진(金益鎭)/동 미근동
 백기조(白基肇)/동 진사정
 조상옥(趙尙鈺)/동 영정
 박용수(朴龍水)/동 진사정 1정목
 정원섭(鄭元燮)/동 약초정
 최윤섭(崔允涉)/동 영정 5정목
 김봉죽(金鳳竹)/동 본정
 강이황(姜利璜)/동 진사정
 입간공남(笠間公男)³⁰¹/동
 고일청(高一淸)/의주군 의주읍
 신언청(申彦淸)/동 동
 김규승(金奎承)/동 동
 황관하(黃觀河)/용천군 용암포
 김기홍(金基鴻)/동 양서면
 김낙유(金洛瑜)/철산군 읍내
 오좌은(吳佐殷)/철산군 차련관
 홍치업(洪致業)/선천군 읍내
 이영찬(李泳贊)/동 동
 오현기(吳鉉琦)/동 동
 박문규(朴文奎)/정주군 읍내
 김기홍(金起鴻)/동 고읍역전

301) 유도순(劉道順)의 창씨명.

이정근(李貞根)/동 남서면
 김안도(金安燾)/동 임포면
 유원남(俞元男)/박천군 읍내
 김수장(金壽長)/경의선 영미역전
 백양섭(白陽燮)/태천군 읍내
 김병제(金炳濟)/동 동
 홍재경(洪在璟)/영변군 읍내
 장월섭(張月燮)/동 구장
 장용관(張龍官)/구성군 방현면
 최창학(崔昌學)/동 동
 이찬엽(李燦燁)/운산군 북진읍
 왕희순(王熙淳)/동 동
 김승훈(金承燾)/희천군 읍내
 송계원(宋啓源)/동 동
 김화현(金華鉉)/강계군 읍내
 전종화(田種禾)/동 동
 김의용(金義勇)/동 천천역전
 오윤진(吳允珍)/동 읍내
 윤하경(尹河敬)/자성군 중강진
 김지하(金趾河)/후창군 읍내
 한규진(韓圭晉)/동 동흥면
 박지을(朴之乙)/위원군 읍내
 김문걸(金文杰)/초산군 읍내
 차두환(車斗煥)/벽동군 읍내
 김태식(金泰植)/동 동
 강봉서(姜鳳瑞)/창성군 청산면
 박동훈(朴東燾)/삭주군 읍내
 이명호(李明鎬)/선천군 심천면 월곡동
 평거희적(平居熙迪)³⁰²/신의주부
 이용길(李龍吉)/선천군 읍내 천도교구
 김상설(金商說)/동 동
 김학찬(金學贊)/용천군 읍내 천도교구
 김덕잠(金德潛)/신의주부 외마전동

302) 이희적(李熙迪)의 창씨명.

김덕린(金德麟)/희천군 읍내 천도교구
 양원섭(楊元燮)/벽동군 읍내 천도교구
 원경찬(元京贊)/구성군 읍내 천도교구
 백천풍조(白川豊造)³⁰³/정주군 읍내 천도교구
 금자일(金子一)/의주군 읍내 천도교구
 최안국(崔安國)/경의선 북현역전 농민공제조합
 이필준(李弼俊)/용천군 읍내
 김경운(金景潤)/동 동
 정윤옥(鄭潤玉)/철산군 읍내
 오필은(吳弼殷)/선천군 읍내
 고산경식(高山景植)³⁰⁴/선천군 읍내
 주기용(朱琦鎔)/정주군 오산
 이윤주(李潤柱)/박천군 읍내
 김학준(金學俊)/영변군 읍내
 신창균(申昌均)/동 동
 송산종호(松山宗鎬)³⁰⁵/운산군 읍내
 김승수(金承洙)/강계군 읍내
 송강행웅(松岡幸雄)³⁰⁶/희천군 읍내
 이안제(李安濟)/자성군 읍내
 이현풍(李玆豊)/후창군 읍내
 금촌영선(金村永善)/희천군 읍내 천도교구

◎ 함경남도(無順)

이희섭(李羲燮)/함흥부
 방의석(方義錫)/동
 박정연(朴楨淵)/동
 청원격만(淸原格晩)³⁰⁷/동
 김명학(金明學)/동
 최두선(崔斗先)/동
 한림(韓林)/동

303) 백중빈(白重彬)의 창씨명.
 304) 최경식(崔景植)의 창씨명.
 305)李宗호(李宗鎬)의 창씨명.
 306) 나백헌(羅栢憲)의 창씨명.
 307) 한격만(韓格晩)의 창씨명.

채용묵(蔡容默)/동
 이태완(李泰完)/동
 방본태설(邦本泰尙)³⁰⁸/동
 금본안민(金本安民)³⁰⁹/동
 한장경(韓長庚)/함주군
 임복순(任福淳)/동
 이춘하(李春河)/원산부
 삼산학시(三山鶴市)³¹⁰/동
 남백우(南百祐)/동
 강영균(姜英均)/안변군
 평천종림(平川鍾林)³¹¹/동
 이홍기(李弘基)/동
 강기덕(康基德)/덕원군
 강세진(康世鎭)/동
 박병한(朴炳漢)/문천군
 장경찬(張庚瓚)/동
 남박중(南博中)/동
 서병하(徐丙河)/고원군
 김달현(金達鉉)/동
 이천강평(利川康平)³¹²/동
 조성용(趙成龍)/영흥군
 백남극(白南極)/동
 박한영(朴漢榮)/동
 우인협(禹仁洽)/동
 서원영(西原英)³¹³/동
 한병락(韓丙洛)/정평군
 이용협(李龍洽)/동
 대원기의(大原基義)³¹⁴/홍원군
 도상학(都相鶴)/동

308) 유태설(劉泰尙)의 창씨명.

309) 김하섭(金夏涉)의 창씨명.

310) 위정학(魏楨鶴)의 창씨명.

311) 이종림(李鍾林)의 창씨명.

312) 서강석(徐康碩)의 창씨명.

313) 한창원(韓昌源)의 창씨명.

314) 서한중(徐鸞鍾)의 창씨명.

덕포의고(德浦義高)³¹⁵/북청군
 고도철부(高島撤夫)³¹⁶/동
 주경묵(朱璟默)/동
 정중섭(鄭重燮)/동
 최관호(崔觀鎬)/이원군
 정경섭(鄭庚燮)/동
 서원범재(西元範在)³¹⁷/동
 설운용(薛雲龍)/단천군
 우정봉(禹丁鳳)/동
 김수근(金守根)/동
 송원광풍(松原光豊)³¹⁸/동
 정찬주(鄭贊周)/장진군
 임재원(林在苑)/동
 안천의광(安川義光)³¹⁹/동
 풍전홍제(豊田弘濟)³²⁰/삼수군
 안정용일(安田隆一)³²¹/갑산군
 대지효선(大智孝善)/신흥군
 이능화(李能華)/함경선 차호역전
 권승하(權承夏)/동 동
 정인관(鄭寅寬)/고원군 상곡면
 이춘국(李春國)/북청군 읍내 천도교구
 이인숙(李仁淑)/정평군 춘유면 선덕리
 문철모(文哲謨)/함흥부 황금정 1정목 천도교구
 이재택(李載澤)/동 주길정
 이성주(李成周)/동 낙민정
 조영희(趙永熙)/북청군 읍내

◎ 함경북도(無順)

장간현사랑(張間憲四郎)³²²/청진부 나남초동정

315) 조영희(趙永熙)의 창씨명.
 316) 고철호(高徹浩)의 창씨명.
 317) 이범재(李範在)의 창씨명.
 318) 심기연(沈基淵)의 창씨명.
 319) 주재선(朱在璿)의 창씨명.
 320) 조홍제(趙弘濟)의 창씨명.
 321) 김재혁(金在赫)의 창씨명.

금산소능(金山韶能)³²³/동 나남동 본정
 중산부용(中山富雄)³²⁴/동 포항동
 대산경동(大山卿東)³²⁵/동 신암동
 송원태용(松原泰龍)³²⁶/동 나남동 본정
 상원필현(祥原弼顯)³²⁷/동 신암동
 무본성달(武本盛達)/동 포항동
 최운학(崔雲鶴)/동 신암동
 홍종화(洪鍾華)/동 나남생구정
 증산동운(甞山東雲)³²⁸/동 신암정
 방락선(方洛先)/동 동
 윤석필(尹錫弼)/동 포항동
 신중욱(辛鍾郁)/동 동
 장채극(張彩極)/동 신암동
 이창인(李昌仁)/동 동
 남윤구(南潤九)/동 동
 채학림(蔡鶴林)/동 동
 오쾌일(吳快一)/동 포함동
 최석준(崔錫俊)/동
 강학병(姜鶴秉)/동 나남동 본정
 이항열(李恒烈)/동 신암동
 박치목(朴致睦)/동 신암동 이항열 집
 김창권(金昌權)/동 포항동학교 곡(谷)
 박주량(朴周亮)/경성군 주을
 윤병구(尹秉球)/동 동
 김일헌(金日憲)/동 읍내
 최지환(崔智煥)/동 어대진
 문영섭(文泳燮)/동 동
 금산익조(金山益造)³²⁹/명천군 명천역전

322) 장헌근(張憲根)의 창씨명.
 323) 김정석(金定錫)의 창씨명.
 324) 황종국(黃鍾國)의 창씨명.
 325) 설경동(薛卿東)의 창씨명.
 326) 김태용(金泰龍)의 창씨명.
 327) 조필현(趙弼顯)의 창씨명.
 328) 조동운(趙東雲)의 창씨명.
 329) 김익(金益)의 창씨명.

김수길(金秀吉)/동 동
 조야규오(朝野奎悟)³³⁰/길주군 읍내
 황태성(黃泰成)/동 동
 양재홍(梁在鴻)/동 동
 유천충광(柳川忠廣)³³¹/성진부
 여동춘(呂同春)/동
 김홍섭(金弘燮)/동
 이규송(李奎宋)/동
 고산수창(高山秀昌)³³²/청진부 신암동
 강기형(姜基衡)/동 포항동
 신제악(申齊岳)부령군 읍내
 최면재(崔冕載)/회령군 읍내
 이재하(李載夏)/동 동
 김서중(金瑞仲)/동 동
 한계룡(韓繼隆)/무산군 읍내
 신정민부(新井敏夫)³³³/동 동
 문천청천(文川淸泉)³³⁴/종성군 읍내
 궁본관진(宮本觀鎭)³³⁵/동 동
 전촌응구(全村應九)³³⁶/온성읍
 이흥재(李興載)/동
 최창극(崔昌極)/동
 전천치호(全川治鎬)³³⁷/동
 이천문영(利川文英)/경원군 읍내
 고산성협(高山聖協)/동 동
 금판대원(金坂大元)³³⁸/경흥군 용기
 김□근(金□根)/동 동
 김창준(金昌俊)/동 동

330) 이종규(李鍾奎)의 창씨명.
 331) 유종하(柳鍾夏)의 창씨명.
 332) 이수창(李秀昌)의 창씨명.
 333) 박시준(朴時俊)의 창씨명.
 334) 문영훈(文泳勳)의 창씨명.
 335) 이관진(李觀鎭)의 창씨명.
 336) 전응구(全應九)의 창씨명.
 337) 전치호(全治鎬)의 창씨명.
 338) 김대원(金大元)의 창씨명.

김기택(金基瑋/나진부)
 신종승(辛鍾昇)/동
 평산학철(平山學澈)³³⁹/동
 장본기옥(張本基郁)/남양역전
 목야명복(牧野明馥)/길주군 읍내 천도교구
 나상신(羅相信)/청진부 신암동 천도교구
 청목종훈(靑木鍾勳)³⁴⁰/성진부 본정 매일신보 지사
 김기철(金基哲)/웅기
 김창일(金昌一)/(沈鍾勳)
 박재욱(朴在旭)/학성군 학서면 원평동
 황수봉(黃洙鳳)/경원군
 최창열(崔昌烈)/성진부 쌍포정

조선임전보국단 임원 명부(無順)

직 책	성 명	구 명	주 소
고문	가와키시 분사부로(川岸文三郎)		국민총력조선연맹
동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尹致昊)	경성부 견지정 68
동	이가진호(李家軫鎬)	이진호(李軫鎬)	동 황금정 3정목 217
동	한상용(韓相龍)		동 가회정 178
동	박충중양(朴忠重陽)	박중양(朴重陽)	경북 대구부 침산동
단장	가산린(佳山麟)	최린(崔麟)	경성부 명륜정 1정목 45
부단장	고원훈(高元勳)		동 신교정 6
이사장	정원규복(井垣圭復)	한규복(韓圭復)	동 윤이정 97
상무이사	고령흥우(高靈興雨)	신흥우(申興雨)	동 정동정 43
동	김연수(金季洙)		동 성북정 41
동	민규식(閔奎植)		동 삼청정 145-6
동	박흥식(朴興植)		동 가회정 177
동	김사연(金思演)		동 관철정 142
동	금천성(金川聖)	이성근(李聖根)	동 신당정 366-12
동	오천교원(烏川僑源)	정교원(鄭僑源)	동 승인정 72-17
동	국산시권(菊山時權)	김시권(金時權)	동 청운정 52-58
동	삼정기의(三井基義)	박기효(朴基孝)	동 동사헌정 100
동	공산용신(公山容愼)	이용신(李容愼)	동 사직정 311
동	안흥성환(安興晟煥)	이성환(李晟煥)	동 삼청정 35-91
동	백산청수(白山靑樹)	김동환(金東煥)	동 통의정 128-2호
동	원촌조(元村肇)	원덕상(元惠常)	동 팔판정 52
동	하산무(夏山茂)	조병상(曹秉相)	동 청운정 108

339) 신학철(申學澈)의 창씨명.

340) 심종훈(沈鍾勳)의 창씨명.

동	서원중린(瑞原鍾麟)	이중린(李鍾麟)	동 성북정 184-22
동	광전중옥(廣田鍾郁)	이중옥(李鍾郁)	동 수송정 44 불교총본산 태고사
동	방의석(方義錫)		동 누상정 166
이사	광안중철(廣安鍾哲)	안중철(安鍾哲)	동 북아현정 1-123
동	송산창학(松山昌學)	최창학(崔昌學)	동 죽침정 1정목 1
동	이병길(李丙吉)		동 옥인정 19
동	유억겸(俞億兼)		동 가회정 9
동	현상운(玄相允)		동 계동정 1 중앙중학교
동	방응모(方應謨)		동 죽침정 3정목 4
동	최두선(崔斗善)		동 성북정 177-30
동	월성종만(月城鍾萬)	이종만(李鍾萬)	동 청운정 108-5
동	구가자옥(具家滋玉)	구가옥(具滋玉)	동 청운정 278-3
동	신태악(辛泰嶽)		동 무교정 89
동	금정갑순(金井甲淳)	김갑순(金甲淳)	동 광화문동 212
동	이규원(李圭元)		동 중립정 155
동	장덕수(張德秀)		동 제기정 149-4
동	정등은섭(丁藤殷燮)	정은섭(丁殷燮)	강원도 천천읍
동	금전기수(金田基秀)	김기수(金基秀)	황해도 해주읍 남옥정 309
동	목원광정(牧原廣定)	이명구(李明求)	충북 청주읍
동	금택경차(金澤慶次)		충남 대전부 대흥정 289
동	금전영무(金田英武)	김영무(金英武)	전북 순창군 순창면
동	현준호(玄俊鎬)		전남 광주부 호남정 66
동	장원직상(張元稷相)	장직상(張稷相)	경북 대구부 남산정 47
동	김병규(金秉圭)		경남 동래군 읍*정
동	안성기(安城基)	이기찬(李基燦)	평남 평양부 수옥정 335-45
동	고일청(高一淸)		평북 의주군 의주읍
동	김명학(金明學)		함남 향흥부 군영동 1-76
동	장간현사랑(張間憲四郎)	장헌근(張憲根)	함북 나남초뢰정 72
감사	박택상준(朴澤相駿)	박상준(朴相駿)	경성부 혜화정 10-7
동	손영목(孫永穆)		동 혜화정 15
동	금전명(金田明)	김명준(金明濬)	동 명륜정 1정목 36-17
동	금원방광(金原邦光)	김동훈(金東勳)	동 사직정 185
동	김성수(金性洙)		동 계동정 132
평의원	임흥순(任興淳)		동 신당정 60
동	팔번창성(八幡昌成)	노창성(盧昌成)	동 계동정
동	이창섭(李昌燮)		동 명륜정 4정목 127-2
동	금본동진(金本東進)	김동진(金東進)	동 신당정 366
동	서춘(徐椿)		동 서린정 100-2
동	함상훈(咸尙勳)		동 가회정 1-33
동	금정보헌(金井保憲)	김승복(金昇福)	동 명륜정 4정목 10
동	옥강면(玉岡勉)	장면(張勉)	동 명륜정 1정목 36-1
동	김주익(金周益)		동 북아현정 1
동	복산용탁(福山龍鐸)	오용탁(吳龍鐸)	동 신안정 499-22
동	천곡정(天谷正)	조기간(趙基棻)	동 명륜정 2정목 124

동	유만겸(俞萬兼)		동 *동정 107
동	김태석(金泰錫)		동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
동	최규동(崔奎東)		동 와룡정 45
동	이병규(李炳奎)		동 혜화정 15
동	민석현(閔奭鉉)		동 관훈정 4
동	장기식(張驥植)		동 신당정 366
동	허헌(許憲)		동 중학정 41-1
동	이협(李協)	이상협(李相協)	동 승인정 72
동	덕산고강(德山高康)	김명하(金明夏)	동 낙원정 57-1
동	안인식(安寅植)		동 명륜정 3정목 4
동	유광열(柳光烈)		동 내수정 70-97
동	목산헌구(牧山軒求)	이헌구(李軒求)	동 혜화정 1 보성중학교
동	임천동식(林川東植)	조동식(趙東植)	동 화룡정 15
동	오촌승우(梧村升雨)	이승우(李升雨)	동 *송정 46
동	소완규(蘇完奎)		동 수은정 162-1
동	장우식(張友植)		동 필운정 283
동	김광수(金光洙)		동 명륜정 1정목 38-5
동	오금선(吳兢善)		동 죽첨정 2정목 58
동	풍촌유(豊村裕)	이종회(李鍾會)	동 사직정 311
동	박창서(朴彰緒)		동 가회정 79
동	야촌홍원(野村弘遠)	손홍원(孫弘遠)	동 삼각정 105
동	양원주삼(梁原柱三)	양주삼(梁柱三)	동 필운정 285
동	대지용장(大池龍藏)	장석원(張錫元)	동 명륜정 1정목 95
동	한익교(韓翼敎)		동 사간정 109
동	대산광설(大山光高)	서광설(徐光高)	동 적선정
동	박창훈(朴昌薰)		동 낙원정 135
동	정구충(鄭求忠)		동 종로 3정목 16
동	이준열(李駿烈)		동 견지정 111
동	덕천인과(德川仁果)	정인과(鄭仁果)	동 홍파정 15
동	천성활란(天城活蘭)	김활란(金活蘭)	동 대현정 산 1 이화여자전문학교
동	화곡춘수(禾谷春洙)	정춘수(鄭春洙)	동 냉천정 31
동	박용운(朴龍雲)		동 혜화정 74-30
동	방촌향도(芳村香道)	박영희(朴英熙)	동 천연정 69
동	조대하(趙大河)		동 명륜정 1정목 312-99
동	정현모(鄭顯模)		동 안암정 181-14
동	이동치영(伊東致暎)	윤치영(尹致暎)	동 안국정 104
동	이용설(李容高)		동 견지정 118
동	신용옥(愼鏞瑬)		동 청운정 52-21
동	송원승빈(松原勝彬)	박승빈(朴勝彬)	동 관훈정 197-10
동	영하인덕(永河仁德)	박인덕(朴仁德)	동 사직정 262-23
동	임명재(任明宰)		동 안국정 163
동	백천기호(白川基昊)	백기호(白基昊)	동 서린정 111 백내과의원
동	김성진(金晟鎭)		동 서린정 133
동	양재하(梁在夏)		동 부암정 163

동	안전진웅(安田辰雄)	안중화(安鍾和)	동 옥인정 90-9
동	현재명(玄濟明)		동 연희전문학교
동	궁촌숙중(宮村淑鍾)	이숙중(李淑鍾)	동 견지정 74-1 성신가정여학교
동	황신덕(黃信德)		동 죽첨정 1정목 41(경성가정여숙)
동	배상명(裴祥明)		동 사직정 311-10 상명실천여학교
동	모운숙(毛允淑)		동 안암정 861-25
동	최정희(崔貞熙)		동 신당정 304-151
동	정운천(鄭雲川)		동 한성은행 본점
동	김성권(金星權)		동 명륜정 2정목 8
동	성원경(成元慶)		동 혜화정 20
동	박희도(朴熙道)		동 신설정 178
동	학천완(鶴川浣)	박완(朴完)	동 경운정 88
동	청산각중(靑山覺鍾)	이각중(李覺鍾)	동 중학정 1 대동민우회
동	희다의(喜多毅)	박준영(朴駿榮)	동 신교정 정학회
동	이극로(李克魯)		동 화중정 1119 조선어학회
동	김기덕(金基德)		동 죽첨정 3정목 3
동	이중은(李鍾殷)		동 동양척식주식회사
동	송강세종(松岡世宗)	박기돈(朴基敦)	강원도 강릉읍 금정
동	이원한복(李原漢復)	이한복(李漢復)	춘천읍 본정 2정목(매일신보 지국)
동	발산병덕(鉢山丙德)	민병덕(閔丙德)	황해도 재령군 재령면 신대리
동	김홍량(金鴻亮)		동 *악읍
동	김상은(金相殷)		동 해주부
동	이중갑(李重甲)		충북 청주급 본정 1정목 130
동	민영은(閔泳殷)		동 청주읍
동	김원근(金元根)		동 청주읍 본정
동	강본중덕(江本鍾憲)	이중덕(李鍾憲)	충남 예산군 읍내
동	김산경(金山敬)	김창수(金昌洙)	동 대전부 대동정 207
동	말영강희(末永岡熙)	조강희(趙岡熙)	동 대전부(매일신보 지국)
동	양상경(梁相卿)		전북 전주부 청수정 213
동	덕산승열(德山昇烈)	최승열(崔昇烈)	동 전주부 대화정
동	장전시선(長田是善)	장병선(張炳善)	동 전주부 대정정 2정목
동	문재철(文在喆)		전남 광주부
동	송화식(宋和植)		동 광주부 명치정
동	김신석(金信錫)		동 광주부 호남정 75
동	덕산남진(德山南鎭)	차남진(車南鎭)	동 목포부 북교동 184
동	서상일(徐相日)		경북 대구부 신정 5-4
동	신옥(申鈺)	신현구(申鉉求)	동 대구부 봉산정 23
동	대봉병조(大峯丙朝)	서병조(徐丙朝)	동 대구부 명치정 2정목 129
동	김동준(金東準)		경남 부산부 본정
동	김장태(金璋泰)		동 부산부 수정정
동	이면재(李冕載)		동 부산부 초량동
동	김건영(金健永)		평남 평양부 옥정 11
동	좌천필근(佐川彌近)	채필근(蔡彌近)	동 평양부 동정 17-18
동	최정묵(崔鼎默)		동 평양부 벽암리

동	평거희적(平居熙迪)	이희적(李熙迪)	평북 신의주부
동	강이황(岡利晃)	강이황(姜利璜)	동 신의주부 진사정 2정목 44
동	안천영찬(安川泳贊)	이영찬(李泳贊)	동 선천군 읍내 본정 299
동	한림(韓林)		함남 함흥부 군영동
동	덕포의고(德浦義高)	조영희(趙永熙)	동 북청군 읍내
동	남백우(南百祐)		동 원산부 남산동 109
동	고산호웅(高山虎雄)	이창인(李昌仁)	함북 청진부 신암동
동	금산소능(金山韶能)	김정석(金定錫)	동 나남 본정 84
동	윤석필(尹錫必)		동 청진부 포항동

〈출전: 『朝鮮臨時戰報團概要』, 1941년〉

2) 임전국책협력회의 동정에 관한 건

경고비 제2484호

1941년 9월 3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귀하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임전대책협력회의 동정에 관한 건

(9월 2일 전화 보고에 대해서)

임전대책협력회 및 흥아보국단의 합류문제에 관해 지난 9월 2일 국민총력조선연맹 가와키시(川岸) 사무국 총장의 알선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이 특이한 점이 없이 합류를 결정하였기에 이를 보고(통보 '달')한다.

기(記)

9월 2일 오후 3시 30분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회의실에 연맹측에서 가와키시 사무국 총장·도리가와(烏川) 총무부장 외 1명, 총독부측에서 후루카와(古川) 보안과장, 임전대책협력회에서 최린(崔麟), 신흥우(申興雨), 김사연(金思演) 외 2명이 모였다. 가와키시 사무국 총장은 흥아보국단의 활동과 임전대책협력회의 행동내용은 대개 동일한 애국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양 단체가 대립하는 것은 장래의 활

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협력 활동하기 위해 합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알선하였다. 이에 임전국책협력회 대표자 중에는 약간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이를 양해하고 출석자 일동의 찬성으로 양 단체의 합류를 결정하고 오후 4시 30분에 산회하였다.

또한 본건에 관해 흥아보국단도 이미 동의한 상태이고, 양 단체의 위원인 김사연의 제안으로 국민총력연맹에서 합류를 알선한 노고를 치하하였다.

〈출전: 「臨戰國策協力會ノ動靜ニ關スル件(京高秘 第2484號)」,
1941년 9월 3일, 『思想ニ關スル報綴』(13)〉

3) 조선임전보국단의 채권소화운동에 관한 건

경고비 제2553호

1941년 9월 9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조선임전보국단의 채권소화운동에 관한 건

요지

조선임전보국단에서는 위원회 결정에 의거하여 9월 7일 애국특별채권의 매출운동을 실시하였다. 당일 가산린(佳山麟, 최린)과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 외 69명이 출동하여 애국특별채권 8천매(8천원)를 매각하고 무사히 끝마쳤다.

조선임전보국단에서는 지난번 위원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애국특별채권 매출운동을 9월 7일(일요일) 관하 경성부 주요 도로 11곳에서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무사히 끝마쳤기에 이를 보고(통보 '달')한다.

기(記)

9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별지에 의거하여 경성부 내의 주요 도로 11개소에서 애국특별채권 가두매출을 실시하였다. 사전에 관계책임자를 당 경찰부에 초치하여

1.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 강제 매출을 하지 않을 것

3. 종사 인원은 1곳에 7명 이내로 할 것

4. 소관 경찰서에 사전에 신고할 것

등 본 운동 실시에 대한 주의를 주었다. 종사자는 모두 반도인 상층부에 속하는 실업가, 종교가, 교육가, 기타 유산지도계급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그들은 대체로 주의를 엄수하고 자진해서 가두에 나서 행인에게 채권의 구입은 애국심의 발로라며 장려하고 모두 별지와 같이 예정 수 전부를 매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그동안 본 운동에 대한 방해 내지 비방적 언동을 일삼는 등의 사고가 없이 끝마쳤다. 특히 경성 방적 전무취체역 최두선(崔斗善)은 매출운동 담임자로서 선정되었지만,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가하고 황금정에 배속하여 종사하였다.

대별(隊別)	배포채권 수	매각 수	비고
종로대	1,500	1,500	잔부(殘部) 없음
황금정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본정대	1,000	1,000	잔부(殘部) 없음
남대문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경성역대	1,000	1,000	잔부(殘部) 없음
서대문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광화문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종로4정목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동대문대	500	500	잔부(殘部) 없음
청량리정	500	500	잔부(殘部) 없음
명치정	1,000	1,000	잔부(殘部) 없음
계	8,000	8,000	잔부(殘部) 없음

채권소화운동 실시계획서

1. 매출일시 : 9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 매출장소 및 종사자(‘○’은 연락원)

(1) 종로대(화신 앞)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 한상룡(韓相龍), 가산린(佳山麟, 최린), 방응모(方應模), 향산광랑(香山光郎, 이광수), 이용신(李容愼), ○김동환(金東煥), 박인덕(朴仁德)

(2) 황금정대(일본생명 앞)

고원훈(高元勳), 이종린(李鍾麟), 박창서(朴章緒), ○김택용(金澤勇)

(3) 본정대(시노자키篠崎상점 앞)

이진호(李軫鎬), 김시권(金時權), 김연수(金連洙), 김승복(金昇福), 신용옥(愼鏞頊), ○신태악(辛泰嶽), 최공희(崔巨熙)

- (4) 남대문대(정문 앞)
오궁선(吳兢善), 원덕상(元惠常), 김갑순(金甲淳), ○조병상(曹秉相), 이각중(李覺鍾), 이용만(李容萬)
- (5) 경성정거장대(역 앞)
정교원(鄭僑源), 이돈화(李敦化), 김사연(金思演), 박기효(朴基孝), ○손홍원(孫弘遠), 송금선(宋今璇)
- (6) 서대문대(우편국 앞)
신흥우(申興雨), 노창성(盧昌成), 구자옥(具滋玉), 소완규(蘇完奎), 주요한(朱耀翰), 고헌경(高鳳京)
- (7) 광화문대(정류소 북측 공지)
박상준(朴相駿), 민규식(閔奎植), 금천성(金川聖), 양주삼(梁柱三), 유억겸(俞億兼), 김성진(金晟鎭), 김동진(金東進), ○박영희(朴英熙)
- (8) 종로4정목대(동일은행 앞)
한규복(韓圭復), 조인섭(趙寅燮), 이극로(李克魯), ○오용탁(吳龍鐸), 조사하(趙士河)
- (9) 동대문대(정문 앞)
최원섭(崔元燮), 윤익선(尹益善), 윤치영(尹致映), 김복일(金福一), 이정재(李定宰)
- (10) 청량리대(역 앞)
정광조(鄭廣朝), 원익상(元翊常), 정인과(鄭仁果), ○조기간(趙基棻), 홍세뢰(洪世雷), 성의경(成義慶)
- (11) 명치정대(명치점 앞)
김명준(金明濬), 최창학(崔昌學), 이종회(李鍾會), 이숙중(李淑鍾), ○이창섭(李昌燮)
연락본부(화신백화점 안)
부원 : 이규재(李奎載), 이성환(李晟煥)

〈출전: 「朝鮮臨戰報國團ノ債券消化運動ニ關スル件(京高秘 第2553號)」,
1941년 9월 9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4)〉

4) 조선임전보국단의 동정에 관한 건

4-1)

경고비 제2569호의 5

1941년 9월 26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조선임전보국단의 동정에 관한 건

(9월 20일자 경고비 제2569호에 대해)

수제(首題)의 건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한 바가 있다. 지난 9월 22일 및 24일 경성부 종로 2정목 소재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제3회 및 제4회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 '달')한다.

더불어 당분간 짝수일마다 오전 9시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지만, 가와카시(川岸) 연맹사무국 총장이 도쿄에 가서 부재중인바, 조선에 돌아올 때까지 개최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기(記)

제3회 상무위원회
별지 보고에 의함(제1호)
제4회 상무위원회
별지 보고에 의함(제2호)

〈별지 제1호〉

제3회 상무위원회

- 일시 : 1941년 9월 22일 오전 9시
- 출석위원 : 고원훈(高元勳), 금천성(金川聖), 민규식(閔奎植), 김사용(金思溶), 박기효(朴基孝), 김동환(金東煥), 신흥우(申興雨), 이성환(李晟煥)
- 참석인 : 정교원(鄭喬源)

■ 토의사항

1. 취지 및 강령규약 통과 의 건

기초위원회에서 판정한 취지 및 강령규약을 낭독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 가운데 규약 제4조와 제20조 및 사업요강을 삭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하였다.

2. 짝수일 오전 9시 위원회를 10시로 변경한다.

〈별지 제2호〉

제4회 상무위원회

■ 일시 : 1941년 9월 24일 오전 10시

■ 출석위원 : 윤치호(尹致昊), 고원훈(高元勳), 신흥우(申興雨), 민규식(閔奎植), 김사연(金思演), 박기효(朴基孝), 이용신(李容愼), 이성환(李晟煥)

■ 토의사항

1. 지방좌담회 개최 의 건

별지(제3호)안에 의거하여 관계자 일동을 9월 25일 오후 6시 조선히텔에 초대하여 만찬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최후로 결정할 것.

2. 발기인 선정위원회 개최 의 건

9월 26일 오후 1시부터 본 단 사무실에서 개최할 것(보류할 것)

3. 전임(專任)위원 해임 의 건

전임위원 이성환은 일신상의 이유로 전임위원을 그만두고 이후 평위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더욱이 그는 참고 의견으로서 규약기초위원회 석상과 상무위원회 석상에서 수회에 걸쳐 주장한 규약 제4조와 제20조 및 사업요강을 삭제하지 않는 한, 흥아보국단 시절 그대로 단지 돈만을 모으는 것이 주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필히 삭제하여 어디까지나 순수한 민간자발적인 애국운동의 특질과 그 존재를 명시함으로써 양 단체의 합동 당시의 정신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신흥우는 이러한 주지에 찬성의견을 표명하고, 방청석에 있던 한승린(韓承麟)은 경무국의 의향을 전달하였다. 이에 일동은 본 운동은 연맹과 총독부 당국과의 사이에 지도방침이 일치할 때까지 수일간 모든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며 전임위원 사임의 건도 보류하게 되었다.

〈별지 제3호〉

지방좌담회 개최안(보류된 것)

지명	일시	본단으로부터의 출석자 씨명
경성	10월 4일	윤치호, 한상용, 김연수, 민규식, 박홍식, 고원훈, 최린
인천	10월 7일	위 가운데 3명
개성	10월 8일	위와 같음

대전	9월 29일	한규복, 민규식, 금천성(金川聖)
대구	9월 30일	위와 같음
부산	10월 2일	위와 같음
전주	9월 30일	고원훈, 김연수, 박기효

〈출전: 「朝鮮臨時戰報國團ノ動靜ニ關スル件(京高秘 第2569號ノ5)」,
1941년 9월 26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4)〉

4-2)

경고비 제2569호의 6

1941년 10월 8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조선임전보국단의 동정에 관한 건

(9월 26일자 본 호에 대해)

수제(首題)의 건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를 짝수일마다 개최하려는 예정을 당분간 중지하고 협의사항도 보류하였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2일, 4일, 6일 4회에 걸쳐 관하 경성부 종로 2 정목 소재 중앙기독교청년회 안의 사무소와 다른 곳에서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 '달')한다.

기(記)

제5회 상무위원회 회의록

- 일시 : 9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
- 출석위원 :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 가산린(佳山麟, 최린), 고원훈, 박흥식, 고령흥우(高靈興雨, 신흥우), 김사연, 박기효, 백산청수(白山靑樹), 이성환
- 참석인 : 가와키시 사무총장, 후루카와(古川) 보안과장, 도리카와(鳥川) 총무부장, 노부하라(信原) 총력과장

■ 토의사항

강령규약 개정의 건

1. 강령에 다음 1항을 추가한다.

우리는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하고 일조 유사시에는 의용방위의 결실을 올린다.

2. 규약초안 중에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제3조 본 단은 전시체제 하에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취지를 받들어 다음 강령을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단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 1) 국민개रो실천 운동
- 2) 국민생활쇄신 운동
- 3) 국채의 소화, 저축의 장려, 물자의 공출운동
- 4) 근로보국도장의 설치
- 5) 계(禮)조장의 설치
- 6) 지도자 단기 이동강좌의 개최
- 7) 기타 필요한 애국운동

제20조 삭제

제6회 상무위원회 회의록

■ 일시 : 10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 본 단 사무국

■ 출석위원 :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 가산린(佳山麟, 최린), 고원훈, 민규식, 박홍식, 박기효, 이용신, 고령흥우(高靈興雨, 신흥우), 금천성(金川聖, 이성근), 백산청수(白山靑樹, 김동환), 이성환

■ 토의사항

1. 발단식 일정 변경의 건

10월 22일 오후 3시 부민관 강당

1. 사무원 채용의 건

장세강(張世綱)을 서기로 임명한다.

제7회 상무위원회 회의록

■ 일시 : 10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 본 단 사무국

■ 출석위원 : 이동치호(伊東致昊, 윤치호), 가산린(佳山麟, 최린), 고원훈, 박기효, 금천성(金川聖, 이성근), 이용식, 백산청수(白山靑樹, 김동환), 이성환

■ 토의사항

1. 지방간담회 개최의 건

개최장소 : 각 도청 소재지(경기도 제외)

일정 :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인원 : 각 도 2명씩 본부에서 파견하여 지방 유력자를 만나 간담할 것

비용 : 일당 1명당 1일 2원으로 한다. 단 인원의 할당은 사무당국에서 기안할 것

2. 발기인 선정위원회 소집의 건

10월 7일 오후 2시부터 본 단 사무소에서 개최할 것

3. 상임위원 증선(增選)의 건

상임위원으로 신태악(辛泰嶽)을 증원한다. 단 전체위원회의 형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한다.

4. 보류안건 처리의 건

제안을 철회한다(전무위원 사임의 건).

제8회 상무위원회 회의록

■ 일시 : 10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 본 단 사무국

■ 출석위원 : 고원훈, 금천성(金川聖), 신흥우(高靈興雨), 박흥식, 김사연, 박기효, 이성환

■ 토의사항

1. 지방간담회 출장원 선정의 건

춘천	10월 11일 오전 출발	최린, 김사연
대전, 청주	10월 10일 오전 출발	박기효, 이성환
해주	10월 8일 오전 출발	윤치호, 이성환
평양	10월 12일 오후 출발	고원훈, 박흥식
신의주	10월 10일 오후 출발	금천성(金川聖, 이성근), 주요한
함흥, 청진	미정	한상룡, 신태악
대구, 부산	미정	김시권, 김동환
전주, 광주	미정	김연수, 이광수

1. 발기인 선정발표 권한에 관한 건

소위원회의 선정만으로 상무위원회에서의 토의를 생략하고 결정 발표할 것

1. 상무위원회 예회(例會)의 건

지금까지의 짝수일 예회를 중지하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할 것

〈출전: 「朝鮮臨時報國團」ノ動靜ニ關スル件(京高秘 第2569號ノ6),
1941년 10월 8일, 『思想ニ關スル情報綴』(14)〉

5)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거행에 관한 건

경고비(京高秘) 제2569호의 7

1941년 10월 24일
경기도 경찰부장
경무국장 귀하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귀하
각 도 경찰부장
관하 각 경찰서장 귀하

조선임전보국단 결성식 거행에 관한 건

(10월 20일자 본 호에 대해)

경성부 종로 2정목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내에 사무소를 둔 조선임전보국단은 이미 보고하 바와 같이 지난 10월 22일 오후 4시 20분부터 관하 경성 부민관에서 준비위원 백산청수(白山靑樹, 김동환)의 사회로 결단식을 거행했다. 이어서 간담회를 겸한 만찬회를 무사히 마치고 오후 8시에 산회하였다. 집회자는 경성부 거주 관계자 및 전조선 각 도의 발기인 대표 503명이다. 이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통보 '달')한다.

더불어 10월 23일은 오전 8시 30분에는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오후 1시부터 본 단 사무소에서 제1회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기(記)

1. 김동환의 개회 선언 이후 일동은 국민의례를 한 다음 준비위원 대리로 최린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였다. 임시좌장으로 고원훈을 추천하고 장덕수(張德秀)의 긴급 동의(動議)로 황군장병의 노고에 대한 감사전문의 발송을 제의하자 일동은 이의 없이 결정하였다.

1. 이성환이 흥아봉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³⁴¹⁾의 합류에 이른 경과를 보고하자, 타 도에서 온 발기인 대표 가운데에는 임전보국단은 국민총력연맹의 운동과 궤가 하나인 동종 이명의 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혹자는 본 단의 장래 운동방침을 질문하는 등 지방대표자와 중앙간부 사이의 의지가 아직 충분히 소통되지 않음을 드러내었다.

1. 취지강령 결정의 건

신태악(辛泰嶽)이 취지 및 강령(이미 보고)을 낭독하고 일동에게 찬부를 물은 바,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341) 원문에는 임전대책협의회로 되어 있음. 임전대책협력회의 오류.

1. 규약 결정의 건

규약은 사전에 단원에게 배포되었으므로 낭독을 생략하고 일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원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1. 임원 전형의 건

좌장이 전형방법을 묻고 좌장의 지명에 의한 전형위원 13명을 선정 발표하여 동의를 제출하자 이에 찬성하였다.

좌장이 금천성(金川聖)³⁴², 양상경(梁相卿), 민규식, 서원종린(瑞原鍾麟)³⁴³, 이영찬(李泳贊), 원덕상(元村肇), 이명구(李明求), 박흥식, 장직상(張稷相), 신태악, 김명학(金明學), 신흥우, 이기찬(李基燦) 등 13명을 지명한 바, 동 위원은 별실에서 협의 선거의 결과 별지와 같이 당선하였다.

1. 단장 인사 및 기타 축사

임원 선거의 결과 단장으로 당선된 최린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이 있는 다음, 미나미(南) 국민총력연맹 총재의 고사(告辭, 가와키시 중장이 대독), 조선군사령관(구라시게(倉茂) 보도부장 대독), 경기도지사(후루이치(古市) 내무부장 대독), 경성부윤(대독) 등으로부터 각각 축사가 있었다. 이후 김사연(金思演)의 선창으로 일동은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윤치호의 발성(發聲)으로 성수(聖壽)만세를 봉창한 다음 오후 5시 35분에 끝마쳤다.

이어서 부민관 중강당에서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도 대표로부터 의견과 요망사항을 들었다. 모두 이구동음으로 앞으로의 방침과 본 단과 국민총력연맹과의 관계, 혹은 도군별 지부설치 등을 언급하였지만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기로 하고 오후 8시에 무사히 산회하였다. 다음날 10월 23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 조선신궁을 참배하고, 오후 1시부터는 본 단 사무소에서 제1회 임원회를 개최하였다.

〈별지〉

임원 씨명

고문 : 기시카와 분사부로(川岸文三郎), 이가진호(李家軫鎬)³⁴⁴, 박중양(朴重陽), 한상룡(韓相龍)

단장 : 가산린(佳山麟)³⁴⁵

부단장 : 고원훈(高元勳)

이사 : 김연수(金彦洙), 민규식(閔奎植), 박흥식(朴興植), 김사연(金思演), 박기효(朴基孝), 이용신(李容愼), 이성환(李晟煥), 김동환(白山靑樹), 원덕상(元村肇), 최창학(崔昌學), 한희복(韓喜復), 방의석(方義錫), 하산무(夏山茂)³⁴⁶, 이병길(李丙吉), 유억겸(俞億兼), 서원종린(瑞原鍾麟, 이종린), 이종욱(李鍾郁), 현상윤(玄相允), 방응모(方應模), 최두선(崔斗善), 이종만(李鍾萬), 구자옥(具滋玉), 신태악(辛泰嶽), 김시권(金時權), 김갑순(金甲淳), 이규원(李圭元), 장덕수(張德秀),

342) 이성근.

343) 이종린.

344) 이진호.

345) 최린.

346) 조병상.

정은섭(丁殷燮), 김기수(金基秀), 이명구(李明求), 금택경차(金澤慶次), 금전영옥(金田英玉), 현준호(玄俊鎬), 장직상(張稷相), 김병희(金秉喜), 이기찬(李基燦), 고일청(高一淸), 김명학(金明學), 장간헌사랑(張間憲四郎),³⁴⁷⁾ 금천성(金川聖),³⁴⁸⁾ 오천교원(烏川僑源),³⁴⁹⁾ 안종철(安鍾哲) 감사 : 박택상준(朴澤相駿),³⁵⁰⁾ 김성수(金性洙), 손영목(孫永穆), 김동훈(金東勳), 김명준(金田明) 평의원 : 임흥순(任興淳), 노창성(盧昌成), 이정섭(李晶燮), 금본동진(金本東進),³⁵¹⁾ 서춘(徐椿), 함상훈(咸尙勳), 김승복(金昇福), 장면(張勉), 김주익(金周益), 오용탁(吳龍鐸), 조기간(趙基棐), 유만겸(俞萬兼), 이종은(李鍾殷), 김태석(金泰錫), 최규동(崔奎東), 이병규(李秉奎), 민석현(閔奭鉉), 장기식(張驥植),³⁵²⁾ 허헌(許憲), 이상협(李相協), 김명하(金明夏), 안인식(安寅植), 유광렬(柳光烈), 이현구(李軒求), 조동식(趙東植), 오촌승우(梧村升雨, 이승우), 소완규(蘇完奎), 옥산우연(玉山友彦),³⁵³⁾ 김광수(金光洙), 오금선(吳兢善), 이종회(李鍾會), 박창서(朴彰緒), 손홍원(孫弘遠), 양주삼(梁原柱三), 장석원(張錫元), 한익교(韓翼敎), 서광설(徐光高), 박상훈(朴尙薰), 정구충(鄭求忠), 이준렬(李駿烈), 덕천인과(德川仁果),³⁵⁴⁾ 김활란(金活蘭), 정춘수(鄭春洙), 박용운(朴龍雲), 박영희(朴英熙), 조대하(趙大河), 정현모(鄭顯模), 윤치영(尹致映), 이용설(李容高), 신용옥(愼鏞頊), 박승빈(朴勝彬), 박인덕(朴仁德), 임명재(任明宰), 백기호(白基昊), 김성진(金晟鎭), 양재하(梁在廈), 안종화(安鍾和), 현제명(玄濟明), 이숙중(李淑鍾), 황신덕(黃信德), 배상명(裨祥明), 모운숙(毛允淑), 최정희(崔貞熙), 문재철(文在喆), 정운용(鄭雲用), 김성권(金星權), 성원경(成元慶), 박기돈(松岡世宗), 이한복(李原漢復), 김홍량(金鴻亮), 민병덕(閔丙德), 김상은(金相殷), 이중갑(李重甲), 민영은(閔泳殷), 김원근(金元根), 이중덕(李鍾德), 금산경(金山敬, 김창수)³⁵⁵⁾, 조강희(末永岡熙), 양상경(梁相卿), 최승렬(崔昇烈), 장병선(張炳善), 송화식(宋和植), 김신석(金信錫), 차남진(車南鎭), 김동준(金東準), 김장태(金璋泰), 이면재(李冕載), 김동원(金東元), 채필근(蔡弼近), 최정묵(崔鼎默), 이희적(李熙迪), 장리황(姜利璜), 이영찬(李泳贊), 한림(韓林), 조영희(趙永熙), 남백우(南百祐), 이창인(李昌仁), 김정석(金山韶能), 윤석필(尹錫弼), 서상일(徐相日), 서병조(徐丙朝), 신옥(申鉦), 박완(朴浣), 박희도(朴熙道), 이각중(李覺鍾), 김기덕(金基德), 희다의(喜多毅, 이극로(李克魯)

〈출전: 『朝鮮羊臨戰報國團 結成式舉行二關スル件(京高秘 第2569號ノ7)』, 1941년 10월 24일 『思想二關スル事情報綴』(14)〉

347) 장현근.

348) 이성근.

349) 정교원.

350) 박상준.

351) 김동진의 창씨명.

352) 원문에는 '張驥植'으로 표기되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

353) 장우식(張友植)의 창씨명. 원문에는 '玉名友彦'으로 표기되었으나 오기로 보아 수정.

354) 정인과의 창씨명.

355) 김창수(金昌洙)의 창씨명.

6) 임전대책보국단의 활발한 실천운동

반도 2천 4백만 민중이 결연히 일어나 몸을 바쳐 초비상시국에 봉공해야하겠다는 뜻에서 반도인 측 각계 지도자의 자발적인 애국의 지정(至情)에 따라 지난 8월 중에 탄생된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 두 단체는 그동안 각기 민중을 지도하여 임전체제를 확립하고자 힘써왔는데 양 단체가 각기 개성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 최고 목표는 오직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자는 한 길뿐으로 반도 민중이 한 덩어리로 좀 더 강력한 애국운동을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단연히 합동을 해가지고 한 덩어리의 큰 힘을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난 9월 3일 오후 천안(川岸) 조선연맹 총장의 알선으로 두 단체의 대표자들이 연맹사무소에 모여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합동을 결단하여 새 이름으로 조선임전보국단이라고 정하게 되었다. 단체의 발전적 해소와 신 단체의 결성이며 장차 반도민중을 이끌어 애국의 지성을 실천해 나갈 구체적 사업 내용의 협의는 다음의 준비위원회에 일임했었다.

준비위원 : 이동치호(伊東致昊), 한상룡(韓相龍), 신태악(辛泰嶽), 고령흥우(高靈興雨), 김사연(金思演), 백산청수(白山靑樹), 서원종린(瑞原鍾麟), 민규식(閔奎植), 박흥식(朴興植)

그리하여 그 다음날 9월 4일 밤에는 벌써 그 활동이 활발하여 임전대책연설회가 부민관에 열리게 되어 정각도 되기 전 부민은 회장 앞 태평통(太平通) 거리에 장사진을 치고 입장을 다투게 되었는데 이날 밤의 연제와 연사는 다음과 같았다.

- 극동의 결전과 오인의 각오 - 이동치호(伊東致昊)
- 읍소(泣訴) - 가산린(佳山麟)
- 승전의 길은 여기에 있다 - 영하인덕(永河仁德)
- 동경(東京) 대판은 이렇다 - 신태악(辛泰嶽)
- 태평양 풍운의 전망 - 고령흥우(高靈興雨)
- 애국의 지성과 이 기회 - 안흥성환(安興晟煥)
- 30년 전의 회고 - 서원종린(瑞原鍾麟)

이상 7씨의 사자후는 모두가 애국지성의 감명을 청중의 가슴 깊이 목 박았었다.

4일의 밤의 이 연설회의 뒤를 이어 7일(첫 공일)에는 '이론에서 실천으로!'라는 재 목표를 세우고 이동치호(伊東致昊), 가산린(佳山麟) 씨외 각계 각사 70여 명이 거리로 총동원을 하여 채권을 사라는 애국적 실천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70여 명은 경성 시내 11군데 요소로 흩어져 각기 채권을 들고 나서서 '총후의 봉공은 채권으로부터!'라고 메가폰을 통하여 외치는가 하면 '나 한 장만 더 주세요!'하고 앞을 다투어 채권을 사는 등 과연 민중의 애국심에 반향은 커서 채권 소화 가두운동은 불과 한 시가 만에 80원 어치의 업적을 내고 말았다.

<출전: 『臨戰對策報國團의 活潑한 實踐運動』, 『朝光』 第7卷 第10號, 1941년 10월 136쪽>

7) 임전 애국자의 대사자후(大獅子吼)!! - 임전보국의 대연설회 속기록

우리들의 향토 아시아는 과거 수백 년간을 두고 영미(英米)들 열강의 압제하에 착취와 침략을 받아 왔다. 중국이 그리하였고, 인도(印度), 태국(泰國), 말레이반도(馬來半島) 모두가 그러하였다. 이에 우리 제국은 백만의 황사(皇師)를 멀리 북으로는 소만국경(蘇滿國境)에서 남으로는 중원 400여 주(州)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佛印)에까지 파견하여 포악한 적성(敵性)세력을 구축(驅逐)하고 신질서에 위한 대동아를 건설하고자 성전을 시작한지 이미 5년! 아직도 남북의 풍운은 날이 갈수록 더 긴박하여 국민무장화의 임전체제를 요하는 중대 시국에 직면하였다. 이에 반도의 애국자군은 단연 쫓겨하여 민간 자발적 뜻으로 임전대책협력을 결성하고 9월 4일 경성 부민관(府民館)에서 아래의 연제로 그 제1성을 발하였다. 이 역사적 연설의 속기록을 여기 수록하여 널리 세상에 공하는 바이노라. (사진설명, 좌는 최린(崔麟) 씨, 우는 채권과는 이진호(李珍鎬) 씨(우)와 신태악(辛泰嶽) 씨(중))

- 개회사 「임전협력회결성에 즈음하여」 김동환(金東煥)
- 극동(極東)의 결전과 오인(吾人)의 각오 윤치호(尹致昊)
- 읍소(泣訴) 최린(崔麟)
- 태평양풍운의 전망 신흥우(申興雨)
- 승전의 길은 여기에 있다 박인덕(朴仁德)
- 동경(東京) 대판(大阪)은 이렇다 신태악(辛泰嶽)
- 30년 전의 회상 이종린(李鍾麟)
- 애국의 지성(至誠)과 이 기회 이성환(李晟煥)

임전보국단 결성에 즈음하여 개회사를 겸하여

김동환(金東煥)

오늘저녁 이 연설회장안에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약 3,000명 관중이 꼭 들어찼고 또 이 회장 바깥에는 미처 들어오지 못해서 저리 광화문(光化門) 네거리로부터 덕수궁(德壽宮)담장 있는데 까지 열 겹, 스무 겹 진을 치고서 확성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군중이 2,000여 명이나 있으며 더구나 오늘 저녁 연설은 모두 다 라디오의 중계방송을 통해서 전 조선 13도(道) 방방곡곡의 조선사람 사는 곳곳을 찾아 모두 다 흐르게 되어, 이와 같이 여러 10만 관중을 앞에 둔 오늘 저녁의 이 임전대책연설회는 유사(有史) 이래 처음이라 할 긴장과 엄숙한 가운데에 열려졌습니다.

이때에 민간에 흩어져 밤낮 우리나라 일본제국의 국가흥망을 심려하고 계시는 우국의 지사 여러분에게 고하고 싶은 것은 발을 맞추어서 조선 사람도 이때에 나라를 위한 철저한 각오와 준비를 가지자 함이외다. 우리 모두가 일어서서 이 조선을 지키고 우리나라 일본과 극동을 철혈로서 지키자 함이외다.

그야 그동안 우리도 사변 이래 5개년 동안을 두고 성전(聖戰)에 참가하여 직접 간접으로 피도 흘리고

돈도 바치고 노력도 보태어 드렸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정히 생각해봅시다.

황군장병 11만 명이 죽었는데 조선 사람은 겨우 세 사람이 죽었고 국채소화의 힘도 일본의 어느 1현(縣)만도 같지 못하고 그밖에 무엇 무엇 모두 다 빈약하였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외다.

대체로 우리가 이번 성전에 참가하는데 세 가지 단계를 밟아야 할 줄 압니다. 제1기는 사상전 즉 우리 2천 4백만 조선인이 다 황도정신을 파악한 일본국민이 되는 일로,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들 일부에 종래 가지고 있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깨끗이 청산하고 한사람도 빠지지 말고서 내선일체의 길에 들어섭시다. 그런 뒤 제2기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돈과 땀을 나라에 바칩시다. 돈으로 애국공채를 사고 전쟁에 필요한 옷그릇, 금(金), 동(銅), 쌀을 바칩시다. 또 땀, 즉 노력을 바칩시다. 국가에서는 지금 지하자원의 개발, 양미증식(糧米增殖)을 위하여 국민의 노력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력을 통하여 국채에 협력합시다.

이렇게 국민정신을 통일하고 그런 뒤 노력과 물자와 돈을 바치고 그리고 난 뒤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를 바치는 일이외다. 우리의 생명을 전장에 바쳐야 하겠습니까. 황군장사(皇軍將士) 모양으로 총과 칼을 메고 우리도 전장에 나아가 우리나라 일본제국을 방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결전의 시기외다. 아시아(亞細亞)의 흥망을 결정하고 우리나라 일본의 만년국운을 결정하는 최후의 결전마당에 우리는 일신의 생명과 재산을 모두 나라에 바쳐 쫓기(蹶起)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준비를 우리 모두가 가져 보자는 뜻으로 이제 임전대책협의회(臨戰對策協力會)가 결성되어, 지금부터 전 조선에 새로운 애국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터이니 여러분 다 같이 뼈는 뼈대로 돈은 돈대로 물자는 물자대로 한데 뭉쳐 나라에 바치는 이 일에 찬성하여 우리 뜻에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개회사를 대신합니다.

강령

-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통일을 기한다.
- 우리는 전시체제에 즉하고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한다.
- 우리는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해서 국민 개로(皆勞)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
- 우리는 국가우선의 정신에 기해서 국채의 소화저축의 여행, 물자(勵行物資)의 공출생산의 확충에 매진하기를 기한다.
- 우리는 국방사상의 보급을 하는 동시에 일조유사지추(一朝有事之秋)에 의용방위(義勇防衛)의 실을 거두기를 기한다.

임전보국단 설립취지서

우리 제국은 현금 유사(有史)이래 가장 중대한 시국에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또한 가장 숭고 존엄한 동아공영권 확립의 성업완수의 도상에 있다. 이제 황국에 향생(厚生)한 자는 누구를 불문하고 각자의 분(分)에 응(應)하여 그 성(誠)을 다하고 국운의 진전에 기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은 물론이다. 이때

를 당하여 우리 '반도'³⁵⁶⁾ 민중은 과연 현재의 태세 그대로 나가도 좋을 런지 설령 우리는 특별지원병 외에 일반적으로 병역에 복무하는 명예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나 적성(赤誠)을 가지고 정신적 물질적 또는 노무(勞務)적으로 전력을 기울여 충후봉공(銃後奉公)에 한층 철저하여서 충렬한 장병의 분투에 대응하고 무한한 황은에 만의 하나라도 봉보(奉報)하는 방도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해서 반도가 물심 공히 병참기지됨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이 기회를 놓치고서는 재차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 하기한 자등(者等)이 유연히 일어나는 애국의 지정(至情)으로부터 감히 자책(自揣)함이 없이 이에 국민운동의 강력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조선임전보국단'의 설립을 기도하고 널리 반도 2,400만의 제군에게 미충(微衷)³⁵⁷⁾을 호소하려는 소이다. 우리의 취지를 찬성하고 우(憂)를 같이 하며 뜻을 함께하는 강호(江湖)의 제사(諸士)는 속히 내참(來參)하여 이 애국운동의 발전조성에 전부의 협력을 해주기를 요망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출전: 「臨戰愛國者의 大獅子吼!!, 臨戰報國의 大演說會速記錄」, 『三千里』 第13卷 第11號, 1941년 11월 1일, 14~17쪽〉

8) 결성식 관계 기사

8-1)

애국 양 단체를 합동, 조선임전보국단을 결성,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 발전적 해소

반도 2천 4백만 민중이 결연히 일어나서 한 몸을 바치고 비상시국에 봉공해야겠다는 반도인 즉 각계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애국의지성에 따라 지난 8일에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 등 두 단체의 탄생을 보게 되었고 이들 단체에서는 각기 적절한 계획을 세워 민중을 지도하여 임전체제를 확립하고자 힘써왔다. 그런데 이들의 최고 목표는 오직 나라를 위하여 한 몸을 바치자는 한 길뿐이므로 두 단체가 합동하여 좀 더 강력한 애국운동을 일으켜 나가자는 계획이 진행되어 오는 등 3일 드디어 양 단체의 합동이 실현되었다.(사진은 양 단체 합동협회 광경)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의 합동은 천안(川岸) 조선연맹 총장의 호의로써 3일 오후 두 단체의 대표자들이 연맹 사무국에 모여서 정성껏 협의한 결과 만장일치로써 두 단체를 합병하여 새로이 조선임전보국단(朝鮮臨戰報國團)을 결성하고 반도 민중의 힘찬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이동치호(伊東致昊) 가산린(佳山麟) 한상룡(韓相龍) 서원중린(瑞原鍾麟) 씨를 비롯한 각 대표자며 연맹 중으로 천안 총장과 오천(烏川) 총무부장 등 10여 씨가 출석한 가운데서 오후 2시부터 부내 북미창정(北米倉町)의 연맹사무국 회의실에서 각 대표가 협의한 결과 '두 단체가 각기 다른 개성(個性)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나 반도 민중을 한 덩어리로 좀 더 효과적이며, 강력한 애국운동을 일

356) 식민지 조선을 뜻함.

357) 변변치 못한 작은 성의라는 뜻.

오켜나가자면 당연히 합병한 다음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 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므로 드디어 만장일치로써 합병할 것을 결의하여 다시 한 번 국가에 지성봉공 할 것을 지도자들은 굳게 맹서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합병한 후에 새로이 탄생할 단체의 명칭은 그전 두 단체의 이름을 따가지고 조선임전보국단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두 단체의 발전적 해소와 신단체의 결성이며 장차 반도 민중을 이끌고 총력운동의 일익으로 애국의 지성을 실천해나갈 구체적 사업내용을 협의 결정할 준비위원으로는,

▲이동치호(伊東致昊) ▲한상룡(韓相龍) ▲김연수(金季洙) ▲고원훈(高元勳) ▲하산무(夏山茂) ▲가산린(佳山麟) ▲신태악(辛泰嶽) ▲신흥우(申興雨) ▲김사연(金思演) ▲백산정수(白山靑樹) ▲서원종린(瑞原鍾麟) ▲민규식(閔奎植) ▲박흥식(朴興植) 등의 13씨를 선정하고 모든 것을 이들에게 일임하기로 되었다. 이렇게 되어 반도 민중의 적성을 배경으로 신 출발하는 새 단체의 역사적인 발회식도 멀지 않아 거행될 예정인데 지금까지에 두 단체에서 각기 계획을 세워 나오던 사업은 새 단체가 탄생하기까지는 적당히 종전대로 처리할 터이며 지난 번 흥아보국 단체에서 각도 대표자를 모아놓고 협의한 일이 있으므로 이들에게는 곧 연락을 취하여 양해를 구하기로 하고 오후 5시경 산회하였다

자발적 적성에 감격, 국가의 경사 : 천안(川岸) 총장(總長) 담(談)

별안과 같이 두 단체가 합하여 한층 강력한 애국운동을 일으켜 나가기로 한데 대하여 천안(川岸) 총장은 ‘반도 민중의 자발적인 애국지성에 감격할 뿐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도 청년을 훈련하자는 흥아보국단이나 노무(勞務)와 물자공출로 반도 민중의 정성스러운 실천운동을 전개하자는 임전대책협력회나 그 최고목표는 국가에 지성봉공하자는 한길뿐이었으므로 두 단체가 이렇게 합병하게 된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이다. 각기 계획한 사업도 있는 터에 ‘□을 위하여 ‘적은 것’을 버리고 이 같이 협력하게 된 것은 자발적인 충후적성의 표현인지라 장래 기대 하는바 몹시 큰 동시에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장래 전선 애국반원이 이들의 외침에 호응하여 한 몸을 바쳐 국가에 봉공할 것을 생각하면 실로 국가의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연맹으로서도 전폭적으로 이에 협력할 방침이다.”

합동정신일치 : 임전대책협력회 가산린(佳山麟) 씨 담(談)

두 단체의 연합위원회에 참석한 가산린(佳山麟) 씨는 회의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국이 더욱더욱 긴박하여지고 있는 이때 우리 조선인들은 국가를 위하여 힘 있는 봉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2천 4백만의 공동의 심리일 것이다. 여기에 있어 흥아보국단이 생기고 임전대책협력회가 생긴 것이다. 물론 흥아 보국단은 그 단체로서의 개성이 있고 임전대책협력회로서의 개성이 있어 각각 독특한 성질이 있으나 양방에 공통된 점이 많다. 이런 경우에 국가를 위한 애국운동은 분산하는 것보다 합체하여 좀 더 힘 있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합동 문제가 일어나 쌍방이 만장일치하여 합동이 성립된 것이다. 이 합동은 쌍방이 각각 백지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성질목적은 그대로 포함하여 합친 것이다. 합동정신은 일치되었으나, 사무적 문제 등 사업의 계획가튼 구체적 문제는

쌍방에서 선출한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될 모양이다.

동일 목적에 매진 : 흥아보국단 이동치호(伊東致昊) 씨 담(談)

오늘 두 단체가 합동하여 한 목적을 향하여 힘 있게 나가게 되는데 대하여 나는 충심으로 기뻐하는 바이다. 이로서 두 단체의 활동은 한층 더 기운차게 전개되어 2천 4백만 반도 민중에 총력발휘와 총후봉공에 박차를 가하기로 되었다. 그리고 흥아보국단의 사업은 준비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하기로 된 것이다.

<출전: 「愛國兩團體를 合同 朝鮮報國戰報國團을 結成- 興亞報國團과 臨戰對策協力會發展의 解消, 自發的赤誠에 感激- 國家의 慶事(川岸總長談), 合同精神一致 臨戰對策協力會 佳山麟氏談, 同一目的에 邁進- 興亞報國團 伊東致昊氏談」, 『매일신보』, 1941년 9월 4일>

8-2)

임전보국단의 결성식(사설)

1

조선임전보국단은 금일 광휘(光輝)있는 결성식을 거행한다. 회고하건대 지난 8일 □□을 □□하는 □□□□의 한 □□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인 의지가 결연히 일어나 각각 흥아보국단(興亞報國團)과 임전대책협력회를 □□하였고 다시 13일에 들어 이 두 단체가 합동하여 조선임전보국단을 □□한 이래 10월 초에는 준비위원 제씨가 □□ 각지에 □□하여 크게 □□차고 드디어 정식으로 결성식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오인(吾人)은 충심(衷心)으로부터 이 보국단의 □□대한 □□을 □□하는 동시에 동□이 진실로 반도 2천 4백만 민중을 총동원하여 □□하게 □□력을 □□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중일전쟁을 완수하고 나아가 동아공영권을 확립하여 □□를 중외(中外)에 □□하는 것은 □□부동의 □□이다. 이 □□의 실□은 □고의 □□이라. 일조일석(一朝一夕)에 □□를 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이 같은 □□의 국제□□을 한 묵과(默過)할 수 없을 만큼 □□을 □□하여 어느 때 돌□적 □□를 일으킬지 알 수 없는 상□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하한 □□라도 들이치고 초□□□□하려면 안으로 □□내의 고도국방국가 체제를 급속히 □□하여 어느 때라도 이에 □□□□하라 수 있는 □□력을 □□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니 국민이 열혈(熱血)이 1만이 되어 개□□□의 □□에 불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출전: 「社說: 臨戰報國團의 結團式」, 『매일신보』, 1941년 10월 22일>

9) 반도 지도층부인의 결전보국의 대자사후(大獅子吼)!!

조선임전보국단 주최

(지난 12월 8일 우리 제국은 동아공영권의 방해자요 동양침략의 적인 영미(米英) 양국을 타도하기 위하여 정의의 간과(干戈)를 내어 들게 되었다. 이에 조선지도계급부인의 결전보국대사자후를 특집하여 반도부인계에 제공하는 바이다.)

1. 여성의 무장 — 김활란(金活蘭)
2. 미몽(迷夢)에서 깨자 — 임효정(林孝貞)
3. 가정의 신질서 — 임숙재(任淑宰)
4. 국방가정 — 박순천(朴順天)
5. 총후부인의 각오 — 허하백(許河伯)
6. 여성도 전사다 — 모윤숙(毛允淑)
7. 군국(君國)의 어머니 — 최정희(崔貞熙)

여성의 무장, 이화여전 교장 김활란

지나사변(支那事變)³⁵⁸이후 우리 여성은 총후(銃後)를 지키는 자로서 미력이나마 다하여왔습니다. 출정군인의 천송(賤送)이며, 유가족의 위문, 혹은 국방헌금 등등, 이루 헤일 수 없는 정도였으나, 지난 12월 8일 황송하옵게도 대조(大詔)³⁵⁹가 환발(渙發)되시와 지금까지의 사변은 대동아전쟁³⁶⁰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우리 충용(忠勇)한 육해군은 저 폭력(暴戾)한 영미(英米)를 동양에서 구축하려고 분연히 일어난 그날부터는 우리들 여성도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들 생활은 지금까지와 같이 총후를 지키고 있다는 소극적 관념으로부터 한걸음 나아가서 총후에 있어서의 전사라 하는 기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대동아전쟁을 말씀하면, 인류역사에 지금까지 없었던 위대한 싸움입니다. 세인들은 미국의 흑노해방(黑奴解放)의 전쟁과, 옛날 유럽인의 피를 끓게 한 십자군의 싸움을 위대했다고 하지만, 그것에 이기면 이겼지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의 대동아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동양인 전부를 저 앵글로 색슨 인종의 침해로부터 구하려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300여 년 간 서쪽 아시아로부터 동쪽 아시아에까지 진출하여 자기들의 무기의 우수함을 다행으로 여겨 점차 세력을 뻗어서 우리 동양의 태반을 삼켜버렸습니다. 어찌 이를 보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든지 그들 악독한 손에 맡겨버리고 있겠습니까. 정의 일본의 나아갈 길은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동양 10억 여 민중

358) 중일전쟁을 뜻함.

359) 조칙(詔勅) 또는 조서(詔書). 제왕이 일반인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뜻함.

360) 태평양전쟁을 뜻함.

을 위해 도의(道義)의 싸움은 드디어 벌어진 것입니다.

동양의 문명과 서양의 문명과의 비교하여 보면, 동양은 도의의 문명이요 서양은 물질과 기능에 지배된 소위 물질문명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그 외형적 화사함에 눈이 현혹되고, 그들의 생활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들 자체를 숭배하게 된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도의를 가지지 못한 그들의 비인간적인 행동을 들면, 세계의 인구 약 20억 중 우리 동양은 아시아주만도 그 절반인 10억을 넘습니다. 동양의 보고(寶庫)는 동양인의 손에 의해서만 경영되어도 아직 풍부를 느끼지 못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미영의 무리들이 침입하여 우리들 얼굴 앞에서 꺼덕대고, 또 무지한 남방주민을 속여서 이익을 기도함은 전혀 도의를 떠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의(天意)에 의하여 인구가 매일 증가되고 번창하여 갑니다. 그렇지만 면적은 우리들을 포용하기에 충분치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들 비도(非道)한 나라와 같이 인의(人意)를 무시하고 무기에 의해 어디든지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 30년래 불가능했을 리는 없습니다. 참으로 융성한 우리 국운을 보고 덤벼든다면 세계에 두려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도의(道義)의 나라입니다. 이번 성전(聖戰)이 일어나기까지의 경과를 생각해보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든지 평화스럽게 해결하려고 그야말로 눈물 겨울만큼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여 노력을 거듭했었습니다. 그러나 물욕에 눈이 현혹되어 도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찌 우리의 성의(誠意)가 통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단호히 분기하였습니다. 그들의 그간 동양에서의 정치, 군사적 행동이 천의(天意)와 인의(人義)를 무시한 인위적 침략이었다면 어찌 이 이상 참아오겠습니까. 동양은 그들 식민지로서 즐거움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굴하고 따라서 그들의 자유에 맡겨버리기까지 그들에게 떨어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조선(祖先)으로부터 도의의 혼은 말없이 알지 못하게 우리들의 체내에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력으로써 나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승리는 항상 정의의 두상(頭上)에 있는 것입니다. 저 우방 독일에 대하여 저들 영미가 취한 태도를 보십시오. 지나간 구주대전(歐洲大戰)³⁶¹ 후 갖은 수단을 짜내어서 독일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금후 어떻게 해서든지 서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독일혼만은 빼앗기지 않고 20수년간이나 고통을 견디어온 결과, 지금의 굳센 독일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들 영미인은 외형에만 의해서 완전히 세계를 지배했다고 오만한 기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양 10억의 인류를 그들의 손에서 건지려는 전고(前古) 미증유의 성전은 열려졌습니다.

그 충후에서 싸울 수 있는, 실로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광영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황국신민(皇國臣民)된 고마움에는 감읍할 뿐입니다. 그 심경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나라에 봉공(奉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정신적 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들의 혼과 불타는 적성(赤誠)을 드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은 남성과 같이 제일선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쓸 데 없다고. 그러나 제일선의 뒤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일선에서는 장병으로 하여금 얼마나 원기를 갖게 하는 것인가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부인이 출정하는 자기 아들과 자기 남편에게 『임금

361) 제1차 세계대전을 뜻함.

님을 위해서 일사불공하여 주십시오. 집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라고 말한 그 일언이 진격 중인 장병에게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위안의 말입니다. 마음을 분기케 하는 근원입니다. 『이쪽 일은 굳게 지키립니다.』하는 그 마음이 충후를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에 가면」이라는 노래에 있듯이 「대군(大君) 옆에서 죽더라도 돌아보지 않겠다」는, 설혹 전선과 충후의 장소의 차이가 있다고 할망정 황국신민으로서 누구나 가져야할 적심입니다.

빈부의 차별이 없이 자기의 온갖 진심을 기울여서 진취(盡瘁)³⁶²함이 즉, 우리여성의 무장입니다. 이러한 혼이 없이, 그저 물자절약, 헌품, 헌금 등의 외형적만인 봉공은 마치 인간의 형체는 갖추었되 혼이 없는 인형과 같은 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전부를 바쳐서 어떤 고통이든지 달게 받으며 나아가려는 영구적인 근기(根氣)있는 봉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전, 도의와 동양인류해방을 위한 싸움, 그리고 1억이 하나이 되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를 얻을 이 대전에 즈음하여 우리들은 자신을 갖고 마음과 혼을 모두 국가에 바칩시다. 그리하여 이 성대(聖代)에 생명을 받은 기쁨과 제국 신민된 특권의 광영에 더욱 분투하지 않으렵니까. (박수)

미몽(迷夢)에서 깨자, 임효정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우리 일본제국이 지금 어떠한 나라와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형편쯤은 가장 현명하시고 가장 비판력이 빠르다고 자처하시는 분들이매 잘 아실 줄 아옵니다.

매일 두 번씩 보도되는 신문을 읽으시고 또 하루에도 몇 번씩 방송되는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으로 누구보다도 이 시국을 잘 인식하기고 계시다고 자처함도 결코 무리는 아닐 줄 압니다. 그러나 나 보기에 아직도 여러분은 몽롱한 꿈속에서 헤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깥은 밤사이 일기가 돌변하여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치고 비가 쏟아져 하수도가 넘고 담장이 터져 야단이 났지만은 여러분 방에는 덧문을 꼭꼭 닫고 검은 문장(門帳)을 길이길이 늘였기 때문에 한밤중인 줄만 알고 쿨쿨 자고 있습니다.

돈이 있는 부호는 돈에 가려서, 무식한 사람은 무지해서, 소위 인텔리란 지식층은 반들어져서 이 시국을 잘 인식치 못하고 미몽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몽에서 깨었다면 왜 매점(買占)이 있고 왜 채권을 사지 않고, 왜 6억 저축에 협력을 하지 않고 왜 당신의 아들들을 지원병으로 내어 놓지를 않습니까?

여인들을 만나면 고무신이 없다 광목이 없다, 기름이 없다, 불평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12월 1일부터 비단과 화장품에 세금이 붙는다고 각 백화점과 포목 상문(商門)이 미어지게 장사진을 늘리어 가지고 한 사람이 100원어치 화장품을 샀다는 등 2, 3천 원 어치씩 비단을 끊었다는 등 하니 그 무슨 추태입니까? 100원어치씩 화장품을 살 재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이 붙은 후에 1, 2원 어치씩 사다 쓸 능력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전시(戰時)에 무슨 화려한 옷이 그리 필요해서 수천 원 어치씩 삽니까?

여러분이 다른 나라의 전시(戰時)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안다면 이상과 같은 추태는 연출치 않을 것

362)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열심히 힘을 다함.

입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 나라의 전시생활 상태를 봅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한 사람이 얼마든지 의복을 가질 수 있는 생활이 아니고 1인당 몇 점 수 이상은 같이 못하는 법령이 실시되었고 식량에 있어도 썩 엄격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일체의 준비를 해 놓았다가 폴란드와 개전이 되자 즉시 배급제를 썼는데 그 배급은 전쟁 전에 비해서 육류가 일인당 43퍼센트, 지방이 40퍼센트, 사탕이 20퍼센트로 줄었는데 그중에도 주목되는 것은 그들이 우리네의 차와 같이 노냥 마시는 맥주는 가정에는 한 홉도 배급되지 않고 요리집에 가야 겨우 한 컵 얻어먹게 되는데 그것 역시 물에 탄 것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상당히 부자유한 배급을 받으면서도 시국의 중대성을 잘 인식한 독일국민은 아무런 불만불평도 없고 암취인(闇取引)³⁶³⁾ 같은 것도 아니하고 통제 위반행위 같은 것도 없어서 정부로선 계획대로 식량을 착착 저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영국은 독일의 강력한 전시생활에 비해서 썩 비참합니다. 영국은 본래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3개월 반 밖에는 먹을 수가 없고 나머지 8개월 반은 국외에서 가져 와야 합니다.

영국 역시 독일과 개전이 되자 즉시 배급제를 실시했지만 독일의 엄중한 해상봉쇄로 인해서 국외로부터 식량을 못 가져오게 되어 참으로 역경에 빠졌습니다. 그 실례를 들면 베이컨이 70퍼센트, 버터가 50퍼센트, 계란이 70퍼센트(1개 50전) 중이가 60퍼센트로 전쟁 전에 배해서 5, 60퍼센트나 격감을 했습니다. 그중에도 육류 같은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일주일에 일인당 비프스테이크를 세 쪽씩 주는데 그것도 아주 적고 얇은 것인데 일주일 중 3일은 고기 없는 날로 정해 있기 때문에 육류는 아주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전시생활의 참상은 더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는 말할 수 없으나 프랑스의 기근문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외정세를 잘 관찰치 못하는데 원인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왜 저축을 해야 하고 왜 채권을 사야하는지 그 이유와 의의를 잘 아시지 못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안다면 단돈 1원짜리 채권을 사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영화구경이나 거리를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돈 쓰는 데는 아깝지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는 참으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대동아전이 시작되기 전 일지사변(日支事變)³⁶⁴⁾이 시작되어 가지고 1941년도 예산까지 그동안 전비(戰費)가 223억 여 만 원입니다. 일러전쟁(日露戰爭)때는 17억 원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쓴 돈만 보더라도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그러나 대동아전이 벌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223억 여 만 원으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이번 전쟁은 싸움을 하면서 한편 건설을 하기 때문에 생산 확충에도 막대한 돈이 듭니다.

363) 암거래, 암시장을 뜻함.

364) 중일전쟁을 뜻함.

이 막대한 돈을 어디서 누가 판출(辦出)³⁶⁵하겠습니까? 이것은 1억 국민이 사야하는 국채소화(國債消化)와 저금으로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만일 나라에서 정한 데로의 채권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예산대로의 저축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어찌 될 것입니까? 참으로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그때는 전쟁은 물론 계속할 수 없고 국민의 생활은 파산에 이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나 하면 여기 직조업을 하는 상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 원을 가지고 광목 1천통을 짜서 시장에 내어 놓던 것을 오천 원을 가지고 광목을 짜니 전에 절반인 5백통만 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여전합니다.

물품은 적고 소비자는 많으니 값이 뛰어오를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구주전쟁(歐洲戰爭)때의 독일의 예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일본돈 1원에 해당하는 한 마르크가 1백 마르크 1천 마르크로 오르다가 마지막에는 10억 마르크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쟁 전에 했던 생명보험을 만기가 되어서 찾아오게 되는데 전차비 밖에는 아니 되더라고요. 이것을 소위 통화팽창으로부터 오는 악성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금과 채권소화에 게으르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백만 원이나 십만 원 돈은 만 원짜리가 될지 천 원짜리가 될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히 미몽에서 깨십시오. 지금까지 덧문을 팡팡 닫고 검은 방장을 길이길이 쳐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자던 잠자리에서 깬시다. 우리 일본은 인류의 공적 미국과 영국을 때려 부수고 대동아의 평화를 확보하려고 지난 8일 새벽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포화를 터뜨린 우리 육해공군은 1만 리 태평양 거친 파도를 헤치며 혁혁한 무훈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의 일본의 최후의 승리는 이미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1천만 반도여성에게도 못하고 있다면 승리는 더더 집니다. 여러분이 이 대동아전에 한 전사로 출동치 않는다면 우리의 승리는 더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서 전쟁이 끝이었으면 하고 평화를 갈망하면서 왜 협력하지 않습니까?

평화란 일조일석(一朝一夕)이나 일순간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는 많은 희생과 큰 양보가 있는 후에 옵니다.

국제간의 평화는 실력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국의 전의를 꺾을만한 무력적 경제적 실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일본이 영미와 싸우는 것도 이 아시아의 영원한 평화를 확립시키기 위함입니다.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것입니다. 그것은 인종과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모랄'의 문제입니다. 아시아의 평화작용에는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화학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 아시아 민족의 화합, 이러한 화합물이 되면 얼마나 찬연한 광채를 발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1천 2백만 반도여성에게 외칩니다. 특히 어머니 된 여성에게 외칩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의 장래를 위해서 분연히 전쟁에 나설 각오를 합시다.

우리 2천 4백만의 피가 이 대동아전에 섞이지 않고는 우리의 행복은 절대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에 우리는 피를 흘립시다.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칩시다.

365) 돈이나 물건을 변통하여 마련함.

천황폐하의 적자(赤子)로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바칩시다.

우리 일본이 꼭 이길 필승의 신념과 우리자손의 장래가 꼭 행복스러울 것을 믿고 결전체제(決戰體制)로 나아갑시다.

가정의 신질서, 숙명여자 전문교수 임숙재

우리 황국은 지금이야말로 정(正)히 세계유구의 평화를 위해서, 아시아 민족해방을 위해서, 팔괘일우(八紘一宇)인 우리 조국의 대 정신을 사해에 선양하기 위해서 고급 미증유인 대 성전 수행에 즈음하여 만났습니다. 1억 국민은 우리 국토 내에 생활하는 국민으로서 생명을 걸고 이 난국을 맞아 일신가(一身家)의 전력을 들어 순국의 지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사회가 어떠한 목적 밑에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그 운용은 그 주부가 일함에 있기 때문에 부인의 원동력에는 위대한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부는 가정생활의 중심이므로 이때에 가정생활의 신질서를 수립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질서라함은 가정생활을 통하여 국가난국을 돌파하려고, 가족총동원 총력을 발휘하여 정신, 물질, 양면생활이 함께 건전한 사상전, 경제전을 승리함에 있는데, 이에 강한 결심과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가정에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우선 물자금전과 건전한 인재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가정으로 하여금 심력이 한 뭉치가 되어 순충보국(純忠報國)의 정신을 더욱 더 발양하고, 물건 하나, 돈 한 닢이라도 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며 용품을 절약하여 저축하고, 군수용품이 되는 물자는 만난(萬難)을 폐하고라도 군국에 바치도록 군수공장에 봉사노력을 산출하도록 노력합니다. 예컨대 금속품, 진유제품(眞鋤製品),³⁶⁶⁾ 모직, 목선품(木線品) 등을 민간에 쓰지 않도록 힘써서 군수품을 되도록 나라에 바치자는 것입니다. 의식주의 생활을 간이화합시다. 우선 백의(白衣)를 전폐합시다. 백의는 방호상으로도 위험하며 또한 슬플 때 착용하는 흉복상복입니다. 그리고 활동상 대단히 불편하며, 또한 비경제적입니다. 우리 2천 4백만 인이 철저하게 색복(色服)을 착용한다면 약 1억 5천만 원이 절약됩니다. 이 돈으로 5만 원짜리 비행기를 산다면 3천대나 살 수 있게 됩니다. 백의는 세탁을 자주하고 풀칠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활동을 유효적절한 생산적 활동에 돌리기로 합시다. 저고리 고름도 폐지하고 단추를 달고 외출복도 통의로 고칩시다. 긴급을 요하는 전시생활에 있어서 기다란 꼬리치마를 펴려거리는 것은 예의상으로도나 활동상으로도나 좋지 못합니다. 부인의 건강으로도나 건전한 국민 생활상으로도 보아도 꼬리치마는 좋지 못합니다. 더욱 전시생활을 하여야 할 이때에 고가의 의복에 퍼머넌트를 하고 화장을 몹시 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껌 속에 사장하고 있는 기제복(既製服)을 잘 이용하여 새 의복을 만들지 않도록 힘쓰며, 할 수 없이 새 의복을 만들게 되었을 때에는 스프링클을 튼튼하게 오래 쓰는 묘법을 습득합니다.

음식물에 있어서도 건강은 유지하고 활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양을 본위로 하여 그 이상 미식(美食) 복잡한 형식을 그만두고 개인의 난의미식(暖衣美食)을 크게 반성하여 절미(節米)와 대용식(代用食)과 잡곡반등에 습관을 부쳐서 이를 힘써 행합니다. 그리고 부식물의 수를, 또는 양을 줄고, 필요분

366) 낫쇠로 만든 제품.

이의 양을 식상에 내어 놓지 않도록 힘쓰시다. 비싼 육류보다도 싼 식물성 단백질, 기타의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하며, 나무 부스러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금합시다. 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은 어떤 극한 염열(炎熱)하에서도 불휴불면(不休不眠)의 생활,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때 천막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받아먹으며, 건빵 한 조각을 씹는 것도 3일 1식일 때도 있다합니다. 죽음보다도 괴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필사의 결전을 하며 생명을 바치는 덕택으로 평온무사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송구한 일이며, 어떻게 감사해야할지 이로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미영(米英)대전³⁶⁷)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30년 이래 해군이 진지(眞摯)한 전술연마를 거듭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안온한 생활을 하여온 것이 미안하며 좀 물자 부족한 것을 불평 품으며, 부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분기하고 나아가서 부자유를 체험합시다. 두 벌의 옷이라도 나눠 입고 하루의 식량이라도 서로 나눠 먹읍시다. 사리사욕을 취하여 매점하는 일을 전폐합시다.

주거에 있어서도 가정은 가족에게 있어서 단락위안소(團樂慰安所)이기 때문에 청소 정돈으로 미화시킵시다. 피로를 쉬게 하고 새로운 원동력을 얻어서 개로(皆勞)를 힘써 수입을 증가하며, 농촌은 자작자급을 본체로 하며, 도회일지라도 적은 공지라도 이용해서 일평농영(一坪農營)으로 야채를 심고, 따라서 근로보국의 결실을 거두며 채권도 사고 저금도 하고, 특히 연말연시의 허례를 폐지하여 그 대신 군에 위문품을 보내고, 또 연시(年始) 인사를 돌아다니는 것을 폐지하여 그 대신 군인 유가족의 위문을 합시다. 특히 어머니로서 최종대한 책임은 자기 아들을 강하고 현철(賢哲)하게 길러 지원병, 혹은 국가 유용 인재로 바칩시다. 내선일체가 되어 마음과 힘을 합하여 적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취하며 상호 친선을 힘써 부인의 일본 정신파악을 함양하고, 및 국가에 대한 존귀한 의무심을 기릅시다.

국방가정(國防家庭), 박순천

먼저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제가 하려고 준비한 말씀을 다하셨으니 재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보약은 재탕도 과히 해롭지는 않을 듯하니 놀러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臨戰)이라고 하는 말은 최근 처음으로 생긴 말이고 이 말은 전쟁이 끝나는 때에는 이 말도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5년간이란 긴 시일을 두고 추운 밤과 더운 날을 헤아리지 않고 생명을 바쳐 싸우고 있는 용사의 덕택으로 오늘까지 우리는 어디서 전쟁을 하는가 하리만큼 안전하고 평안히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머리에 언제나 미안 미안하던 사건은 기어코 벌어졌습니다. 12월 8일 아침 나는 학교에 나올 때 여러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 기분인지는 모르나 분연코 여러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돌고 걸음도 전보다 좀 급하게 걷는 듯 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국민된 자 흥망이 국가에 달린지라 어찌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불안이 있지 일단 일이 일어난 후에는 불안이나 걱정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황군 의 무력을 신임하고 상하 관민이 협력해서 이 난

367) 태평양전쟁을 뜻함.

국을 무난히 돌파할 용력과 방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사는 전장에 나가 적과 싸우고 우리는 다 각각 가정에서 경제와 싸워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아주 국방가정(國防家庭)이란 것을 누구의 가정에서든지 인식하고 역력히 엿볼 수 있습니다. 대도시든 물론 농산어촌 어떠한 곳이던 노소를 막론하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자에 나타나는 임전(臨戰)기분(氣分), 국방시설에서 보는 모든 것으로 충분히 알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자에 있어서는 배급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배급제도는 전쟁국가에 있어서 적절한 제도라고 감복합니다. 혹은 배급제를 귀찮아하시는 일도 있을지 모르나 그야 태평시대에 있어서 맘대로 살 수 있을 때야 상관없을 일이지마는 비상시 국가에 있어서 만일 배급제가 없었다고 하면 공정가격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정에서는 시기를 이용하는 장사꾼에게 돈만 빼앗기고 얻는 것은 적을 것이고 생활에 불안과 곤란이 컸을 것이외다. 그러나 이 배급제로 해서 안심하고 살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공훈련이외다. 처음에는 방공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알면서도 모두 싫어하고 그 모양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치마를 벗은 부인들은 눈에 좀 보기 서툴렀고 보는 사람은 웃고 보이는 사람은 부끄러워했으나 이제는 방공복을 입고 자기 집과 이웃을 지키는 우리 가정부인들이야말로 출정군인과 같이 당당하게 뽐내고 있습니다. 또 일반도 이제는 국방가정훈련이란 것을 자각한 까닭에 피차 조금도 어색함이 없고 간편하고 만일의 경우 유사시에는 그간 닦아온 방공훈련으로 해서 내 가정은 물론, 우리 이웃까지 안전할 것이며 어떠한 때 적의 내습이 있더라도 우리 가정부인들은 용감히 오려면 오너라 하는 기세와 용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 방공연습이 시작될 때 어떤 친구 집 마누라의 말이 어제 저녁에는 나가니 '이찌니'를 하라더니 오늘은 또 '고찌니'를 하라고 하더라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일 전 어떤 학교 여학생들의 방공연습을 보았습니다. 하도 민첩하고 규율적인 훈련을 보고 정말 안심하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급속도로 진보된 것에 감복했습니다. 가르침의 힘 모든 지도의 힘 모두가 이 비상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기를 이용합시다.

국방가(國防家)에 있어서 누습과 폐풍을 버리고 종래 생활에 혁명을 일으켜 봅시다.

첫째 늦잠 자는 병을 고칩시다. 10시 11시까지 자는 잠을 절약해서 아침 6시로 해봅시다. 제집에서는 10면 열두 식구가 일제히 일어나 들썩거리고 먼지를 털고 하는 통에 더 자고 싶은 사람은 누워있을 곳이 없어도 누워 자지 못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식사는 상하가 다 같은 시간에 한자리에서 해봅시다. 식모고 침모고, 다 한자리에서 하며, 식사시간에까지 인간의 차별을 맙시다. 이런 것이 국방가정에 첫째 취할 일이어외다. 식사가 끝나지 않으면 일의 능률이나 정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야 집안 다른 일도 손쉽게 정돈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식구가 제 일은 제 손으로 좀 합시다.

방청소도 식모, 세수물도 식모,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제 일 제가 하는 습관을 기릅시다. 우리는 자녀 교육에도 물론 제 일 제가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당한 노동이 필요합니다. 남만 시키고 먹기는 기름진 것을 비교적 많이 취하기 까닭에 비만증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누울 병이 많이 생깁니다. 누울래야 누울 째미 없고 죽으려야 여가가 없어 못 죽는 방법을 취합시다. 분주하고 바쁘게 일하는 그리고 남편양반이 늦잠 자는 버릇이 있거든 주부가 돌아다니면서 먼지털이 먼지를 털어보십시오. 불평을 말하거든 비상시에 그런 버릇 안 된다하시고 그래도 안 되거든 애국반장

에게 말해서 애국반장이 가서 먼지털이로 털도록 하시고 남편된 이들도 옷을 찾아 입는 것, 자기 이부 자리쯤은 다 자기 손으로 하도록 하시오.

이 시기에 그 병 안 고치면 죽도록 못 고칩니다.

또 한 가지는 의복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있는 것으로 평정될 때까지 빨아 입읍시다. 전에는 신조업(新造業)으로 하던 행세를 이제는 빨아 입은 옷으로 행세를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유난한 화장이라든지 찬란한 의복은 자각한 가정에서는 신중한 자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변 전과 사변 후와 놀라우리만큼 달라졌습니다. 질소하고 야릇한 화장 여러 방면에서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간혹 미안한 차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은 마치 잔치 집 가서 통곡하고, 초상집 가서 웃고 좋아하는 몰상식자로 남이 흥분 겁니다. 하루라도 일찍 자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식량을 절약하시고 길거리에 미신적으로 미역국에 밥 끓여다 버리는 것 아껴두시고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대단히 보기 흉하고 아까운 일입니다. 밥 한 알에 농민의 땀이 몇 방울이나 얹힌 것을 아신다면 엄동(嚴冬)에 먹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하늘이 두려워 감히 그런 일은 못 하실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종합한다면 생활 전체를 간단히 하자고 하는 것이며, 둘째는 식량을 절약할 것, 각 가정에서 모든 물자를 활용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방심마시고 마음의 무장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뛰어 나가도 과물과 불이 어디 있는 것을 정신 차리시고 경거망동 마시고 불이 떨어져도 불을 때 까지는 시간 여유 있사오니 냉정하고 침착히 국방가정의 사명을 지킵시다. 성전 5년간 근본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나라에 빼앗긴 인권과 국토권을 회복시키고 공존공영의 동양평화를 위하여는 대동아의 건설을 목적인 것이외다. 정의를 위함에는 패할 리 만무하겠지요, 냉정하시고 자중하셔서 국방가정을 알뜰히 지키시며 태평만년 있으시기를 빌고 기다립니다. 인간생활은 전쟁이올시다. 가정도 전쟁입니다. 인간 모두가 다 병정입니다. (끝)

총후부인의 각오, 허하백

여러분은 누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과거 4년간 계속해 온 지나사변(支那事變)³⁶⁸이 아직 끝나치지 않은 때에 또 미영 양국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미는 인구에 비하여 세계적으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동양에까지 손을 뻗치지 않을지라도 좋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극단의 개인주의사상으로부터 출래한 사리사복(私利私腹) 정책은 우리 황색인종에 대하여 심한 압박을 거듭하여 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무적황군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중대한 결심을 굳게 한 결과, 이야말로 실로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성전이라는 기장(旗幟) 밑에서 미영 양국에 대하여 포문을 연 것이 지난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 이래, 여러분도 신문에서, 혹은 라디오 뉴스를 통하여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황

368) 중일전쟁을 뜻함.

군은 이르는 곳에서 적군을 격멸시켜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들 총후의 부인도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는 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변변치 못한 저까지도 이 자리에 연사의 한 사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과거에 있어서도 매우 총후의 노력을 하여왔었지만 이번은 그러한 미지근한 생각으로 써가 아니고 가장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서는 안될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하는 것을 이로부터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하고자 합니다.

1. 건전한 사상

첫째, 건전한 사상을 가져야 할 터인데, 이에 있어서 우선 우리는 경신존황(敬神尊皇)의 염(念)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궁성요배와 신사참배는 물론, 신사 앞을 지날 때에는 경례할 일과, 애국일의 실행 등, 이리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을 발휘할 일입니다.

과거에 가졌던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나라를 위해서 만이라는 국가주의의 사상을 파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 셋 들면 우리들이 식사를 하는 것일지도 자기 한 개인의 생명 지지(支持)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를 먹고 힘을 내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 밑에서 식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있어서도 훌륭히 양육하여 나라를 위해 유용한 인물이 되도록 힘쓰는 헌신적 정신이야말로 일본정신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지 못했다면 참된 황국신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국가 제일주의의 사상이야말로 건전한 사상이며, 국민 각자가 통일적으로 이 사상을 가져서 비로소 일심이 되어 이 전쟁을 훌륭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2. 감사위문

제일선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고 싸워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그 고생을 감수하고만 있을 것이니까. 배급을 좀 적게 받는다고 불평을 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금일 이처럼 행복스럽게 생활하는 것은 제일선에서 생사를 상관하지 않고 싸워준 용감한 장병의 덕택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때는 실로 눈물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말할 것이 아니고 항상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출정군인에게 선물을 보내어 위로할 일. ② 전쟁에서 명예의 부상을 받은 장병에게는 하루라도 속히 치료를 받게 하여 갱생(更生)의 길을 견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할 일. ③ 전사 장병의 유가족에게는 물심 양력면으로 도와서 고락을 함께 할 일.

3. 자원애호(消費節約)

소비절약은 우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극히 손 가까운 것에서부터 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무 한 개나 감자 한 개라도 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매우 적은 것이라도 이를 버리는 일이 없이, 모든 물자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현대의 전쟁은 경제전과 총력전에서 비로소 승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를 안다면 아무리 보잘것없

는 물건일지라도 반드시 그 용도를 잘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이러한 태도를 결여했다고 하면 현대 국가의 국민된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역설하여 줄 것은 지난 해 사치품금지령이 발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연하게 지환(指環³⁶⁹)을 끼고 네거리로 활보하는 여성을 보게 될 때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컨대, 충후부인이라는 자각을 가졌다면 이 시기에 일체 이와 같은 사치를 격멸하시기를 바랍니다.

4. 폐물 이용과 재생

이 점은 특히 우리 반도인 가정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의 문제와 관련시켜서 말한다고 하면 우선 폐품이라는 것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군수 관계의 물품은 사용금지 할 것, 물품을 많이 사들이려고 매점(買占)하지 말 것 등입니다.

매월 애국일에 각 정회(町會)에서 폐물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폐품이 생기게 되면 잘 모아두었다가 그 기회에 잘 이용시키도록 힘써시다.

우리들은, 이 전쟁이 아무리 오래 계속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산출되는 물자로서 건디어 나가야만 된다는 각오를 가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들의 각오여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생활이 다소 사변(事變) 전보다 불편이 있다고 해서 드디어 일본은 물자가 부족해서 곤란을 받고 있다고 혹 생각하실지 모르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산이 증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사변 전까지는 물품을 귀중히 여기던 생각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버려두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절약하여 두기 때문입니다. 못, 통조림 빈통, 종이 조각 등등을...

이것으로 보아도 일심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알 것입니다.

5. 근로봉사(勤勞奉仕)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때까지의 우리 반도부인은 고용인을 많이 두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이 뿌리 깊은 전통적인 생각은 소위 지식계급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사람의 힘과 물질의 힘을 모아서 대동아 공영권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이때에 그러한 허영심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적 가풍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우리 부인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래부터 어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는 별문제로 치겠으나, 타인에게 부역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첫째 가족보전에 있어서 위험하며, 둘째로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부된 자는 모름지기 부역으로 혹은 시장으로, 그뿐만 아니라 주부로 내직을 가질 것과, 여자도 물품을 쓰는 자만되지 말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어서는 가정을 가지고는 일한다는 것은 한 수치와 같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관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일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충후의 부인으로서의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

369) 가락지. 반지.

다면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노는 일 없이 일하는 것을 한 개의 자랑으로 삼읍시다.

6. 저축장려

이상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모든 낭비를 막고 매일 1전이나 10전이라도 모아서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는 격언도 있으나, 이것도 자기 혼자만 실행하고 이웃이 실행하지 않는다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한다면 한 사람이 매일 10전씩 1만 사람이면 1천 원이 됩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요리집에 가서 하룻밤에 2천 원을 낭비했다고 가정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들은 자기가 실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함께 이렇게 하여 전 국민이 모두 실행하지 않으면 국채(國債)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학교의 예를 들어 말씀하면 지난 12월 8일 미영에 선전한 날에 2천원을 육해군에 현금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직원과 생도들이 함께 내어 놓은 돈일지라도 여학교로서는 거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아놓으니까 거액이 되었지만 각 사람대로 나눠서 소용했다면 거금이 될 수 없습니다. 생도로부터는 매월 20전씩 직원으로부터는 월급에서 1원씩 떼어 낸 것입니다. 우리학교에서는 매년 이와 같이 하여 이 전쟁이 계속되기까지는 2천 원씩 현금하기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에서 불과합니다. 우리들은 각 가정에 있어서도 혹은 애국반에 있어서도 부인의 각오에 의하여 가장 많은 저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컨대 여러분 각자가 서로서로 실행 있기를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여성도 전사다, 모운숙

경성에 부민관이 생겨서 반도의 부인만이 이처럼 많이 모인 광경은 처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 오늘이란 이때는 남자에게는 물론이고 여자에게도 무슨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나 기르고 시부모 공경이나 잘 했으면 부녀자로서의 할 일은 다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하고 전에 없던 생활의 새 강령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고요한 여러분의 세계가 일조(一朝)에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상의 변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여러분의 일이 대외적으로 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얌전하고 사양심 많고 수줍어서 아름다웠던 우리의 전통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않고는 우리가 지금 하려는 큰일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불가 부득이 이 미덕이라고 일컫던 과거의 상아탑을 깨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반도부인에게 큰 변이 일어난 셈입니다. 큰 어려움이 생긴 셈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면 이런 변이 생긴 까닭으로 해서 이 시대에는 우리 반도부인은 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새 세계의 정문 앞에 모여선 우리이기 때문에 아니 새 세기를 창조할 기둥이 되어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과거 몇 천 년을

살아온 반도부인보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괴로움이 없는 곳에 낙(樂)이라는 것이 없는 법이고 곤란한 역사의 과정을 짓지 않고는 인류의 향상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새로운 생명의 계단에 오르려는 한 국민들은 껌질을 벗어 던지고 새 세계를 창조하려는 과정에 있어서 피치 못할 진통입니다. 군세계 살려는 인류의 의지의 발로입니다. 우리 대 일본제국은 지금 이 의지에 불타고 있습니다. 옳은 세계에 인류를 인도하려는 정의심에서 창검을 빼어들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전쟁일수록 국민전체가 손을 맞잡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은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라면 먼저 결승선에 들어간 사람 즉 선수자신이 골(goal)을 뚫으면 최후의 승리는 오는 것입니다. 많은 전쟁에 있어서는 적군의 성벽을 깨어뜨린 것만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어머니가 아내가 정신을 차려 나라 안의 살림을 못해주면 피땀을 흘려 정복해 놓은 전과가 수포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황군(皇軍)은 지금 태평양상에 여러 섬을 무찌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제일선에서 싸우는 훌륭한 전투원을 가진 국민입니다. 생명 그 자체를 폭탄 대신으로 떨어뜨리는 용감無比(無比)의 병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용감은 제일선에 선 병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도나도 국민의 피와 뼈를 가진 사람이면 이 기혼(氣魂)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은 결단코 무력만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최고의 군수품을 쌓아두는 세계의 창고입니다. 훌륭한 비행기 역센 군함 많기로 세계에 어깨를 견줄 자가 없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못 쓰는 좋은 군수품 재료를 가지고 온갖 장식을 다해서 세계에 자궁을 느끼던 미국이기에 얼마나 그 힘이 큰가했습니다. 몇 만 톤 몇 천 톤의 군함 만드는 재주, 수 없는 비행기의 조종술은 잘 발달되었다면서 어쩌서 태평양상에 솟은 적은 섬들의 하나를 지킬만한 병사 한 사람은 가지지를 못했느냐 말입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 안에 한 사람의 정의의 병사가 있었던들 대영국의 자만을 채워주던 그 큰 군함이 넘나드는 큰 물결의 비웃음은 안 받았을 것입니다. 허울 좋은 무력, 허울 좋은 부귀, 힘없는 그들의 문화, 다 부럽지 않습니다.

저 훌륭하다는 적군함 가운데에는 응당 몇 백 년 묵은 술의 창고가 있었을게고 병사의 침실마다에는 피곤한 낭만의 꿈이 그대로 영켜 있었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개인주의 찰나주의 이기주의인 생물학적 인생관에서 자멸을 공작하는 동안 아시아 한 모퉁이에서는 전체주의의 햇불을 들고 그들의 사상에서 혹은 그들의 정치 밑에서 신음하는 황인종을 구하러 나선 것입니다. 향료의 나라 음악의 나라 영화의 나라 청춘의 나라 기계의 나라 돈의 나라 이 모든 조건을 가지고 우리 동양의 청춘남녀를 얼마나 유혹했습니까? 아니 우리 반도여성들은 얼마나 그 모든 조건을 구비한 나라에 동경을 가졌습니까?

이번에 영미국의 죄상을 듣고 알고 보니까 참으로 황인종으로서 견디지 못할 괴롭고 분한 일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이 사탄에 정체(正體)에 같이 춤추는 여자가 한분 동양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 장개석의 부인 송미령입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된 셈인지 동양여성이면서 미국 발바닥을 훑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변태여성입니다. 미국의 온갖 향락성, 개인주의 관념에 잔뜩 물이 먹은 이 여자는 그 생활이 말 못하게 향락적입니다. 송미령의 양말 한 켤레 값이 70원이라면 여러분께서는 놀라시겠지요? 미국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온갖 망령된 사상을 추려서는 남편인 장개석의 머리에 붙여넣어 줍니다. 미

련하고 둔한 장개석은 송미령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진퇴유곡에서 장기(長期)의 신임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이 동양에 있어 사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같은 동양여성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슴에 대화혼(大和魂)의 무형(無形)의 창검을 가져야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번식해 가던 향락주의 개인주의 그릇된 문화의 사다리가 한 층계 두 층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그릇된 정신을 청산시키는 힘은 대 아시아로부터 대일본제국으로부터 싸움 뒤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아내로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남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님놀음 그만하시고, 아씨 새댁놀음 그만하시고, 거름통이라도 달게 메고 나갑시다. 군대에게 승부가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새 동야의 전쟁은 우리 여성에게 그 승부가 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여러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생산은 남자가 하고 소비는 여자가 한다는 일은 한가한 평상시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나 아씨나 마님이나 양반이나 상인이나 가문 문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대일본제국의 평등한 국민이면 그만입니다. 가문에서 쫓겨나더라도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 아내 며느리가 됩시다. 전쟁에 나간 남자들을 대신하여 공장이 비었으면 공장으로 회사가 비었으면 회사로 들어가서 일합시다. 제1차 대전 때에 독일부인 기자요 또 유명한 켄트루 드바우멜이라는 이의 전시부인들의 보고를 보면 어떤 공장에서는 한 개의 80봉도(封度)³⁷⁰되는 무거운 폭탄을 한 여자가 매일 35,6개씩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하려고 하면 못할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의(義)를 위해 버린다는 데야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신념만 있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모두가 일합시다. 비행기 공부도 하고 잠항정³⁷¹ 부리는 공부도 합시다. 비행기나 잠항정을 못하게 말리는 분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들입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하겠다고 하거든 내버려두십시오. 국가비상시를 위해서는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허영심에서가 아니라 여자 비행사도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만류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어머니는 자기 딸 한 사람의 어머니요, 한 나라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을 방해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옛날 프랑스에서는 오를레앙의 소녀 하나가 피를 흘려 나라를 구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는 나이팅게일 한 여자만이 전선에 나가 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전쟁에는 한 사람의 잔다르크, 한 사람의 나이팅게일만 가지고는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이 아니 반도 1,200만 모두가 오를레앙 소녀의 뜨거운 조국애에 울어야겠고 반도 1,200만이 죄다 나이팅게일의 뜨거운 여성혼을 담아가지고 전쟁마당에 나가야겠습니다.

새 아시아의 탑을 쌓는데 흙 한 줌이라도 갔다가 보태면서 물 한통이라도 길어다 부으면서 우리는 높이 펴려이는 일장기 밑으로 모입니다. 쌀도, 나무도, 옷도 다 아끼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아끼십시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만은 아끼지 맙시다. 아들의 생명 남편의 생명 다 바치고 나서 우리 여성마저 나오라 하거든 생명을 폭탄으로 바꿔 전쟁마당에 쓸모 있게 던집니다. 이제부터 행복의 노예

370) 영국에서 쓰는 무게 단위인 파운드를 뜻함.

371) 잠수정. 항해 속도가 빠른 소형의 잠수함을 뜻함.

가 되지 말고 행복을 창조하는 창조자가 됩시다. 그래서 저 대영제국의 여자여 네 이름은 약한자다 하는 표어에서 벗어나 강한 여성은 아시아로부터라는 새 불멸의 문구를 인류사회에 남겨놓고 갑시다. (박수)

군국(君國)의 어머니, 최정희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더구나 연설은 더 못합니다. 그래서 연설은 하지 못하고 짤막한 이야기 한마디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파리 한 마리 죽이지 못하는 모질지 못한 여자올시다. 꽃을 사랑하는 것도 너불너불 큼직한 것은 못 사랑하고, 저, 하루아침 모진 서릿발이면 쓰러질 들국화 같은 보잘 것 없는 꽃을 사랑합니다. 크고 너불너불한 꽃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 힘에 부처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연약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은 증명됩니다.

그러나 저는 요새 와서 점점 강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도무지 연약하지 않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불이라도 삼키고 내쏘는 탄환이라도 능히 받을만한 용기와 자신과 신념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제가 용기와 자신과 신념을 가지려는 노력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나사변(支那事變)³⁷²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미영전(日米英戰)³⁷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가르침도 아니고 어느 스승의 타 이름도 아닙니다. 제 아이올시다. 국민 학교 3학년애 다니는 열 살 먹은 아이올시다.

이 아이는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어하다가도 궁성요배 싸이렌이 들리기만 하면 벼락같이 벌떡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 엄숙히 허리를 굽이고 엎드립니다. 또 천황폐하께서나 이런 높으신 이들의 존영(尊影)이 실린 신문 앞에선 반드시 자세를 고치고 머리를 숙입니다. 또 뉴스 영화관에 가서 전쟁 뉴스에 황군이 만세 부르는 장면이 나오면 자기도 같이 만세를 부릅니다. 또 흑시 화면에 높으신 이가 나타나시면 모자만 벗는 것이 아니고 자세를 똑바로 하고 일어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이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엄마는 왜 안하느냐 엄마도 같이하자”고 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올시다 마는 저는 처음 얼마 동안은 아이 말대로 못 했습니다. 갑자기 더구나 여러 사람들 있는데서 그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이 하는 짓을 말려본 적은 없습니다. 점점 아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바른길 광명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올시다.

아이는 어느 날

“엄마 내가 전쟁에 나가 죽으면 울테야?” 하고 물었습니다. 돌연한 이 물음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요 옳은 길이라 알면서도 꼭 하나밖에 없는 아이!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는 제게 있어서는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인 아이올시다. “죽는다”는 이 말엔 놀라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안 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어리병병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는 다시 “엄만 틀렸어”하고 낙망(落望)하는 얼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틀린

372) 중일전쟁을 뜻함.

373) 태평양전쟁을 뜻함.

엄마였습니다. 아이의 말에서 저는 다시 저를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엄마를 불만해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지 않을 테야 좋은 일하고 죽는데 왜 울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대답에 신이 났는지,

“요시, 그럼 엄마 ‘내 아이야 강해졌구나’라고 노래불러주지” 하며 이번엔 금방 전장에라도 내달리려는 듯이 팔을 부르거두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아이를 더 꼭 껴안으며,

“노래만할까, 엄마 네가 전쟁에 가서 죽는다면 춤을 추겠어” 하고 참으로 아이와 똑같은 빛나는 얼굴 빛을 아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통 제 아이의 자랑만 같습시다마는 저는 결코 제 아이 이야기에서만 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우리아이 제 아이 이야기가 즉 여기 오신 여러분의 아이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하늘 아래도 닿을만한 높은 기개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높은 기개와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 왔습니다. 남을 위해서 산다는,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높고 귀한 사상을 오랫동안 파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작은 생명들이 제2세대들이 새싹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꺾어 버려서야 옳겠습니까. 분질러 버려야 옳겠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밤마다 북돋아 주고 길러줘야 합니다. 바른 길을 찾는 그들을 위해서, 광명을 찾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이라도 닿을만한 높고 귀한 정신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오직 제 한 몸을 나라에 바치겠다는 일념에서 사는 그들을 북돋아주고 길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따라서 또 신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귀하고도 높은 오직 우리의 아들들의 뜻을 받드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신의 뜻을 받드는 여자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 같은 여자구실을 할 것이요 그래야만 우리도 남과 같은 어머니의 구실을 할 것입니다. 온 세상, 푸른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러나서 자기의 아들들을 나라에 맡기는데 우리라고 못 바칠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못해서 남이 하는 대로 못합니까. 눈이 없습니까. 코가 분질러졌습니까. 똑같은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못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제발 부디, “엄마 틀렸어”라는 말을 여러분의 아들한테서 듣지 않는 강한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을 여러분 앞에 맹세합니다. 신 앞에 맹세합니다. 여성은 약하다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하지 않습니다. (박수)

<출전: 金活蘭 任孝貞 任淑宰 朴順天 許河伯 毛允淑 崔貞熙 「半島指導層婦人の 決戰報國의 大獅子吼!!!」, 『大東亞』 第14卷 第3號, 1942년 3월, 94~118쪽>

10) 일어서라! 부인들! 가정도 전시동원이다, 27일 임전보국단 부인대회

동아 10억의 공존공영을 목표로 하는 태평양전쟁은 서전(緒戰)에서부터 무적황군의 혁혁한 전첩으로 미영 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으나 자원이 풍부한 그들은 반드시 장기전을 꺾하여 경제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노리고 있으므로 우리 총후국민은 모두 □□의 단결력을 가지고 '경제전사(經濟戰士)'가 되어 최후의 영광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전에 승리하는 첩경은 한집 한집마다 전시생활을 실천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물자를 아끼고 생활비를 절약하여 1전이라도 많이 절약하여 가지고 국방가정(國防家庭)을 건설하여 여기에 주부의 역할은 비상히 큰 것이 있다. 부인의 전장은 실로 가정 안에 있는 것이다. 소비자로서의 부인은 생산자로서의 명예를 확보할 것을 국가가 요청하고 있는 오늘이다. 부인들이여! 일어서라! 임전보국단(臨戰報國團)에서는 반도부인들의 전시동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사 후원으로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시내 부민관 대강당에서 부인단원과 남자 단원의 부인을 소집하여 부인 대회를 열고

1. 전시하 생활 쇄신 운동 2. 군사자재 헌납운동의 2대 운동을 □□로서 채택하여 널리 전부 □□의 협력을 □□고 이어 그날 밤 6시 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부인결전대연설회(婦人決戰大演說會)를 열고 부인 연사들이 등단하여 동성(同姓)의 시국인식을 높이기로 되었는데 한 분이라도 많이 듣고 국방가정을 건설하기 바라는 바이다. □□의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이하 6줄 판독불가)

〈출전: 「일어서라! 婦人들! 家庭도 戰時動員이다, 二十七日 臨戰報國團婦人大會」, 『매일신보』, 1941년 12월 24일〉

11) 부인대 주최 좌담회(1~2)

11-1)

임전보국단 부인대 주최 좌담회 1 -군국의 새어머니 될 우리의 감격과 포부

임효정(林孝貞) : 오늘 바쁘신데 이처럼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5월 9일에 징병제가 실시가 공포된 후로 새로운 감격이 반도 산하에 넘칩니다. 우리는 다만 감격하는 태도에서만 만족하겠느냐? 감격한 것만으로 우리의 책임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고 스스로 물어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천 4백만의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더욱이 어머니가 되어있는 우리들의 가슴은 크나큰 책임감에 불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 모인 것은 감격의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황국의 아들을 길러내는 부끄럽지 않은 어머니 노릇을 하겠느냐 하는데 대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의논하자는 것입니다.

김윤정(金允禎) :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네 아들은 지금까지 완전한 군인 노릇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조선에도 이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본

위 개인주의적 입장에서 길러내는 아들을 한 나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아이들 버릇이라든지 가정교육에 대한 태도를 종래와 달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 받은 교육을 실행해야 할 장소 즉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아무 효과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학교에 가서 배워 가지고 오는 아이들 보다 집에 있는 그 어머니가 그 교육 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자기 아들이니 딸보다 떨어지는 교양적 도를 가진 어머니라면 좋은 아들을 길러내지 못할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머니들의 교양을 우리가 받들고 고쳐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부인들은 순하고 솔직한 것이 그 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잘 계몽만 시키면 내지 어머니를 못지않은 훌륭한 어머니가 될 줄 압니다.

임효정(林孝貞) :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 방침으로 김윤정씨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김윤정(金允禎) : 일본 신민이면서 국어³⁷⁴⁾를 모른다면 첫째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 의견 같아서는 국민 학교에 의탁을 해서 1주간 몇 번씩 오후에 두어 시간을 내서 국어 강습회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도 일본식 훈련을 시켜서 앓는 법 같은 것도 잘 연습을 시켰으면 합니다.

박마리아(朴瑪利亞) : 앓는 법도 고쳐야 할까요.

김윤정 : 그럼요 안□□□에도 정신을 통일하는데 큰 관계가 됩니다.

임효정 : 박인덕 씨 말씀하시지요

박인덕(朴仁德) : 지금 김윤정 씨 말씀도 매우 좋습니다. 저더러도 한 마디 제공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선 어머니들께 징병제의 의미를 똑똑히 설명해 알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은 징병제가 실시된다니까 마음속으로 기뻐하지만 징병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어머니들은 그저 아들이 커서 전쟁에 나가 죽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 딱합니다. 병정이 되는 것도 일종의 학교훈련입니다. 제일 강한 청년이 병정이 되는 게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 취지를 철저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임효정 : 차사백 씨 말씀해 주십시오.

출석자

김윤정(金允禎), 서은숙(徐恩淑), 박인덕(朴仁德) 차사백(車士白) 임숙재(任淑宰), 허하백(許河伯) 홍승원(洪承媛), 최희경(崔熙卿) 박마리아(朴瑪利亞) 고헌경(高鳳京) 최정희(崔貞熙) 임효정(林孝貞) 노천명(盧天命) 김선(金善) 모운숙(毛允淑)

일시 : 5월 25일 오후 7시

장소 : □□□□□□□□

<출전: 『臨戰報國團婦人隊主催座談會 1—군국의새어머니될 우리의감격과포부』, 『매일신보』, 1942년 5월 31일>

374) 일본어를 뜻함.

11-2)

임전보국단 부인대 주최 좌담회 2 -자장가 들릴 때에도 충군애국의 뜻 담아

차사백(車士白) : 방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들 말씀해주셔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아이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국어보급 문제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조선 아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 건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유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착착 실행해 나갈 방침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윤숙(毛允淑) : 차 선생님은 어린이 교육에 많이 힘써 오셨으니깐 잘 아시지만 이들을 먼저 어떤 방법으로 지도해야 할지 그 구체적 방법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차사백 :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린이의 습관 □성을 연구하는 회를 하나 조직 했으면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상담소 같은 것을 두고 건강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司會者) : 지금까지는 모자회가 없었지요.

차사백 : 없었으니깐 이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최정희(崔貞熙) : 지금 말씀도 그렇습니다. □□ 우리가 방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국어보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국어보급은 내일부터 우리 부인대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모윤숙 : (이하 3줄 판독불가)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지 뭐하게 할 방법이 문제입니다.

김윤정 : 제 생각 같아서는 각 초등학교에 의뢰를 해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박마리아(朴瑪利亞) : 날마다 잘 모여질까요.

김윤정 : 날마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1주일에 두어 번 모자회를 열어가지고 한 번은 국어 보급 한 번은 모자회를 열었으면 합니다.

임숙재 : 조선부인들은 대개들 바쁘니까 한 두 번 밖에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들도 바쁘니까 잘 해줄지는 모르지요.

최정희 : 그 선생들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끼리 □□□□

홍승원 : 어떻게 시간을 내서 돌아가며 해보지요. 그 의견도 좋습니다만은 내 생각 같아서는 각 가정에 국어 아는 이가 한 두 사람은 있을 터이니까 자기 집 식구를 모아놓고 가르치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각 애국반장이 돌아가며 반원을 모아가지고 가르쳤으면 합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쉬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윤정 : 참 좋은 방법입니다. 애국반원 중에는 회람판 하나 바로 읽지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깐요.

노천명(盧天命) : 저도 그 의견에 찬성입니다. 막연히 떠들어도 국어 보급이 될 수 없으니까.

임숙재 : 애국반 같은 기관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실천해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한다면 순전히 이론만이라거나 또 해로운 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일해일덕은 꼭 있을 줄 알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위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선생이 부족하면 각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을 동원시켜 가르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

생에게 시키도록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아까 홍승원 씨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아이들이 혹시 선생님 되는 경우에 그 어머니나 아주머니 즉 어른들이 이제 제자노릇을 잘 할 듯싶지 않군요.

사회 :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점을 먼저 고쳐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마리아 : 우리 조선 어머니들은 아직 대부분이 자기 아들이 병정이 되는 일을 해득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이 군인 되는 이유와 영광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일 나쁜 것을 도적과 병정이라고 한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관념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처음부터 군인이 얼마나 귀한 몸인가를 잘 가르쳐 가야겠습니다.

고황경 : 저는 어머니가 아니니까 좀 추상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 자신이 먼저 황국신민된 신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장가 속에서도 나라의 관념을 넣어주며 기뻐하면 합니다. 즉 어머니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서은숙 : 저도 동감입니다. 제 생각에도 (□□□□)와 같은 교육을 시켰으면 합니다. 저는 어미는 아닙니다만은 여대 책임은 있으니까 도와 드리려합니다.(□□)

사회 : □□□□를 김윤정 씨가 고치자 했는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김윤정 : 저는 우선 그런 점에서부터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일전 지원병훈련소에 갔을 때 그런 점을 목도하고 와서 그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회 : 다음으로 □□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구미사상이 들어 가지고 자기 본위의 생활을 많이 했지요

고황경 : 조선 여자의 정조사상이 아름답□이 국체의 고귀함□□ 알아서 거기 대한 미담을 잘 알려주면 어떨까요.

허하백 : 죽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이치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지요. 조선에서는 어머니들이 잘 입히고 잘 먹여서 길러야 귀히 기르는 것으로 아는 까닭이거든요. 나라의 보배인 아이이니까 나라를 위한 아이를 길러 내지 못하는 어머니는 참으로 부끄러운 어머니일 것입니다.

김선 : 우리가 말하고 쓰고 해서 신문에 내고 연설을 하고 하자면 이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로 학교 당국이 학부형과 연락을 해서 소학교 교육을 철저히 할 일입니다.

사회 : 예외에 있어서도 일본과 조선은 꼭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이하 1줄 판독불가) 법을 그대로 하시는 사람과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윤숙 : 생활을 그대로 두고는 그대로 하기가 어려운걸요. 그러자면 먼저 생활제도를 그대로 두느냐 고치자느냐가 문제가 된 다음에 □문제가 같은데요.

김선 : 건물이나 □□□가 조선 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임숙재 : 생활과 함께 변하는 것이니까 의식주를 변화기 전에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 가령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예의는 어떤 것일까요?

허하백 : 식사 때에 하는 예의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옷은 얼른 변하지 않아질 것입니다.

홍승원 : 한편 예의 작업도 단점을 고쳐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조선 어머니들이 먼저 충효의 정신을 잘 닦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사회 : 여러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컨대 이제부터는 모두 조선 부인들은 군국의 어머니, 군국의 아내 군국의 여성으로서 완전히 되어야 할 각오와 결의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제부터 모든 것을 살림으로 옮기며 달음박질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보국단부인대에서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는 여러분께서 손수 나와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출석자

김윤정(金允禎) 서은숙(徐恩淑) 박인덕(朴仁德) 차사백(車士白) 임숙재(任淑宰) 허하백(許河伯) 홍승원(洪承媛) 최희경(崔熙卿) 박마리아(朴瑪利亞) 고향경(高鳳京) 최정희(崔貞熙) 임효정(林孝貞) 노천명(盧天命) 김선(金善) 모운숙(毛允淑)

일시 : 5월 25일 오후 7시

장소 : □□□□□□□□

<출전: 『臨濟報國專婦人隊主催座談會 2-자장기들릴새에도 충군애국의뜻담어, 『매일신보』, 1942년 6월 1일>

12) 임전보국단의 발전적 해소

총력연맹의 신발족 따라 임전보국단 발전적 해소, 작일(昨日) 전체역원대회에서 결의

최후의 승리의 저력을 이룰 국민총력의 결집이란 국가적 요청에 의하여 국민총력 여맹은 밑에서부터 뻗쳐오르는 민중의 힘을 충분히 반영할 새로운 구상으로 근근 신발족을 지을 터인데 조선임전보국단에서는 시국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깊이 느끼고 반도 민중과 총력을 한 곳에 결집시켜 그 힘을 최대한 도로 발휘 하여야겠다는 열의와 의도 아래 어제 29일 전체역원대회를 소집하고 이 석상에서 동 단체의 발전적 해소를 단행하고 그대로 연맹에 합류할 바를 결의하였다. 이로써 전선(全鮮) 각지에서 세포적 역할을 하던 동 단체 소속의 각도 지부 부인대 및 각도 지부 소속의 각 기관도 전부 동시에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요, 동 단체 1만 수천의 역원과 단원은 발전적 해소를 단행할 이날부터 총후임무 중차대한 결의를 더욱 굳게 하고 오직 총력연맹을 통하여 태평양전쟁 완수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되었다.

새로운 지표를 바라보고 발전적 해소를 결행하는 조선임전 보국단의 전체 역원회는 어제 29일 오후 4시 반부터 부내 종로 2정목 기독교청년회관대강당에서 열리었다.

이날 막을 닫는 마지막 회합이라 평양·대구·청진·강릉 등 지방 각지에서 지부의 대표자가 상경 참석하였고 본부 측의 가산린(佳山) 단장, 이가끼(井口) 부단장, 기꾸야마(菊山) 이사장을 비롯하여 고원훈(高元勳), 금천성(金川聖), 유억겸(俞億兼), 장덕수(張德秀), 박흥식(朴興植), 임효정(林孝貞) 씨 등

약 40여 역원이 회동하고 신임 야기(入木) 본부 보안과장이 임석한 가운데에 회의는 열리어 먼저 일동 기립하여 경건히 국민의례를 마치고 단장 가산린(佳山麟) 씨로부터 이번 전체 역원 소집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뒤이어 야스교(安興晟煥) 씨의 그동안 사업 보고를 행하고 기꾸야마 이사장으로부터 국민총력 연맹의 기구 개혁에 따라 임전보국단의 발전적 해소와 여맹의 합류에 관한 제안(提案) 설명이 있었는데 이 제안에 대하여 신중 협의한 결과 동 해소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해소 성명서 발표의 건에 대하여 기초위원 3명을 선정하고 즉석에서 별항과 같은 성명문을 작성하여 위원 서춘(徐椿) 씨가 이를 낭독하자 박수로서 초안대로 승인하고 동단체의 사무 정리의 청산위원으로 박흥식(朴興植), 김사연(金思演) 등 5씨를 선출 일임하기로 하고 이상으로서 해소절차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다시 일동 기립하여 황국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고원훈 씨의 발성으로 천황폐하 만세를 봉창한 후 동 오후 5시 50분경 동 대회 마지막 대회는 막을 닫았다. (사진은 임전보국단 해소결의 광경)

성명서

□추(秋) 시국이 더욱 중대함에 비추어 아직 병역의 영예를 잃어짐에 미치지 못한 우리 반도 민중은 충후에서 □분의 성(誠)과 힘(力)을 바쳐 국운의 진전에 기여할 바를 사명으로 본 단체를 결성하고 민간의 자발적 애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래 수만 동지의 공명(共鳴)을 얻어 각도 지부의 조직을 보고 □□적 □□적 또는 노무(勞務)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12월 8일 태평양전쟁의 발발은 국내 정세에 일대 진전을 가져와 □□□□로부터 □□□□에 달하여 남방(南方)의 대전과로서 결전□□는 다시 건설태세와 서로 표리가 되어 병행하게 되었다. 그 위에 금년 5월 8일 저 획기적인 조선징병제의 시행이 발표되어 본단 본래의 취지, 사명에 일단의 진전과 비약이 계획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본단은 정세의 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에 향하여 구상으로서 나왔는데 이때에 종래 자발적이었던 국민총력연맹이 개조되어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열의를 결집한 새로운 총력연맹이 민간단체로서 재발족하려는 데 따라 □□이 □□하는 새로운 구상은 십분 이중에 넘쳐 얻게 되었으므로 본단은 지표를 같이하는 민간운동을 일원화하여 국민의 총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전시하 가장 절실한 국가적 요구인 것이라는 견지에서 이에 발전적 해소를 하여 총력연맹에 합류함으로써 더욱 더 보국(報國)의 성(誠)을 효과 있게 하고자 하는 바이다.

1942년 10월 29일

조선임전보국단

정세 진전에 대응, 민중총력을 일점(一點)에 집결, 가산(佳山) 단장의 해소의 변(辯)

이날 전체 역원회에서 해소결의를 행한 후 가산린(佳山)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번 본단이 해소하게 되는 이유는 성명서에 표명한 바와 같이 현시국하에 제반 정세의 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구상(構想)으로서 나아가려고 하는 때에 총력연맹이 또한 민간단체로서 재출발하기로 되

어 우리들은 국민총력을 일점에 집결하여 그 힘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는 견지에서 이번 해소를 단행하고 연맹에 합류하기로 되었다. 이에 따라 본단 소속의 각도 지부 부인대 및 각도 지부 소속의 각 기관도 전부 해소하게 된다. 본단이 결단되어 충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유감이나 그러나 다소 성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해소된 이후에도 더욱 임전보국단의 정신을 살리어 보국 운동에 매진하고자 하는 바이다. (사진은 가산린 씨)

〈출전: 「總力聯盟의 新發足 さら 臨戰報國團發展的解消-昨日, 全體役員大會에서決議, 情勢進展에 對應 民衆總力을 一點에 集結, 佳山團長の 解消의 辯」, 『매일신보』, 1942년 10월 30일〉

IV.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1.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의 활동상황

법무국 조사

활동상황

조선에서의 사상범죄는 내지와 대략 비슷하여 누년 격증의 추세를 보였지만, 좌익분자의 책동에 대한 엄중한 탄압과 청소년의 사상 선도에 노력한 결과, 1932년 이후는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심 또한 철저한 농산어촌진흥 자력갱생운동과 더불어 차츰 안정되었고, 특히 만주사변 이후 반도 민중은 제국의 부동의 태도 및 국제적 지위를 재확인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일본공산당 거두(巨頭)의 전향에 따른 내지 좌익운동의 붕괴 등 내외 정세는 조선 내의 사상운동에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쳐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이 차츰 계발 배양되었다. 이번 지나사변의 발발에 따라 한편으로는 애국열이 팽배하여 국민적 자각의 양양의 사조에 영향을 주고, 또 한편으로는 황군의 혁혁한 전과(戰果)와 대동아 내지 모든 세계를 지도하는 제국의 확고한 지위를 더욱 현양하는 현실적인 정세는 반도 민중의 심리에도 견고한 잠재력을 품게 하였다. 조선에서 사상범죄 구성의 최대 온상이었던 편협한 민족의식은 현저한 해소의 길로 접어들었고, 전면적 전향의 기운이 초래하여 내선일체 총후보국의 미담과 쾌거가 전 조선 여러 곳에서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1936년 12월 반도에서의 철저한 사상범죄 방퇴(防退)를 도모하기 위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년 제령 제16호)을 제정하여 사상범인에 대한 보호관찰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번 사변을 만났기 때문에, 시국 하에서의 제도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선(全鮮) 보호관찰소를 독려하고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에 아무런 유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이도 지도가 잘 이루어져 보호관찰대상자의 대다수는 시국을 잘 이해하고 국가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에 눈떠 애국의 지정(至情)을 불태우고 있다. 이들 중에는 국방헌금, 군용마 사료채취 작업봉사, 방호단 참가, 출정군인의 환송영, 신사참배, 기타 각종 애국적 총후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속출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현저히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 활동을 통해 그 적성(赤誠)을 피력한지 약 1년 동안, 그들의 사상전향은 더욱 발전 순화(醇化)되었고, 드디어 작년 7월 24일에는 자발적으로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즉 본 연맹 결성의 취지는 조선의 사상범 전향자의 국가총동원운동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사상국방전선에서 활동하여 모든 반(反)국가사상을 파쇄격멸(破碎擊滅)하고 황도정신의 진기양양(振起昂揚)에 노력함과 동시에 이러한 실천 활동을 통해 그들의 자주적 사회복귀를 더욱 촉진시키고자 조선의 모든 사상전향자를 하나로 엮는 강력한 자주적 조직의 형성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처럼 본 연맹은 결성 이후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애국적 총후활동의 강화, 사상국방전선에 적극적 참가 협력, 국책수행에 대한 철저한 봉사, 후진(後進) 전향자의 선도 등의 활동 강령을 내걸고 착착 그 적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지금 본 연맹의 활동상황(1938년 7월 24일부터 1939년 6월 30일까지)을 개관하면, 월간 기관지 『사상보국』(매월 5,000부)을 발행하여 조선의 각 방면 특히 형무소 재소 사상범은 물론 널리 내지 관계 방면,

만주 내의 여러 관계기관 및 전향자 또는 출정중인 전향자 등에게 배포하여 방공사상전의 유력한 문서 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조선 각지에서 열리는 조선방공협회 주최의 방공방첩강습회에 연맹원을 거의 독점적 강사로 파견하여 민중 지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매년 커다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또 방공방첩연극회를 개최하여 연극을 통해 방공사상과 방첩사상의 철저한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권위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일본정신강습회를 개최하거나 가지하라신궁(梶原神宮)¹⁾의 건국봉사수양회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가지하라 정신의 체득 및 그 보급에 힘쓰고, 각종 강연회나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민정신의 양양과 반국가사상의 철저한 격멸에 노력하는 등 사상전에서의 특과대(特科隊)로서의 천부(天賦)의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용산육군병원을 방문하여 부상병위문음악회를 개최하거나 장고봉사건(張鼓峰事件) 직후에는 현지 장병 각위의 분투에 대한 감사의 피력할 길이 없어 현지를 위문하여 위문금을 헌납하고, 조선군을 방문하여 육군기지의 청소작업 및 병기수선작업에 종사하는 근로봉사를 하였다. 더욱이 연맹원 일동은 미약하나마 각출금을 모아 조선군 보도부에 사상전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는 16밀리 활동사진촬영기 및 영사기를 헌납하고, 출정 장병에게 위문품과 위문문을 보내는 등 모든 총후 애국적 활동을 솔선실행하고 있다. 또 대륙국책의 전선에 인접한 전향자 내지 반도 민중 일반의 대륙진출을 원조하기 위한 전제로서 지나어강습회를 개최하고, 국어강습회를 개최하여 국어를 모르는 부녀자나 아동 등에게 국어를 철저히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 국경경비 경찰관의 노고에 감사의 적성(赤誠)을 피력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하여 위문금을 헌납하고, 연맹원 상호간의 인격도야와 생활쇄신 등을 일상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각종 연구회, 강연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반도를 위해 적성을 다함과 동시에 자기완성에 노력함으로써 연맹의 소기 목적 달성을 위해 연맹원 모두가 협력 연대하면서 정말로 눈물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상은 연맹으로서의 개략적인 활동인데, 연맹원 각 개인의 일상생활을 보더라도 모친의 환갑에 즈음하여 모친의 승낙하에 시국을 감안하여 모든 축하행사를 하지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원을 국방헌금으로 각출한 자, 연맹에서 제일선에 황군위문단을 파견하지는 논의가 일어나자 한 연맹원은 변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총후국민의 적성을 피력하여 황군을 격려하려는 마음을 표하고자 두 번에 걸쳐 손가락 끝을 잘라 야양 천에 혈서로 히노마루 및 '사상보국'과 '기원 무운장구'라는 글자를 써서 위문단에게 보내겠다고 출원하는 자도 있었다. 또 어느 지방의 연맹원은 노동을 대신하고자 국가사회에 대한 봉사의 일환으로 국어강습 야학의 강사를 무보수로 자원하였고, 그의 열성적인 지도에 대한 부락민의 절대적인 감격으로 청강 희망자는 연일 격증하여 그 수가 벌써 232명에 달하였다. 이를 3반으로 나누어 강습했지만 여전히 격증하는 희망자를 수용할 공간이 없어 이를 거절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연맹원 각 개인의 미담은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예전에는 궤격사상(詭激思想)에 사로잡혀 국가사회에 반역하던 그들이 이렇게도 강력하고 현저히 과거의 오류를 청산하고 적극적으로 총량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기완성과 사회봉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반도 사상사에서 정말로 획기적인 현상이다. 더구나 지금 이들 조선의 사상범 전향자 등의 적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일익 국민의 흔들리지 않는 결속과 그 총후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1) 소위 일본 제1대 천황의 무덤이 있는 곳.

견고한 체제를 수립한 것은 방가(邦家)를 위해서도 경축해마지 않는 바이다.

본 연맹은 결성 이후 얼마 되지 않아 7개소에 이르는 각 관찰소 소관 구역마다 지부를 설치하였고, 지부에는 관내의 부, 군 등을 단위로 분회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그 활동은 앞으로도 더욱 무성해질 것이다. 전선 보호관찰소를 독려하여 이를 지도함에 있어 어떠한 유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현세(1939년 6월 30일 현재)

지부명	가맹원 수	소속 분회 수	소속 분회명
경성	372	2	인천, 수원
함흥	368	4	양양, 강릉, 삼척, 통천
청진	253	2	청진, 중성
평양	173	2	해주, 진남포
신의주	240	7	선천, 정주, 영변, 강계, 초산, 삭주, 의주
대구	158	9	진주, 하동, 예천, 위덕, 부산, 봉화, 김해, 영주, 김천
광주	455	14	장성, 순천, 여수, 해남, 목포, 영광, 진도, 완도, 장흥, 영암, 강진, 광양, 전주, 군산
계	2,018	40	

연맹원 헌금인원 및 헌금액

지부명	금액	연인원	비고
경성	635.64	298	
함흥	280.44	445	
청진	493.32	316	
평양	349.25	402	
신의주	2,503.18	264	금액 중 1,293.50원(12명)은 비행기 헌납기금으로 각출한 것
대구	468.14	298	
광주	346.86	276	
계	5,076.83	2,299	금액 중 815원은 16미리 영사기 및 촬영기 헌납대금

〈부록〉

선언

우리 일본제국은 지금 두 가지 세계사적 임무에 당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본정신을 발양하여 동양문화의 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구미파(歐美派)의 파괴적인 사상관념 등으로부터 모든 동양의 민중을 문화적으로 해방 방어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을 통해 일본, 만주, 지나 등이 하나가 되는 신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열국의 침략적 쟁탈전을 배제 근절하는 것이다. 이

렇게 동양만이 아니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바이다. 청일, 러일전쟁을 비롯해 이번 지나사변의 결정적 수행 등은 그 현현(顯現)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일본은 세계열강의 면전에 당당히 정의의 군대를 내보내고 있다. 정의 앞에는 적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제국이 이러한 역사적인 중대 사명을 다하고자 성전을 개시한지 1년여, 삭북(朔北)의 변토(邊土)와 남지(南支)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군대기(旭旗)를 빛내고 있다. 한편 북지(北支)와 중지(中支)의 신정권은 서로 호응하여 궤기함으로써 세계적인 성업에 참가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또 향후 문화적으로도 동양 옹호를 위해 눈부시게 분투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국민은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거국일치의 체제를 더욱 강고히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전쟁은 단순한 무력전이 아니다. 정치전, 경제전 특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쟁이 각각 그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총동원, 국민정신총동원 등 시국대응의 시책은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극히 적절한 철혈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단호한 결의로 이 국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위선양과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국체관념의 명징,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응소자 유가족의 구원, 생업보국, 근검절약, 근로보국 등에 적성을 다하여 난국을 극복함으로써 제국 백년의 대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 임무의 완성은 국민 전체가 각기 그 소속 부문(部面)에 대응하여 각자의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하여 그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사상적 오류에서 탈각하고 관념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자기청산의 빛나는 명예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 전체적인 보다 높은 활동분야와 천부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각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소극적인 자기청산으로부터 적극적인 자기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선일체의 희구는 이미 그 결실을 맺었고, 시국대응의 국민운동은 그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또한 국가총동원운동에 헌신봉사하고, 특히 사상 국방의 특수적 전야(戰野)에서 우리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상 국방의 영예스러운 전사로서 임명하고, 과거의 경험과 실천능력을 이에 바침으로써 반(反)국가사상을 파쇄격멸(破碎擊滅)하고 황도정신의 진기양양(振起昂揚)에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를 계기로 연맹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재훈련과 재도야를 도모하고 일본정신의 파악, 내선일체의 강화, 사상의 정화, 품성의 연마, 생활의 쇄신 등을 전 조선 전향자의 부단의 실천적 과제로 삼아 더욱 결속을 강고히 하고 그 목적 수행에 매진할 것을 맹세한다.

결의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에 힘쓰고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를 기약한다.

하나. 우리는 사상보국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 격멸하는 육탄적 전사이기를 기약한다.

하나. 우리는 국책수행에 철저히 봉사하고 애국적 충후 활동의 강화 철저를 기약한다.

위를 결의한다.

연맹규약

제1조 본 연맹은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보호관찰소 안에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조선에 재주하는 사상관계자로 본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3조 본 연맹은 전 조선 전향자의 비상시국 하에서의 국가총동원운동을 강화 확충하고, 반국가사상을 파쇄 격멸하여 황도정신의 진기양양에 힘쓰고 더불어 그 자주적 사회복귀의 축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연맹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2. 애국적 총후 활동의 강화
3. 사상국방전선에의 적극적 참가 협력
4. 사상선도 단체와 연락 협조
5. 국책수행에 철저적 봉사
6. 대륙국책의 전선에 인접한 전향자의 통전□□원조
7. 전향자의 생활 확립 및 근로봉사
8. 후진(後進) 전향자의 유액(誘掖) 선도
9. 전향자의 상호부조 친목

제5조 본 연맹에 고문 및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총무 1명
3. 총무차장 1명
4. 간사 약간 명

제6조 고문은 본 연맹의 중요사항에 대해 총무의 자문에 응한다.

총무는 본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리한다.

총무차장은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본 연맹의 상무(常務)를 장리(掌理)한다.

제7조 고문은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총무는 본 연맹대회에서 추천한다.

총무차장은 경성보호관찰소장 직에 있는 자로 한다.

간사는 본 연맹대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다음 번 통상대회까지로 한다.

단, 간사 가운데 2명은 경성보호관찰소 보호국 직에 있는 자 및 동 관찰소 서기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한다.

제8조 본 연맹의 통상대회는 매년 1회 총무가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본 연맹에 필요한 경비는 연맹원의 임의 각출금, 지정보호단체의 조성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 본 연맹은 각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마다 지부를 설치한다.

각 지부의 사무소는 각 보호관찰소 안에 둔다.

제11조 각 지부에 고문 및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1명
4. 간사 약간 명

제12조 고문은 지부의 중요사항에 대해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지부장은 그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리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지부의 상무를 장리한다.

제13조 고문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통해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지부장은 지부대회의 추천을 통해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부지부장은 보호관찰소장 직에 있는 자로 한다.

간사는 지부대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다음 번 통상대회까지로 한다.

단, 간사 가운데 2명은 보호관찰소 보호사(保護司) 직에 있는 자 및 동 관찰소 서기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한다.

제14조 지부의 통상대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지부의 회계는 독립한다. 단 경비는 제9조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본 규약은 연맹대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출전: 「時局對應全鮮思想報國聯盟の 活動狀況」, 『思想彙報』 第20號, 1939년 9월, 213~222쪽〉

2.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일람』(1940)

〈목차〉

1. 창립선언
2. 결의
3. 성명서
4. 반(反)코민테른 결의
5. 연맹의 활동 임무

6. 연맹 당면활동에 관한 결의사항
7. 연맹규약
8. 연맹 활동상황 일람표
9. 연맹원 헌금표
10. 애국헌금헌품 세목표
11. 연맹현세표
12. 연맹 자산상태
13. 『사상보국』지 배포상태
14. 연맹 본부임원
15. 각 지부임원
16. 각 지부 관내 분회표

창립선언

우리 일본제국은 지금 두 가지 세계사적 임무에 당면하고 있다. 그 하나는 일본정신을 발양하여 동양문화의 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구미파(歐美派)의 파괴적인 사상관념 등으로부터 모든 동양의 민중을 문화적으로 해방 방어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경제 등의 영역을 통해 일본, 만주, 지나 등이 하나가 되는 신체제를 수립함으로써 아시아에 대한 열국의 침략적 쟁탈전을 배제 근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동양만이 아니라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팔굉일우의 황도정신이 그렇게 만드는 바이다. 청일 러일전쟁을 비롯해 이번 지나사변의 결정적 수행 등은 그 현현(顯現)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 일본은 세계열강의 면전에 당당히 정의의 군대를 내보내고 있다. 정의 앞에는 적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제국이 이러한 역사적인 중대 사명을 다하고자 성전을 개시한지 1년여, 삭북(朔北)의 변토(邊土)와 남지(南支)의 작은 섬에 이르기까지 군대기(旭旗)를 빛내고 있다. 한편 북지(北支)와 중지(中支)의 신정권은 서로 호응하여 궤기함으로써 세계적인 성업에 참가하여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또 향후 문화적으로도 동양 옹호를 위해 눈부시게 분투하고 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국민은 그 임무의 중대함을 자각하고 거국일치의 체제를 더욱 강고히 만들어야 한다.

현대의 전쟁은 단순한 무력전이 아니다. 정치전, 경제전 특히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쟁이 각각 그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총동원, 국민정신총동원 등 시국대응의 시책은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지극히 적절한 철혈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단호한 결의로 이 국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국위선양과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국체관념의 명징, 내선일체의 강화철저, 응소자유가족의 구원, 생업보국, 근검절약, 근로보국 등에 적성을 다하여 난국을 극복함으로써 제국 백년의 대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 임무의 완성은 국민 전체가 각기 그 소속 부면에 대응하여 각자의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을 결성하여 그 임무와 사명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사상적 오류에서 탈각

하고 관념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자기청산의 빛나는 명예를 획득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앞으로 나아가 전체적인 보다 높은 활동분야와 천부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각성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소극적인 자기청산으로부터 적극적인 자기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내선일체의 희구는 이미 그 결실을 맺었고, 시국대응의 국민운동은 그 정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 또한 국가총동원운동에 헌신봉사하고, 특히 사상국방의 특수적 전야(戰野)에서 우리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싸워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상국방의 영예스러운 전사로서 임명하고, 과거의 경험과 실천능력을 이에 바침으로써 반(反)국가사상을 파쇄격멸(破碎擊滅)하고 황도정신의 진기양양(振起昂揚)에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이를 계기로 연맹원 상호간의 인간적인 재훈련과 재도야를 도모하고 일본정신의 파악, 내선일체의 강화, 사상의 정화, 품성의 연마, 생활의 쇄신 등을 전 조선 전향자의 부단의 실천적 과제로 삼아 더욱 결속을 강고히 하고 그 목적 수행에 매진할 것을 맹세한다.

1938년 7월 24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결의

하나. 우리는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정신의 양양에 힘쓰고 내선일체의 강화철저를 기약한다.

하나. 우리는 사상보국전선에서 반국가적 사상을 파쇄격멸하는 육탄적 전사이기를 기약한다.

하나. 우리는 국책수행에 철저히 봉사하고 애국적 총후활동의 강화철저를 기약한다.

위를 결의한다.

1938년 7월 24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성명서

세계사는 우리 대일본제국의 영도에 따라 일대 전회(轉回)를 이루고 있다. 19세기의 백색인종 전성시대로부터 20세기를 기점으로 한 황색인종 부흥의 시대로 세계는 신국면을 계속하고 있다.

반(反)혁명 전야의 소련의 파렴치한 침략행위, 부흥 독일의 저돌적 팽창책, 황혼의 비운에 오뇌(懊惱)하는 노후(老朽) 영국제국의 최후적 분기, 전체주의 진영에 포위된 프랑스의 고육책 등에 의해 결국 폭발된 구주동란은 앞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진전될 것이며, 하늘은 황국을 도와 세 번째 신편(神風)을 가져오려고 한다. 팔굉일우의 대이상은 우리 제국의 조국(肇國)의 정신이고, 우리 황국신민은 세계사 창조(創造)의 의무가 부여된 역사적 국민이다.

대륙에 홍야의 성사(聖師)를 내보낸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충용 의열한 황군 장병의 분전격투를 통해 유사 이래 공전절후(空前絶後)의 대전과(大戰果)를 거두었다. 우리 일장기 아래 지나의 4백여 주(州) 거역(巨億)의 민중을 구원하고 있고, 모든 인류가 이러한 찬연한 역사적 사실을 찬탄(讚嘆)해마지 않는 바이다. 우리는 백인제국주의의 세계적 파괴공작에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천재일우의 호기에 흥

아직 대사명을 완수함으로써 팔굉일우의 대정신에 의거하여 인류 구제를 향한 진군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맹은 지금 제2단의 발족에 즈음하여 위에서 말한 황국의 천부적 위업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팔굉 일우의 조국정신의 현현(顯現), 흥아정신에 의거한 신동아협동체 건설,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 완성을 추구하는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모든 반(反)일본정신적 사상의 파쇄격멸, 특히 코민테른의 폭쇄(爆碎)에 의한 국제적 사상전의 승리, 일본정신의 진기(振起) 고양을 통한 국민사상의 정화 통일, 물심 양 방면에서의 모든 친화와 노력, 국책수행에 철저한 봉사를 통한 국력의 입체적 충실, 국가의 인적자원 확보에 대응하는 인재양성, 애국적 총후 활동의 확충 강화, 연맹원의 황국신민화 도야 및 기술적 재훈련 등 각종 중요 임무의 전면적 전개를 향해 분골쇄신의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모든 논의를 접고 일사순국의 결의를 통해 천양무궁(天壤無窮)의 황운을 부익하고자 한다. 이를 성명한다.

1939년 10월 8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제1회 통상대회

반(反)코민테른 결의

인류사에서 코민테른의 파괴적 죄악은 신인(神人) 모두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이에 소련의 세계정 책기관으로서 인류평화 파괴의 총본영인 코민테른에 대해 감연(敢然)히 선전을 포고하고, 동아의 천지로부터 적색 세력을 구축 삼제(芟除)함으로써 흥아적 대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세계동란을 유발하는 세계적화 음모를 철저히 분쇄함으로써 인류를 적색제국주의의 침식(侵蝕)으로부터 구제 방위하고자 한다. 이로써 황국의 팔굉일우의 커다란 이상 실현에 매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반도에서의 사상 국방 전선의 견진(堅陳)에 서서 이를 결의한다.

1939년 10월 8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제1회 통상대회

연맹의 활동임무

모든 인류는 세계사의 변혁기에 당면하여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역에 걸쳐 유사 이래 미증유의 대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구미제국은 물질문명의 최후적 총결산을 도모하고자 현재 모든 인위적 파괴공작에 광분하고 있고, 물질문명의 파괴성에 싫증이 난 20억 인류는 지금 도의적인 우리 제국의 세계사 창조 공작에서 세계의 신평화 체제수립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성적으로 이를 희구하고 있다. 팔굉일우의 커다란 이상은 우리 제국의 조국(肇國) 정신이다. 지난번 청일, 러일 2대 전역(戰役)은 물론, 만주사변 나아가 이번의 지나사변에 관통하는 흥아의 성업은 실로 이의 구현과정이다.

반도에서 결성되어 사상적 분야를 통해 황국에 봉공의 정성을 다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떠안은 연맹은 서상(敍上)의 황국의 천부적 위업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음의 제반 활동을 수행할 임무를 갖고

있다.

(1) 연맹은 팔굉일우의 조국(肇國) 정신의 현현에 기여하고자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운동을 통해 내선일체의 철저한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연맹의 반도에서의 사상보국운동의 대부분은 실로 여기에 귀착한다.

지나사변 발발 이후, 애국적 봉사와 군사후원활동 등 반도에 횡일(橫溢)한 2천만 황민의 애국적 적성은 내선일체의 심도(深度)를 웅변(雄辯)하게 말하고 있다. 지원병제도의 실시를 통한 국방적 책무의 분담, 학제 개혁을 통한 내선교육의 획일화, 국제명징을 기조로 하는 황국신민화운동, 국방산업의 장려를 통한 반도 보고(寶庫)의 개발 등 반도통치 상에서의 획기적인 비약은 2천만 황민 모두가 감격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수 없는 바이다. 연맹은 반도에서의 이러한 역사적 사업에 입각하여 내선일체의 철저한 강화를 위해 진폭적인 분투를 계속하여야 한다.

(2) 연맹은 국내적으로는 모든 반국가사상을 파쇄 격멸하고, 국제적으로는 사상전의 승리를 기하는 특과대(特科隊)이다.

우리는 이러한 특수적 사명 아래 사상보국전선의 견루(堅壘)에 서서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등 모든 반국가사상을 파쇄 극복하고, 일본정신의 진기 양양을 통해 국민사상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코민테른 및 세계민주주의 진영에 대해 과감히 선전(宣戰)함으로써 모든 반일본정신적 사상관념을 구축 삼제(芟除)하고, 황도정신의 세계적 광피(光被)를 통해 불안상태에 빠진 인류의 정신 사조를 시정해야 한다. 물심 모두 일본문화의 세계적 선양을 통해 혼란 상태에 빠진 세계에 신문화체제를 수립하고자 맹진해야 한다.

(3) 연맹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국가총동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 협력해야 한다.

올바른 의미에서의 개인적인 정치적 진출은 예외로 하지만, 연맹원은 집단적으로 국정에 간여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해야 한다. 연맹은 결코 정당이 아니다. 철두철미하게 정신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친화와 노력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총동원운동에 참가 협력해야 한다. 우리 연맹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가입하는 근거도, 연맹원의 자숙자계의 본지도 바로 여기에 있다.

(4) 연맹은 국책수행에 철저히 봉사함으로써 국력의 입체적 충실에 매진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쳐 국책에 순응하고, 그 수행에 철저히 봉사함으로써 어떠한 국책의 수행에서도 일억 국민의 모든 지지와 참가를 완수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과거 1년간 사상 국방의 국책에서 미력하나마 봉사적인 협력을 지속해왔는데, 이는 연맹에 부여된 항구적 과제이다. 우리는 더욱이 황국의 위대한 역사적 사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국가총력 안에 융합 통일되어 국가백년대계의 입체적 충실 및 국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

(5) 연맹은 대륙건설의 전선을 따라 연맹원의 훈련 및 진출원조를 구체화해야 한다.

무자각한 부정(不正) 업자에 의해 초래된 대륙에서의 반도인 전반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에 과거 1년간 연맹원의 진출공작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륙건설사업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건설 전사(戰士)의 대량 이주문제가 연일 운위되고 있는 오늘날, 지나어강습회(경성·대구·광주) 등을 통해 연맹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인에 대한 진출 준비에 노력한 사실은 지극히 적절한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륙진출을 지원하는 연맹원에 대해 홍야 건설 전사로서

일확천금적인 투기심을 일소하고, 백골을 대륙에 묻어 대륙건설의 초석이 되자는 숭고하고 장대한 결의와 신념을 양성해야 한다. 특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륙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함과 동시에 우수한 연맹원을 다수 진출을 앞선함으로써 대륙 일반의 인식을 더욱 일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6) 연맹은 국가의 인적자원 확보에 대응하고자 인재양성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아시아의 맹주이자 세계의 지도국가인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그에 부끄럽지 않은 소질과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고, 무제한적인 인적자원의 개척 확보에 노력함으로써 국운의 향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불행히도 기왕에 황민적 도야에 시간적 지연을 초래한 연맹원은 국가사회의 중견층으로서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재교육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사회적 매물 상태로부터 탈각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활동을 다하기 위해서 첫째로 일본정신의 파악과 체득을 통한 혼(魂)의 부활, 종교문제연구에 의한 영적 생활의 확립 등을 통한 도의적인 인격 완성에 정진하고, 둘째로 생활대책, 기술적 재교육, 직업 보도(輔導) 등을 통한 생활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7) 연맹은 시국의 진전에 대응하여 애국적 총후 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연맹은 창립 이후 본부 및 각 지부에서 백의(白衣)의 용사위문음악회 및 영화회의 개최(경성), 육군 묘지의 청소(경성·함흥), 병기 수리작업(경성), 위문보따리의 대량 헌납(함흥), 장고봉사건 당시의 전선 위문(청진), 국경경비대 위문(신의주·청진), 사상전 무기로서의 16밀리 활동사진촬영기 및 영사기의 헌납(본부), 씨름(相撲) 대회를 중심으로 한 수천 명의 출정군인 유가족 및 백의의 용사 초대 등 애국적 총후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대륙에서의 제일선 장병 및 건설 전사의 위문 등의 방면에서 앞으로 남겨진 문제가 많다.

(8) 연맹은 노자(勞資) 일체에 의거하여 산업보국운동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

연맹원은 공장, 광산, 교통운수기관, 농촌 등지에서 종래의 경험을 정당한 의미에서 활용하고, 전시 산업 발달에 노력하고자 노자 간의 협조일체, 생산능률의 증진, 파업쟁의의 방지 등을 비롯해 나아가 근대전(近代戰)에서의 경제전사(經濟戰士)의 역할에 대한 자각 촉진에 이르기까지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를 들면 연맹원을 산업보국대에 편입시켜 전 조선의 주요 생산지점, 농촌에서의 강연회와 좌담회 및 노동봉사 등과 같은 시책을 연구 실시해야 한다.

(9) 연맹은 연맹원의 자주적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더불어 그 생활의 확립을 지도하고, 나아가 반도 민중의 생활쇄신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 분야를 확장해야 한다.

연맹원의 대부분은 이미 사회복귀를 완성하고, 그중에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자도 현존한다. 하지만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내지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손색이 있다. 우리는 자주적 사회복귀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일반사회의 이해와 보호관찰소 당국의 협력을 얻어 견실한 생활 태도를 명시함과 더불어 반도 민중의 내선간 생활의 획일화, 기타 생활개선운동에 전면적으로 편승하여 생활 부면을 통한 내선일체 공작에 노력해야 한다.

(10) 연맹은 문화 활동의 전면적 전개를 통해 국민문화의 향상발전 및 국가의 선전국책 수행에 기여해야 한다.

이 부면에서 연맹은 과거 1년간에 걸쳐 연맹기관지 『사상보국』 및 지부 뉴스(아리나레(ありなれ)²⁾,

호남의 벗(湖南の友), 영력(ことたま³⁾ 등)의 발행, 일본정신 상습회의 개최(경성·대구·평양·광주 등), 야학, 일요학교의 설치(신의주), 강연회 좌담회의 개최 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영화(경성·평양·신의주 등), 연극(청주·수원) 등에도 부분적으로 활동하였지만, 우리 일동은 이러한 선전문화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바이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기울여 보조적인 기관 잡지, 단행본, 리플릿의 간행 및 뼈라, 전단, 포스터 등을 통한 선전활동에 힘쓰고, 각 방면의 지식층을 동원하여 전문적 연구회 및 강연회, 좌담회, 전람회 등의 개최, 순회강연, 영화, 연극 등을 통한 문화 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11) 연맹은 지방기관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중앙집권제를 확립하고 모든 계열의 조직기구의 정비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연맹은 그 창설기에는 과도적인 제반 사정에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본부기구의 불비(不備)에 따른 중앙집권제의 불완전성, 본부 지부 및 지회 간의 철저히 못한 연락, 분회 활동의 침체 및 광범한 미조직 지대의 방임 등의 결함을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연맹의 주관적 정세로 인한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빛나는 제2의 발족에 즈음하여 우리는 연맹의 모든 기구를 확충해야 한다. 분회 결성에서 수개의 지부(광주·대구)는 다소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다른 지부에서는 아직 조직되지 않은 지대의 분회 결성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다음번 통상대회까지는 분회 결성을 모든 조선에 완료하여 비로소 연맹은 모든 조직 활동에 필요한 능력과 시간을 조직체계의 질적 전환에 전주(轉注)할 수 있다.

(12) 연맹은 모든 우의(友誼)단체 및 교화단체와의 제휴협조에 노력해야 한다.

연맹은 조선방공협회와는 강연, 연극, 전람회 등을 중심으로 모든 조선에 걸쳐 항상 협력해왔고, 보호단체와는 조직 활동, 연맹원의 생활대책 등에서 정신편 물질적으로 협조해왔다. 또 시국대응전국위원회와는 자매단체로서 그 국가적 책무를 분담하였고, 제국경신회(帝國更新會)와는 내선 간의 연락을 중심으로 협력해왔다. 하지만 연맹은 이들 여러 단체와의 제휴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전국 나아가 만주, 지나의 우의단체와도 인적, 문서적, 물질적 방법을 통해 제휴 협조해야 한다.

(13) 연맹은 일반 후진(後進) 전향자의 유액선도의 임무를 담당하고 나아가 국민사상의 정화를 촉진해야 한다.

재소자를 중심으로 한 좌담회(대구·광주·함흥)와 석방자를 중심으로 한 간담회(청진) 등 다소간의 활동은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연맹 예산에 적당액의 구호선도비를 적립하여 옥내(獄內)의 후진 전향자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접촉을 빈번히 해야 한다. 서적 차입과 그 가족 구호 등을 통해 선도 흡인함으로써 그들의 전향 촉진을 도모함과 더불어 나아가 인민주의적, 민족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반 민중의 선도에도 노력해야 한다.

(14) 연맹은 대승적 포용을 통해 연맹원 간의 상호부조 및 친화를 도모해야 한다.

해양은 모든 탁류를 담아 푸른빛을 내는 것처럼 연맹은 모든 사상관계자를 포용하여 사상정화를 도모하는 단체이다. 연맹원은 과거의 소송적 당파를 완전히 초극하여 대국적으로 전선통일을 완성하고,

2) 아리나례(阿利那禮)는 압록강의 옛 지명.

3) 고토다마(靈力)는 일본을 뜻하기도 한다.

과거의 주의사상을 논하지 않고 일본정신에 따라 통일되고 있다. 현재는 과거와 같은 추태는 일소되었지만, 우리는 더욱 자숙자계하여 신성한 연맹정신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 모든 집회, 간담회, 야유회, 경기회, 공제회 등을 통해 상호 간의 친목부조에 노력함으로써 친화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15) 기원 2600년을 전기(轉機)로 한 황국의 융창비약에 대응하여 연맹도 약진적 기념사업을 시행하여 장래의 발전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여신궁 어조영 봉사수양회의 주최, 가지하라신궁(梶原神宮) 건국봉사수양단의 파견 및 연맹회관의 창건 등 의의 있는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본부에서부터 분회에 이르기까지 각각 영구적으로 기념이 될 만한 사업 혹은 무형적일지라도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사업을 개최함으로써 연맹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황국의 획기적인 약진에 공헌해야 한다.

(16) 연맹은 본래의 사명 및 당면한 활동 임무를 충분히 달성해야 하고 재원 염출 및 연맹기금 조성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모든 자금 활동은 연맹의 사업과 병행함과 동시에 결정적인 대사업은 일정한 재단이 없다면 이에 착수하는 것조차 어렵다. 2~3지부(신의주·청진·함흥)에서는 이미 자금 조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대부분의 지부는 재원이 아직까지 운택하지 않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씨름대회 개최를 통해 기금조성을 위해 피나는 분투를 계속하였지만, 연맹 자체의 선전적 효과를 제외하면 수익은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각 지부에서는 회비는 분회 유지비로 충당하고, 찬조자망의 확대에 노력하여 기원 2600년을 계기로 모든 조선에 걸쳐 대대적으로 기금조성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연맹은 이상의 제반활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면서 의의 있는 기원 2600년을 계기로 일대 약진을 이루어야 한다. 연맹은 이를 통해서만 국가총동원운동에서의 헌신적 특과대로서 황국의 위대한 역사적 창조에 참여할 수 있다.

1939년 10월 8일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 제1회 통상대회

연맹 당면활동에 관한 결의사항

1. 기관지 확충의 건(본부·평양·함흥)

(이유) 기관지를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일은 본 연맹의 시급하고 커다란 요구이다. 오늘날과 같은 연맹의 성장 상태에서는 『사상보국』과 같은 작은 기관지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지금까지 『사상보국』은 기관지로서 함께 하기 어려운 역할, 즉 연구 천명(闡明) 및 활동 보고를 함께 해왔다. 하지만 이는 쌍방 모두 완벽을 기할 수 없으므로 이후 연맹원의 이론적 교양을 위해 새로운 계몽적인 기관 잡지를 발행함과 동시에 현재의 『사상보국』은 그 형태를 확대하여 항수를 현재의 반 정도로 축소함으로써 오로지 연맹활동의 성과를 보도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방법) 본부 상임간사회에 일임한다.

2. 연맹도장 창설의 건(본부·광주)

(이유) 우리가 사상전에서 국방을 담당하고 사상보국을 통한 국가에 대한 봉공을 당면한 사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의 실천에 충분한 사상 전사(戰士)로서의 소질인격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에 연맹원의 도장을 건설하여 가급적 전 조선 연맹원의 훈련도야에 바탕이 될 필요성을 통감한다.

(방법)

- (1) 장소는 예를 들면 조선신궁 부근이 적당하다.
- (2) 그 해결은 광범한 기부 및 당국의 조성금 등에 중심을 둘 것.
- (3) 기원 2600년부터 이후 계속사업으로 한다.
- (4) 건조(建造)에 즈음하여 연맹원은 전조선적으로 노동봉사를 해야 한다.
- (5) 연맹도장 창설 기성위원회를 조직할 것.
- (6) 도장의 유지비는 사용개방을 통해 해결할 것.

3. 연맹재원확립의 건(본부)

(이유) 연맹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과거에 연맹의 활동이 침체한 주요 원인은 재원의 빈약에 따른 것이 컸다.

(방법)

- (1) 전 조선에 걸쳐 대대적으로 찬조금을 각출함으로써 재단법인 조직을 완성할 것.
- (2) 이를 위해 재단법인 기성특별위원회를 조직할 것.

4. 부여신궁 어조영 봉사수양회의 건(경성)

(이유) 내선일체의 본원지 부여에 부여신궁을 창건하는 것은 원래 국가적 사업이지만, 본 연맹은 필히 봉사수양회를 파견하여 창설공사에 참가시킴으로써 내선일체의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

(방법) 각 지부에서 각각 5명 이상, 내지 각 보호관찰소 관내로부터 우수전향자 2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봉사수양단을 조직할 것. 단 비용은 각 지부가 부담하고, 시기는 본부에 일임한다.

5. 궁성요배 및 신궁신사참배의 건(경성·신의주·대구)

(이유) 연맹원의 일본정신 체득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궁성요배 및 내지 주요 신궁신사를 참배할 필요가 있다.

(방법) 궁성요배·이세신궁(伊勢神宮)·가지하라신궁(梶原神宮)·모모야마능(桃山御陵)·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고마신사(高麗神社)에 참배하고, 특히 고마신사에서는 근로봉사를 하도록 각 지부 5명 이상의 인원을 파견하고, 그 비용은 각 지부가 부담한다. 시기는 본부 상임간사회에 일임한다.

6. 기원 2600년 기념봉축에 건(본부·평양)

(이유) 기원 2600년을 전기(轉機)로 한 황국의 역사적 비약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맹은 비약적 기념

사업 및 국가적 봉축에의 참가를 준비함으로써 연맹의 역사적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황국의 획기적인 약진에 기여해야 한다.

(방법)

(1) 본부, 지부 및 각 분회에서는 각각 영구적인 기념사업 혹은 무형적일지라도 역사적으로 의의가 깊은 사업을 개최할 것.

(2) 연맹도장, 흥아도장, 애국문고 등의 창건을 기념사업으로 삼을 것.

(3) 가지하라신궁 건국봉사수양단의 파견은 물론, 부여신궁 어조영 봉사수양회의 주최는 필히 이 기념사업으로 삼을 것.

(4) 기념사업과 결부하여 연맹은 전조선적으로 대대적 기금조성운동을 일으킬 것.

(5) 모든 봉축행사는 연맹 본부 및 정동연맹의 지시에 따를 것.

7. 하기 수양대학 개최의 건(본부·대구)

(이유) 연맹원으로서 과거에 대한 깊은 회오(悔悟)의 마음을 통해 과거에 대한 보상의 관념을 두터이 하여 국제관념의 파악, 일본정신의 체득, 시국인식의 심화, 국제지식의 보급,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감의 함양 등을 도모하고자 하기 수양대학을 개최할 것.

(방법) 각 지부로부터 10명 이상의 연맹원 파견을 통해 대학을 구성하고, 시기는 1940년 7월 중순 1주간 예정으로 그 비용은 각 지부가 부담한다.

8. 산업보국대 조직의 건(본부)

(이유) 대륙에서의 장기건설전 및 세계대전 발발은 우리 제국의 산업보국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양양시켰다. 본 연맹은 종래와 같은 사상보국으로부터 산업보국운동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시산업의 발달과 노자(勞資)일체의 완성에 공헌함은 물론, 사상전과 함께 경제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고, 또한 내선일체의 국민운동에도 기여해야 한다. 산업보국대 조직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방법)

(1) 본부 및 각 지부는 연맹원 약간 명으로 산업보국대를 조직할 것.

(2) 각 공장, 농장에서 그 생산종업원과 침식을 함께 하면서 1일 내지 수일간 근로봉사를 할 것.

(3) 근로봉사, 강담회, 강연회를 열 것.

(4) 경제전, 노자일체, 산업보국 정신의 철저를 도모할 것.

9. 대륙건설 위문격려단 파견의 건(본부)

(이유) 우리 제국은 대륙건설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세계사적 임무를 다하고 있다. 제일선 및 소련과 만주의 국경에서의 황군 장병의 신고(辛苦)는 물론, 광막한 미개지 개척과 치안공작을 위해 분투하는 건설전사의 노고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들 건설전사를 격려위문하고, 또한 연맹원의 대륙적 시각과 포부를 양양시킬 필요가 있다.

(방법) 소련과 만주 국경선으로부터 만주의 주요 도시를 경유하여 북지에 들어가 베이징을 종점으로

한다. 지부로부터 1명씩 연맹원을 파견하며 비용은 지부 부담으로 하고, 시기 및 방법은 본부 상임간사회에 일임한다.

10. 공로자 표창의 건(청진·신의주)

(이유) 연맹사업에 대해 물심양면에 걸쳐 다대한 원조를 하고, 활동을 조장하는 공로자에게 표창의 길을 강구하는 일이 가장 긴요한 일이다.

(방법) 연맹 총무의 이름으로 감사장을 증정하든가 혹은 기타 적당한 방법을 통해 그 공로를 위로할 것.

11. 연맹기, 연맹가, 연맹회장 제정의 건(신의주·광주)

(이유) 전조선적으로 통일된 연맹기, 연맹가, 연맹회장을 제정하여 각 행사 기타 단체행동 시에 이를 이용한다면, 우리 전선사상보국연맹을 선양하고 그 사회에 대한 효과가 클 것이다.

(방법) 본부에 제정위원회를 두고 현상제를 통해 널리 연맹의 정신을 표출하기에 충분한 가사 및 휘장, 깃발의 도안을 모집하여 심사제정할 것.

12. 사상전 전람회 개최의 건(신의주)

(이유) 우리 연맹의 활동도 시국에 즈음하여 내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때때로 사상전 전람회를 개최하여 사상전의 성질, 그 방법 및 방공 방침의 취지 등을 한번 봄으로써 대중이 알기 쉽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방법) 본부 상임간사에게 일임할 것.

13. 직업 재교육기관 설치 촉진의 건(대구)

(이유) 취업알선과 생활안정이 곤란한 연맹원은 직장 또는 특수기술이 없는 것이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중앙부에 직업을 보도(輔導)할 수 있는 원산장(援産場)이나 혹은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여 전조선 연맹원의 해당자를 모집하고 재교육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방법) 원산장의 설치에 관한 예산은 본부가 특별히 편성하여 가급적 신속히 이를 실현하고 각 지부의 희망자를 모집할 것.

연맹규약

제1조 본 연맹은 시국대응전선사상보국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경성보호관찰소 안에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조선에 재주하는 사상관계자로 본 연맹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조직한다.

제3조 본 연맹은 전 조선 전향자의 비상시국 하에서의 국가총동원운동을 강화 확충하고, 반국가사상을 파쇄 격멸하여 황도정신의 진기 양양에 힘쓰고 더불어 그 자주적 사회복귀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 연맹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내선일체의 강화 철저
2. 애국적 총후 활동의 강화
3. 사상국방전선에의 적극적 참가 협력
4. 사상선도 단체와의 연락 협조
5. 국책수행에 철저한 봉사
6. 대륙국책의 전선에 인접한 전향자의 □□원조
7. 전향자의 생활확립 및 근로봉사
8. 후진(後進) 전향자의 유액(誘掖) 선도
9. 전향자의 상호 부조친목

제5조 본 연맹에 고문 및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총무 1명
3. 총무차장 1명
4. 간사 약간 명, 이 가운데 약간 명을 상임으로 한다.

제6조 고문은 본 연맹의 중요사항에 대해 총무의 자문에 응한다.

총무는 본 연맹을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리한다.

총무차장은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총무의 지휘를 받아 본 연맹의 상무(常務)를 집행하고, 상임간사는 본 연맹의 상무를 장리(掌理)한다.

제7조 고문은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총무는 본 연맹대회에서 추천한다.

총무차장은 경성보호관찰소장 직에 있는 자로 한다.

간사 및 상임간사는 본 연맹대회에서 선출하고, 그 가운데 약간 명은 경성보호관찰소 보호사(保護司) 및 서기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총무가 이를 보임할 수 있다.

간사 및 상임간사의 임기는 다음 번 통상대회까지로 한다.

제8조 본 연맹의 통상대회는 매년 1회 총무가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본 연맹대회는 각 지부가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본 연맹에 다음 부서를 둔다.

1. 서무부
2. 수양부
3. 문화부
4. 시국부
5. 후생부

제10조 본 연맹에 필요한 경비는 연맹원의 임의 각출금, 지정 보호단체의 조성금,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본 연맹은 각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마다 지부를 설치한다.

각 지부의 사무소는 각 보호관찰소 안에 둔다.

각 지부는 필요에 따라 분회 또는 연합분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각 지부에 고문 및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지부장 1명

3. 부지부장 1명

4. 간사 약간 명, 이 가운데 약간 명을 상임으로 한다.

제13조 고문은 지부의 중요사항에 대해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지부장은 그 지부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리한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의 사고 시에는 이를 대리한다.

간사는 지부장의 지도를 받아 지부의 사무를 집행하고, 상임간사는 지부의 사무를 장리한다.

제14조 고문은 지부장의 추천으로 통해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지부장은 지부대회의 추천을 통해 총무가 이를 위촉한다.

부지부장은 보호관찰소장 직에 있는 자로 한다.

간사 및 상임간사는 지부대회에서 선출하고, 그 가운데 약간 명은 보호관찰소 보호사(保護司) 및 서기 직에 있는 자를 추천한다. 단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이를 보임(補任)할 수 있다.

간사 및 상임간사의 임기는 다음 번 통상대회까지로 한다.

제15조 지부의 통상대회는 매년 1회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각 지부는 연맹규약 제9조의 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둘 수 있다.

제17조 지부의 회계는 독립한다. 단 경비는 제10조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본 규약은 연맹대회의 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이상

연맹 활동상황 일람표(1939년 9월 1일 현재)

	경성지부		청진지부		함흥지부		신의주지부		대구지부		광주지부		평양지부		총계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회수	연인원
협의회	37	994	14	532	4	10	10	142	37	371	71	610	38	482	171	3,141
강습회	2	352	-	-	-	-	야학	500	6	270	2	100	9	380	20	1,602
강연회	23	4,305	2	730	19	2,970	21	1,080	5	1466	47	20,980	5	235	122	31,766
좌담회	34	632	3	225	23	880	12	460	25	564	20	519	8	116	125	3,396